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7 (1997)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제7호 (1997년)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김성군 변호사

저희 법률 사무소는 교토 여러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변호사

- * 서포크 법과 대학원 J.D.
- * 주법원 판사 보조
- * 메사추세츠주 국제 투자 개발원 근무
- *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졸업
- * 성균관 대학교
- * Gargill, Sassoon & Rudolph, William Diller
합동 법률 사무소 근무

- ✦ 교통 사고 및 처리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 ◇ 교통 사고 피해 보상
 - ◇ 교통 사고 후유증
 - ◇ 취중 운전
- ✦ 이민법/국제 투자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 영주권 이민/투자 이민 수속
 - ◇ 장단기 취업 비자 취득
 - ◇ 유학생 비자 변경
- ✦ 사업체 설립 및 매매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 ◇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
 - ◇ 리스가 만기되어 갱신하는 경우
 -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 ✦ 라이선스가 필요하십니까?
 - ◇ BEER/LIQUOR 도매 소매 허가증
 - ◇ 각종 허가 변경 및 갱신
- ✦ 가정법
- ✦ 상용 및 주거용 부동산 구입 및 판매
- ✦ 법정 통역, 공문서 번역, 공증

상해 보상은 변호 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며, 소송의 완결, 성공 이후에만 지불합니다.

Tel.(617) 482-1300 Fax.(617) 482-3344

**Song-Kun Kim, Esq.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9**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To these ends, KACL has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1) Voter Registration Drive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League has been working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by writing articles in the local news media. The results were very encouraging. In the last election, about 70%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in the town of Lexington, MA actually voted.

2) Assisting Preparation for Citizenship Applications

The League has published the "Citizenship Test Guidebook" in both English and Korean, provided free classes on the citizenship test, and sponsored written tests on U.S. government and history in both English and Korean.

3) Endorsing and Supporting Politicians

KACL has endorsed politicians who support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William Clinton, Edward Kennedy, and William Weld.

4) Lobbying

The League has lobbied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a letter-writing campaign to the U.S. President and Congressmen against passage of the welfare and immigration reform bill.

5) Public Relations Campaign

KACL has publicized its activities to both Korean-Americans and non-Korean-Americans by publishing Journals, writing articles and placing advertisements in local news media.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7 (1997)**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지 제7호 (1997년)

Published By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Tel.: (978) 691-5108 & (603) 659-6732

Fax: (978) 687-8942 & (603) 659-5488

October 25, 1997

Publisher Yangkil Kim

Editor Moon So Kim, Moon Yeal Lee

Editorial Board Advisor Kyung Min Park

Editor in Chief Michael M. Kim

Editorial Board Hong Kyun Choi, Yung Hoon Choi, Paul S. Chung, Steve Choi

Kyung Won Park, Song-Kun Kim, Yon K. Corkum

발행처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발행일 / 1997년 10월 25일

발행인 / 김양길

편집인 / 김문소, 이문열

편집고문 / 박경민

편집위원장 / 김명기

편집위원 / 최홍균, 최영훈, 정석호, 최낙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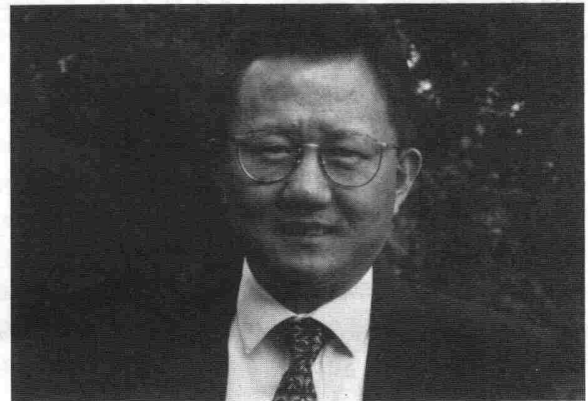
박경원, 김성균, 김연숙

Page	3. 발간사..... 회장 김 양 길 Message from President Yangkil Kim, President	
	6. Congratulatory Message William Clin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7. Congratulatory Message Judd Gregg, U.S. Senator, New Hampshire	
	8. Congratulatory Message Augus S. King, Jr., Governor, Maine	
	9. Congratulatory Message Lincoln Almond, Governor, Rhode Island	
	10. 격려사..... 대한민국 주보스톤 총영사 이 양 Congratulatory Message Yang Le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N.E.	
	11. 신임 이사장 취임사..... 이사장 이 문 열 Greetings from the New Chairperson Moon Yeal Lee, Chairperson of the Board	
	13. 전임 이사장 이임사..... 이사장 김 문 소 Farewell from the Past Chairperson Moon So Kim, Past Chairperson of the Board	
	14. 아시아인의 정치력 부회장 최 흥 균 Political Power of Asian-Americans Hong Kyun Choi, Vice President	
	16. 시민 협회 활동 보고 사무총장 김 명 기 Activities of the League During 1997 Michael M. Kim, Executive Director	
	19. 제1차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 사무총장 김 명 기 Conference with Religious Leaders Michael M. Kim, Executive Director	
	22. 한인 교포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고문 박 경 민 Issue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Kyung Min Park, Advisor	
	24. Reflections of a Samsei: Madeup - the Tiesthat Bind Jackie Eurn Hai Young, Ph.D. 3세의 생각: 우리를 묶는 끈 전 하와이주 하원 부의장 재 키 영	
	28. 전국 한인 미국인 연합 조직체의 태동..... 위원장 김 성 균 National Conference on Korean-American Leadership Song-Kun Kim, Chairperson of Citizenship Committee	
	30. 전국 한인 미국인 지도자 대회..... 대변인 함 성 기 National Conference on Korean-American Leadership Steve Ham, Spokesperson	
	32. 은퇴 생활 계획..... 이사 김 연 속 Advice on Retirement Planning Yon Kim Corkum, Board Member	
	34. 비자 면제 프로그램 캠페인..... (편집 위원회) Campaign for Visa Waiver Pilot Program	
	36. 사진으로 보는 시민협회의 활동..... (1997년) Activities of the League: Pictures (1997)	
	38. 신문 기사로 보는 시민협회의 활동..... (1997년) Activities of the League: Pictures (1997)	
	40. 시민협회에 참여하고 도와주신 분들..... (편집 위원회)	
	41.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헌장 (1996년 10월 19일 개정)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mended on Oct. 19, 1996)	
	46.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1997년 10월 25일 현재) List of Officers (As of Oct. 25, 1997)	
	49. 재무 보고서 재무 이 현 주 Financial Report Hyon C. Yi, Treasurer	
	50. 교회 및 업소 전화록..... (편집 위원회)	
	51. 시민협회 가입 원서..... (편집 위원회)	
	5. 시민협회 가입 안내	29. 기록으로 보는 시민협회의 활동
	49. 편집 후기	

우리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봉사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며 쉽게 응하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우기 그 봉사가 나의 시간과 노력, 심지어는 돈까지 써야 하는 회생을 요구하는 봉사일 경우는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는 구실없는 명분과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기에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다급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고 우리 공동체의 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설계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당연성이 있음에도 일부러 신경을 둔화시켜 모르는 것으로, 심지어는 없는 일로 돌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얼마나 좋으려만, 현실은 냉정하며 너그럽게 마냥 기다려 주지만은 않음도 우리는 또한 모르는 바도 아닌 것입니다.

한인 사회가 LA 폭동을 겪으면서 미국내 정치력 부재를 절감한 이래, 특히 지난 해에는 웰페어 개혁안과 신이민법의 발효로 또 한번 엄청난 충격을 한인 사회에 미쳤으나, 한인의 권익을 확보하고 뭉친 힘으로 미국 정치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는 산발적으로 각처에서 높아진 것 같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나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0년 8월에 창립된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는 그동안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부단없는 노력 속에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한인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의 확보를 위해 유권자 등록 및 투표 권유, 후보자 지지 및 정치 모금 활동 등 각종의 캠페인을 벌여 왔고, 시민권 취득 권유와 함께 취득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능한 한인들 정부 임명직에 추천하고, 웰페어 법안 복원 운동에 참여하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기 매사추세츠 주지사 유력한 후보가 우리 한인들의 지원을 요청해 왔고, 유능한 한인들 정부 고위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어서 고맙다는 편지도 온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 프로그램에 한국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뉴잉글랜드 지역내의 모든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에게 한 바가 있는데, 케네디 상원의원은 답장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요건인 법률안의 개정을 공동 발의하여 상원에서 통과시켰다고 알려오



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협회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한인 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원, 특별히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께서 절대적인 힘이 되어 주셨음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일은 많고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려면 뭉친 힘 없이는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협회도 이제 더이상 소수의 참여자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명실공히 한인 사회 전체가 뭉쳐서 참여하며 함께 힘이 되어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동포 사회를 이끌어 나갈 1.5세와 2세들이 우리 한인들을 위한 권익 신장에 힘쓰는 시민협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미국 사회에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여 권익 신장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차 정기 총회에서 기초 연설을 해 주신 위싱턴주 전 하원의원이었던 신호범 박사께서는 그의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정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미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였고, 또 「1992년에 일어났던 LA 폭동 사건도 우리 한인들이 정계에 얼마만이라도 터 있었다라면 사전에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하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비록 전보다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1.5세와 2세들이 활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세대들은 최선을 다하여 힘이 되어주고 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한 뭉친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한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공동체들인 종교 단체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한인 사회 전체가 뭉쳐서 참여하며 함께 힘이 되어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창립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만 7년동안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아 우리 시민협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시어 모든 회원들의 귀감이 되셨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던 김문소 이사장께서,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채찍질해 주시기 위해 고문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시민협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문소 이사장께서 그동안 해 오셨던 일들이 너무나 막중하였으므로, 비록 고문으로 다른 방향에서 우리 협회를 적극 도우시겠지만, 당장은 너무 큰 공동이 보이는 것 같아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새 이사장으로 평소에 존경해 오던 이문열 장로님께서 선정되셨기에, 우리 시민협회의 또다른 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열 새 이사장께서는 숨도 돌릴 사이 없이 대단하신 의욕과 노력으로, 한인 사회의 지도자들이신 각 종교계의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진지하게 한인 사회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참다운 봉사를 위한 대화를 나누며 진지하게 한인 사

회의 밝은 내일을 열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해 오시던 이사님들과 이번엔 새로 선임되신 이사님들, 그리고 훌륭한 새 이사장님과 함께 많은 종교계 지도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다음 한해를 위해 닦을 올린 우리 시민협회는, 충실한 한인들의 공복으로서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항해해 나아갈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을 기르는 일에 적극 참여하시기 위해 시민협회에 승선하시기를 바라며, 첫번째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유권자 등록을 서둘러 해서 투표에 참여하시고, 두번째로는 시민협회에 모두 가입하여 우리의 뭉친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양길 회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위원이며, 캐톨릭타임즈의 보스턴 지역 매니저이고, Genetics Institute에서 스태프 과학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Yangkil Kim, President,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Boston regional manager of Catholic Times, and works for the Genetics Institute as a staff scientist.

English Translation by Kyung Won Park

Even when we agree 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services required of us by our community, some of us are often hesitant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and hope that someone else will take up the responsibility. When the service and responsibility we are asked to assume require a commitment of time, efforts, and even money, we often hide behind unjustifiable excuses that we are not qualified. Furthermore, when the task does not appear to require immediate attention from us, we often ignore and forget it, as if it has no bearing on the future of our community. Such lack of interest and responsibility does not actually allow us to maintain our status quo nor guarantee our future, for the reality is harsh and not so generous.

Korean communities had the painful experience of the Los Angeles mobs and were shocked by the new legislation on welfare and immigration last year. Many realized the consequences of lack of a tangible political power within American society and a few even clamored for a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arena. However, as yet, there are no measurable developments on the political fro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organized in August 1990, has seen a steady growth over the years, despite many adverse conditions. In order to secure and promote the political rights of Korean Americans, the League has been instrumental in registration and turnout of Korean American voters, support of candidates favorable to Korean communities, collection of political funds, and administration of workshops for elderly Koreans to make it easier for them to obtain citizenship. Furthermore, the League has recommended eligible Koreans to important government jobs and participated in movements to revoke the welfare reform act unfavorable to Korean immigrants.

Lately, gubernatorial candidates for the next election have approached the League for support and sent letters of appreciation for recommending capable Koreans to important government jobs. The League has also submitted to all the New

England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a petition to include the Republic of Korea as one of the nations from which admission into the U.S. would not require a visa. Senator Kennedy, in his reply, notified the League that he had submitted a bill for an amendment to include Korea as one of such nations.

The League has seen a steady growth and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not only within the Korean community, but also in the greater American society. Such a growth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efforts and support of many people, especially many religious leaders of the community. However, there are many more tasks that lie ahead in order to further promote the rights of Korean Americans. To achieve them will require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the dedicated few, but also a more generalized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greater Korean community.

Most importantl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1.5th and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ho will be the leaders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will be the key to securing a new niche for Koreans in America and to promoting our rights and privileges. Last year at the 6th general meeting of the League, the Honorable Dr. Shin, a former Representative from the State of Washington, delivered a keynote address and stated, "By participating in American political arena, we the Korean people can contribute to the American society.... A greater political participation might have prevented the tragedy of the LA mobs in 1992." Five years have gone by since the tragedy. But any increase in participation or even in interest in participation is barely discernible. Many, many tasks lie ahead that require our attention. I believe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irst generation Koreans to pave the way to ease and promot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1.5th and 2nd generations.

In order to gather the strengths and resources of our community, it is important not only f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but also for the groups within the community - especially religious organizations - to actively participate and cooperate. Only then, will we truly represent the whole Korean community.

Dr. Moon So Kim has tirelessly served the League as its Chairperson of the Board for 7 years from the very outset. His dedication and exemplary services have been most noteworthy.

He has now assumed a new task as Advisor of the League in order to encourage and goad the rest of us. On behalf of the League, I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for his years of dedicated service. His shoes were huge and are surely very difficult to fill. However, I find consolation in the fact that Mr. Moon Yeal Lee, whom I have a great respect for, has been elected as the new Chairperson. Mr. Lee's tenure will mark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our League.

Without wasting a moment, Mr. Lee has arranged for a meeting of all the religious leaders within our community to provide a forum for discussion of the future of the community. With the leadership of our new Chairperson, the support of the religious leaders and the assistance of the Trustees of the Board, both new and old, the League has now embarked on a new venture to further secure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 Americans.

My fellow Koreans of New England, I urge you to join forces with us in the task to promote our own rights. First, I urge you all to register to vote to exercise our rights as citizens. Second, I urge you all to join the League so that we may join our forces for a more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American political arena.

시민협회 가입 안내

시민협회에 가입하셔서 소수 민족과 한인의 권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가입 절차는 이 회지에 삽입된 입회원서를 기재하셔서 소정의 회비와 함께 명기된 주소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도 현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실 수가 있으며, 가입 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이름 옆에 "영주권자"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회원서 용지를 받기를 원하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회장 김양길 (978) 691-5108 이나, 사무총장 김명기 (603) 659-4845 로 연락주십시오.

시민협회 핫라인 전화 : (603) 659-6732

THE WHITE HOUSE
WASHINGTON

Warm greetings to everyone gathered for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Throughout America's history, we have overcome tremendous challenges by drawing strength from our great diversity. The talents, contributions, and goodwill of people from so many different backgrounds have enriched our national life and have enabled us to fulfill our common hopes and dreams. As we stand at the dawn of a new century, we all must rededicate ourselves to reaching the goals of acceptance and inclusion. America's continued success will depend on our ability to understand, appreciate, and care for one another.

Like each of you, I remain dedicated to ending discrimination and preserving the civil rights of every citizen in our society. My initiative on race, "One America in the 21st Century," is about engaging people to help us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within a united America. We must continue to work together as a nation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race and promote solutions that can make a difference. I commend you for your commitment to ensuring that America's promises of equality and opportunity for all become a reality.

Best wishes for a productive meeting and every future success.

Bill Clinton

격려사

Congratulatory Message

미합중국 연방 상원의원 주드 그렉

Judd Gregg, United State Senator, New Hampshire

JUDD GREGG
NEW HAMPSHIRE

CHIEF DEPUTY WHIP

COMMITTEES:

BUDGET

APPROPRIATIONS

LABOR AND HUMAN RESOURCES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2904

(202) 224-3324

OFFICES:

125 N. MAIN STREET
CONCORD, NH 03301
(603) 225-7115

28 WEBSTER STREET
MANCHESTER, NH 03104
(603) 622-7979

3 GLEN AVENUE
BERLIN, NH 03570
(603) 752-2604

99 PEASE BOULEVARD
PORTSMOUTH, NH 03801
(603) 431-2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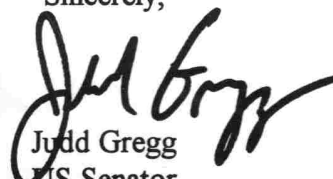
Dear Friends:

I am pleased to be included in the Journal for the 7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On behalf of New Hampshire, I would like to applaud your organization and its tremend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political voice of Korean-American citizens. As our communities become more diverse, it is important that all of our citizens continue to be heard and represented. Your organization's accomplishments are significant and valuable in achieving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New Hampshire, which is essential for the well-being of our New England community, as well as the nation as a whole.

Through your effective activities, I urge you to keep pursuing the goals of your organization. I wish you the best of success in the future.

Sincerely,



Judd Gregg
US Senator



ANGUS S. KING, JR.

GOVERNOR

STATE OF MAINE
OFFICE OF THE GOVERNOR
1 STATE HOUSE STATION
AUGUSTA, MAINE
04333-0001

Dear Friends:

I would like to take the time to commend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Your efforts toward presenting a unified and coherent voice for Korean-Americans epitomizes the valuable ideals of communication and enterprise.

Your accomplishments as an organization speak for themselves: You have organized voter registration drives, endorsed and supported politicians who stand for the right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established a standard of public relations through both the creation of your journal and the use of local media. In this country of diversity, you have celebrated the individuality of your community while also celebrating the American culture as a whole.

I wish your organization the best in its every endeavor.

Sincerely,

Angus S. King, Jr.
Governor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State House
Providence, Rhode Island 02903-1196
401-277-2080

LINCOLN ALMOND
GOVERNOR

Dea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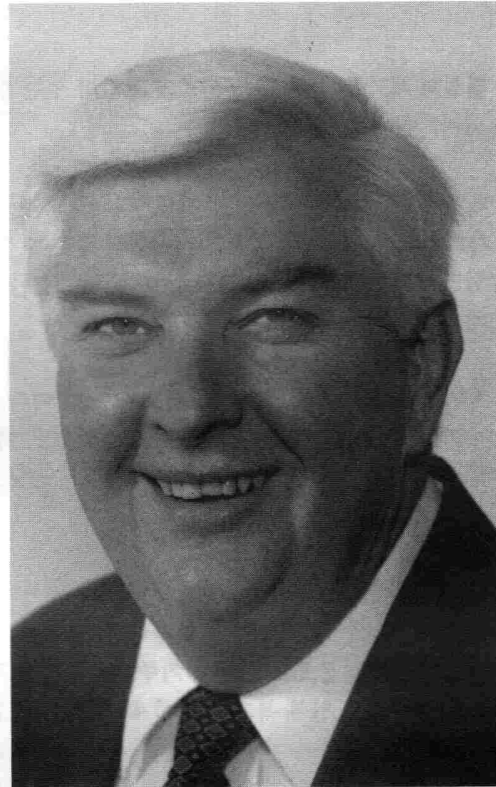
Once again, it is my distinct honor and pleasure, as Governor of the State of Rhode Island, to send greetings and offer best wishes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an ethnically diverse state, Rhode Island has promoted our Governor's Summit on Diversity as a way to bring all groups in the state together while celebrating and honoring individual heritage and culture. The strength of our state comes from this mix of cultures and belief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Rhode Island continues to grow and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and integral part of our community.

Together, through cooperation, pride in our community, and diligent efforts, we can help make Rhode Island and our Korean-American community stronger.

Best wishes in all your future endeavors.



Sincerely,

Lincoln Almond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FINANCIAL CENTRE, BOSTON, MA 02111

TEL. (617) 348-3660 • FAX. (617) 348-3670

결실의 계절을 맞아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곳 보스톤에 부임한 지도 이제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스톤에 주재하는 총영사로서 교민 여러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동참하여 각자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가능한 측면 지원을 다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한인 교포들은 이민법 개정과 복지법 개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영주권 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할 입장이며,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일부 복지 혜택이 복원되었다고는 하나 또다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모든 이민자들이 가능한 빨리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인 미국 시민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차례에 걸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워크숍을 무료로 개최함으로써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획득을 적극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발굴해 내어 재외 동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일들은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뉴잉글랜드 동포 사회는 작은 소수 민족의 차원을 벗어나 2만명이 넘는 커다란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 사회가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부여하고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가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더욱 장려하여 이를 유권자 등록과 투표로 유도함으로써 미국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일곱번째의 회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간 수년간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신 김문소 이사장 내외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후임으로 저를 추천해주신 회장단, 이사진, 고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절감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내다보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주인이 할 일, 나그네가 할 일이 구분될 때가 많습니다. .

동양의 이웃 나라들 중에는 종교가 거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되는 바를 보면 기독교 연맹이나 불교 연맹같은 것이 있다고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어떤 국가이건 국민의 종교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국제적인 종교회의가 개최될 때 대표를 파견하지 않을 수도 차마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서로 다른 언어와 많은 문화를 가진, 다민족이 서로 융화되어 공존하는 사회이므로 우리 민족도 주인으로서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체들이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주지사로 출마하는 메사추세츠주의 유력한 후보가 우리 협회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인들만이 전달받고 또한 주인들만이 협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주인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며, 시민 모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피선된 대표들로 주인 역할을 대행시키는 것이 민주 정치의 기본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1.5세 2세들이 우리와 같이 변방에 서서 그들을 들여다만 보거나 기웃거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절대적인 책임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은 향학열입니다. 과거 본격적인 이민을 70년 전후로 볼 때, 지난 25년 30년간 미래의 인재들이 축적되어와 이제 각 방면으로 진출이 시작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모두는 주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그 누구이든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이나 증거가 없으면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인의 정치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5년전에 우스터 11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서 주의원으로 출마했던 C씨의 기록이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1.5세, 2세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성장시켜야 할 꼭 필요한 정치 단체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정치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세계의 각 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한국 마크의 비행기나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도로망에 한국산 자동차들이 질주함으로 인해, Korean의 이미지가 옛날같이 전쟁의 나라라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1.5세와 2세들이 이 미국에서 주인의 영역을 넓혀갈 때에 한국의 이미지가 고양되는 서로의 불가분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핏줄을 가진 민족임을 서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자가 어떤 신분에 위치하였던 간에 이 협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성의를 다해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의 조그마한 정성이나마 이 협회의 발전에 한알의 밑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문열 이사장은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공으로 주상원의장(Mr. William Bulgee 8/28/93)과 보스톤 시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Mr. Raymond Flynn, 9/25/92, Mr. Thomas Menino, 8/28/93)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현재 보스톤 산성 장로교회의 장로이며, MS Fashion Inc.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Mr. Moon Yeal Lee, Chairperson, received awards from Massachusetts Senate President William Bulger in 1993 and twice from Boston Mayors (Raymond Flynn in 1992 and Thomas Menino in 1993) for his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He is an elder in the Greater Boston Presbyterian Church, and President of MS Fashion, Inc.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Dr. Moon So Kim, my predecessor, and his wife for their years of dedicated service. I also feel grateful to the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and Advisors, who elected me to this important task.

In a multilateral society such as ours, one often has to do things against his will or wishes. He may feel like a host at times, while at other times he may feel like a mere visitor. To be more like hosts in this multilateral society called the USA, we must organize and gather our resources and strengths.

A short while ago, Mr. S. Harshbarger, the State Attorney General, who is one of the gubernatorial candidates, sent a letter to our League asking for our support. To be able to decide whether to provide support or not is a task that only belongs to hosts. Of course, what I mean by hosts is all the citizen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because every citizen cannot participate in day-to-day governance of the country, some officials have to be elected and delegated powers to govern.

Our next generation should not be looking in from outside, looking for a chance for something significant at the edge of the society. It is the absolute responsibility of the current generation to as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be more like hosts in this country. In the last 25-30 years, many of our children have gone into various fields of study and prepared themselves to be leaders and hosts in their chosen fields. It is our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these human resources are further developed.

World's most remarkable event would not be remembered if there is no record or documentation. Five years ago, there was the record of a Mr. C, who ran for a seat in the State House on the Republican ticket. It is my sincere hope that in the near future, many 1.5th and second generation Koreans would join him in running for elected offices. In this respect, KACL-NE is a political organization that we all should invest our time and resources to develop and grow.

Nowadays, there are airplanes that take off and land with Korean flags on every international airport. There are Korean-made cars that navigate the webs of roads. Korean image is no longer that of a war-torn poor country. Korean image will be further improved when our 1.5th and 2nd generations take up the roles of hosts in this country. For this cause, I would like to ask all members to support and help our League directly and

indirectly. I pledge myself to do my utmost for the League in the coming years.

감사합니다

회지 7호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지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협회 회지에의 광고는 일년 이상가는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까지 부모 세대의 노력으로 이어져 내릴 인권 운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특히 7호 발간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과 각 종교 단체에 전 임원진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7호는 3,000부가 발간되어 뉴잉글랜드 지역의 거의 모든 가정에 무료로 배부되며, 백악관을 포함해서 각 주지사 및 주요 정부관서, 각종의 시민 단체, 소수 민족 단체, 주요 한인 인권 단체, 각종의 한인 주요 신문과 미국 신문 및 언론기관, 또한 본국의 주요 기관에도 전달됩니다.

회지 8호에의 광고는 98년 8월말이 마감이며, 문의는 회장 김양길 (978) 691-5108, 이사장 이문열 (617) 327-9714, 사무총장 김명기 (603) 659-4845로 연락해 주십시오.

시민협회 핫라인 전화 : (603) 659-6732

김문소 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회장,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 재미 한인 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보스톤 한인 교회의 장로이며 Tewksbury Animal Hospital의 원장입니다.

Dr. Moon So Kim, a former Chairperson,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and th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Korean Community Center, chairperson of the Korean 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and president of the Korean Veterinary Society of America. He is now an elder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and the Director of Tewksbury Animal Hospital.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는 1989년 12월, 한인회 송년회 파티때에 태동되어 1990년 4월 22일, 한인회 이사회에서 「한인회는 문화 행사를 맡되, 시민협회는 정치적 행사를 맡는」 한인회 산하 기관으로 조직토록 합의를 보아, 1990년 8월 18일, 성요한 연합 감리교회에서 한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그해 9월 15일 첫 이사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래 만 7년간을 협회를 위해 수고해오신 고문단, 회장단, 임원 및 이사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두 번의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뚜렷한 Vision과 강력한 Teamwork, 그리고 든든한 Fund가 조직체의 삼위일체라고 볼 때, 이제 시민협회는 적어도 두가지인 Vision과 Teamwork는 형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아직 Fund 면에서는 미약한 가운데 임기를 마치게 되어 무척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대 이사장으로 지난 9월 13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문열 장로님은 본 협회의 초창기부터 꾸준히 여러



방면에서 본 협회를 위해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고, 특히 95년도에는 부이사장으로 1년간 협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열 이사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김양길 회장님의 열성적인 헌신, 그리고 모든 임원,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협회의 성업을 계속할 것을 성원하오며, 이임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English Translation by Kyung Won Park

A formal organization promoting the rights of Korean-American citizens was first proposed at the year-end party of Korean 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KASONE) in December 1989. At the meeting of the Board of Trustees of KASONE on April 22, 1990, it was agreed upon that KASONE would be responsible for cultural event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whereas a separate organization of Korean-American citizens would serve as a political arm of KASONE. On August 18, 1990, a general organizational meeting of 150 Korean-American citizens was held at St. John's Methodist Church and the nam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was adopted.

On September 15 of the same year, I was elected as Chairperson of the Board of Truste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advisors, leaders, trustees, and other members of the League, who have made it possible for me to serve KACL-NE for two terms of 7 years as the Chairperson.

I believe that for any organization, the basic triad is comprised of a clear *vision* of its mission, a strong *teamwork* to carry on the mission, and generous resources to *fund* the mission. I further opine that KACL-NE has the vision and teamwork, but, I regret, is still somewhat lacking in funding.

Mr. Moon Yeal Lee, my successor, has a long record of serving our organization from its outset. In 1995, he even served as the Vice-Chairperson of the Board for a year.

I have no doubt that with the outstanding leadership and dedication of Mr. Lee and the President Mr. Yangkil Kim and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other leaders and members of the League, the mission of the League will be further realized. I send my best wishes to the new leadership team.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가장 큰 정치 뉴스는 아시아인의 정치 현금 파동이였다. John Huang 등 중국계 미국인들이 민주당에 거액의 정치 현금을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의 외국인으로부터 주선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현 미국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선거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사건으로 클린턴 대통령, 고어 부통령과 민주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인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합법적인 선거 자금을 기부했고 이에 상당한 정치적 배려가 고위직 임명에 반영되었어야 마땅하지만, 정치 현금 파동에 밀려 이에 거론조차 못한 형편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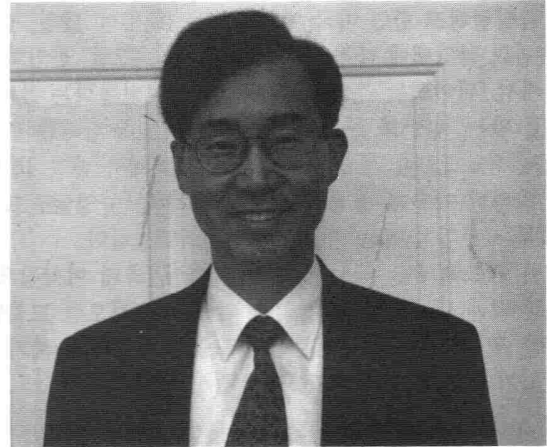
이보다 덜 알려졌지만 1996년도 선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아시아인과 히스패닉계인들의 70% 이상이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에 몰표를 주었으며 투표율도 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웰페어 개혁 등에서 공화당이 이민자들을 속죄양으로 삼고 불공평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기인한다. 이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본 정치인들은 1997년에 와서 웰페어 혜택을 일부 복원해 주었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또한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민자의 권리를 줄이려던 공화당의 노력이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 증가와 함께 정치 참여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인은 현재 가장 빨리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룹으로서 21세기 중반이 되면 미국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한다. 또한 아시아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인구 비례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러 민족간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으로 서로 힘을 합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는 아시아인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 예를 들면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sian American Resource Workshop 등이다. 한인들도 이런 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같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력 신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으며, 다음 선거에서는 한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이며 그 다음이 돈이다. 명분이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주고, 우리의 입장이 정치인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력은 우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례한다고 볼 때,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우리의 정치력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리라 본다.

One of the biggest political new items after the 1996 election was Donorgate, where a few Chinese-Americans, including John Huang, solicited large political contributions for the Democratic Party from foreign nationals of Indonesia, Taiwan, and China. Under U.S. law, it is illegal to accept contributions from foreigners who are not legal aliens. Not only are President Clinton, Vice President Gore,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rouble, but the image of Asian-Americans has been severely damaged as well.

Although Asian-Americans legally contributed substantial sums of money in the last election, Donorgate became such a hot issue that political appointments of Asian-Americans were not even mentioned after the election.

One important fact, although much less known, is that more than 70 percent of Asian and Hispanic-Americans voted for President Clinton and the Democratic candidates, at a much greater voter participation rate than that of the previous election. This was a direct result of the immigrant-bashing welfare reform legislation the Republican Party pushed through Congress. After the politician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election, they reinstated some of the benefits for legal immigrants, and their attitude toward immigrants changed for the better.

It is ironic that the efforts of the Republican Party to reduce benefits for immigrants sparked increased citizenship applica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will benefit minorities in the long run.

Asians are one of the fastest growing 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and by the middle of the 21st century, we will constitute more than 10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addition, our high educational and economic achievements will allow us to wield political power disproportionate to our numbers. However, it will not be easy to mobilize this potential because of the diverse cultures and customs of Asian-Americans. There are several Asian-American organizations in Massachusetts that are currently working toward increasing harmony among Asian-Americans: the Asian American Unity Dinner, the Asian Pacific Agenda Coalition, and the Asian American Resource Workshop, Korean-American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organizations and express their views.

Gains in political power do not come quickly. We learned valuable lessons in the last election; as a result, we can participate in the next election in a more knowledgeable

manner.

Vote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politicians, followed by money. Not only should we donate money to politicians legally, but we should also tell them what we stand for so that they can reflect our views in their policies. Ultimately, however, political power is proportional to our influence in society. Thus, if we work hard in our respective areas to improve our imag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every political process, growth in political influence will follow naturally.

시민협회의 부회장, 최 홍균박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M.I.T. Lincoln Laboratory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Dr. HongKyun Choi, Vice President,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the Ph.D.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now works at Lincoln Laborat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시민권 취득안내

개정된 이민법과 웰페어법으로 인해 비시민권자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 (1)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 (2) 시민권 인터뷰 당시,
 - ① 영주권 받은지 5년 초과
 - ②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동거하는 경우는 3년
 - ③ 3년 군대 복무했을 경우
 *서류 전형이 대개 6개월이 걸리므로 시민권 서류 신청은 이보다 6개월 전에 할 수 있다.
- (3) 거주 조건
 - ① 최소한 30개월 이상 미국에서 거주. 시민권자와 결혼

- 한 경우 18개월 이상
 - ② 신청 이민국 관할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③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시: 다시 돌아온 후부터 5년
 - ④ 불법 체류자로 사면 또는 다른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거주일이 계산
- (4) 18세 미만: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신청하거나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음.
- (5) 경범죄 전과자인 경우: 두번까지는 이민국 재량으로 시민권 취득 가능.

시민협회에서는 여러분의 시민권 취득을 격려하고자 여러번에 걸친 캠페인을 전개했었고, 또한 시민권 취득을 돕기 위해 시민권 시험을 주관했으며, 2차에 걸친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97년 3월에는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민권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무료로 원하시는 분들께 배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종합 안내서는 한편으로 시민권 신청에 따르는 전 과정과 방법, 그리고 필기 시험, 면접 및 구두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제집, 해답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는 무료로 배부하니 언제든지 시민협회 핫라인 전화 (603) 659-6732로 연락주시요. (실비 우송료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1997년은 선거가 없는 해여서 후보의 지지나 모금, 정강 정책 검토 등의 업무는 없었으나, 시민협회에게는 오히려 더욱 분주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결실의 한 해였다.

미국의 보수화 경향으로 웰페어 법과 이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수 민족들의 반대 및 권익 운동이 전국에서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전개됐고, 시민협회도 극력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 캠페인에 합류하였다. 그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웰페어법은 일시적이거나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었으며, 특히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시민협회가 지원했던 웰드 주지사에 의해 특별 보조 기금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한인들의 충격으로 인한 위기 위식과 이에 따른 시민권 취득 열기도 지속되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시민협회에서는 2차에 걸친 무료 워크샵을 개최했고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민권 종합 안내서"도 발간하였다.

또한 공식이던 주한 미대사 후임에 워싱턴주 전 하원의원이던 폴 신박사를 추천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한국을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려는 본국의 노력에 응해, 뉴잉글랜드 전역의 상원 및 하원의원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여, 이에 답해 케네디 상원의원이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음을 알려오는 친서가 오기도 했다.

총회 이후인 96년 하반기의 주요 활동 성과로는, 시민협회가 기금 모금으로 지원했던 워싱턴주의 부지사 후보 Paull Shin 박사는 아깝게 낙선했으나, 로드아일랜드의 주 하원의원으로 출마한 한인 2세인 Michael Farrell씨는 당선되었다. 특히 11월 선거에서 시민협회가 지지했던 Clinton 현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며 이에 친서의 감사 편지를 받은 바 있었다.

1997년도의 활동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제6차 총회

제6차 정기 총회가 1996년 10월 19일(토) 케임브리지 한인 교회(Cambridge 소재)에서 오후 7시부터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최홍균 현부회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었는데, 개회 선언에 이어 개회 기도, 회순 채택, 협회 경과 보고, 감사패 증정, 감사 보고, 재정 보고, 헌장 개정안, 임원 선출, 이사 인준 및 소개, 신입 회장단 인사, 임원 및 고문 소개,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기타 안전과 폐회 선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동안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협회의 산증인이자 출범의 산파역을 하신 김은한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순서가 있었다. 또한 협회의 폭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총장제 신설의 헌장 개정안이 이의없이



통과되었고, 차기 회장으로 김양길, 부회장으로 최홍균, 조봉준씨가 선출되었다.

이어서 속개된 제2부에서는 조봉준 부회장의 사회로 초청 연사인 폴 신 박사의 "21세기를 향한 해외 동포들의 비전"이라는 연제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의 요지는 제6호 회지에 게재되었는데, 150만 교포들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1.5세와 2세들의 정계 진출을 격려하고 고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총회가 마친 후의 다과회에서는 특별 찬조로 출연한 하버드대학교 사물놀이패와 MIT 풍물놀이패의 공연이 있었다.

2. 시민협회 회지 제6호 발간

김양길 회장과 김문소 이사장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편집위원 및 김명기 출판위원장이 1995년 10월에 3,000부의 회지를 발간하여 총회에서 배부하였으며, 이어 지역내 한인 가정과 교회, 단체는 물론, 총영사관을 비롯한 본국 단체 및 미국내 각종 인권 및 정치 단체, 백악관을 비롯한 정부 등 미국의 각종 기관과 상원 하원의원 등의 정치인들에게 배부되었다.

6호에서는 제5호에 이어 한글을 모르는 2세나 미국인을 위해 한글과 영어를 같이 사용하였으며, 뉴잉글랜드 지역 내의 한인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 교회, 그리고 많은 광고주들이 적극 광고를 게재하여 후원해 주었다. 3차에 걸친 편집 회의가 있었으며, 회지 발간에 따른 원고청탁서, 발간 공고, 광고청탁서 및 청구서 등이 누차에 걸쳐 발송되었고 또한 신문 지상에 보도되었다.

3. 이사회, 임원회

96년 10월 25일(금요일) 오후 8시에 북부 보스톤교회에서 제2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안건은 총회 평가 및 검토, 시민권 시험 및 교육 준비,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인준,

이사추천, 그리고 97년 사업 계획 등이었다.

97년에 들어와 1월 5일에는 이사회 결과 통보, 97년도 회의 및 행사 일정, 이사회비 납부 요청서가 전 이사에게 발송되었고, 3월 29일(토요일)에는 제24차 이사회가 북부 보스톤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의제로는 제7차 정기 총회 연사 및 장소 결정, 시민협회의 비전과 미션 스테이트먼트 작성, 시민권 취득 워크샵 결과 보고 및 평가, 뉴스레터 발간이었고 기타 안건으로 시민협회의 핫라인 설치와 고문단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97년 6월 14일(토)에는 제시카 리 이사님께서 제25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제무 보고, 이사 추대, 제7차 정기 총회 연사 및 장소, 시민권 취득 워크샵 결과 보고 및 평가, 전국 한인 미국인 지도자 대회 참가 결과 보고, 기금 확보 방안 등이 의제로써 논의되었다.

97년 8월 8일에는 김문소 이사님께서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어, 회지 제7호 발간 계획, 제7회 정기 총회 준비, 임원 변경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97년 8월과 9월에는 몇차례 걸쳐 원고청탁서, 이사회비 납부 요청서, 회지 7호 명함 광고 캠페인 등의 공문이 임원과 이사진들에게 발송되었다.

97년 9월 13일(토)에는 김연숙 이사님께서 편집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어 제26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제7차 정기 총회 준비, 회지 발간 추진 보고, 기금 확보 방안, 신임 이사장 추천 및 이사진 정비와 보강 등이 논의되었다.

10월 4일(토)에는 상임 임원회 및 편집 회의가 소집되어, 총회 준비, 회지 추진 보고, 이사진 정비, 특히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논의되었다.

4. 시민권 취득 교육 및 시험 주관, 워크샵 개최

96년 4월 13일에 1차로 시민권 취득 교육 및 시험을 주관하여 105명의 신청자 중 8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데 이어, 11월 5일 자원봉사자 모임을 갖고 2차 교육 및 시험을 주관하려 했으나, 겨울의 눈과 기후로 인해 97년으로 연기되었다.

97년 3월 29일, 북부 보스톤교회에서 N-400 작성 등 시민권 취득의 전과정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1차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참가 등록자는 78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1명이 신청 서류 작성을 완결하였고, 많은 분들이 자원 봉사해 주셨다. 이 7호 회지 39페이지에 게재된 신문 기사의 축소 사본에서 보이듯,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워크샵으로 평가되었으며, 당시의 자원봉사자들과 장소를 항상 선뜻 제공하시는 북부 보스톤 교회의 모든 분들께 제삼 감사를 드린다.

97년 6월 14일(토), 1차 워크샵에 참석치 못한 분들의 문의와 요구로 제2차 워크샵이 북부 보스톤교회에서 개최되었다. 20명이 참석했는데, 한석훈 변호사는 비서까지 대동하고 봉사해 주었으며, 김정대 목사님께서도 참여하여 봉

사해 주셨다. 저조한 참가율이었으나, 반면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 시민권 취득 종합 안내서 발간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와 시험 공부를 돕기 위한 문제 및 해답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 교회의 정성스런 지원과 AAUD의 Grant, 김양길 회장 및 김문소 이사장, 편집위원 및 김명기 출판위원장의 수고로 97년 3월에 1차로 1,000부를 발간하여 워크샵 및 교회 등을 통해 무료로 배부하였다. 이를 위한 편집 회의가 2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50여 페이지의 안내서에는, 시민권 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N-400 신청서와 함께, 영어 필기 시험, 한국어 필기 시험, 면접 (인터뷰) 시험 등에 관한 문제집과 해답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였다.

6. 보스톤 총영사 초청 간담회

전임 박신일 총영사에 이어 대한민국 주 보스톤 총영사로 이양 총영사께서 97년 3월 21일 부임하심으로, 이에 시민협회의 임원들과의 초청 간담회가 영빈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시간에 걸쳤던 이 간담회에서는 상호 상견례에 이어 시민협회의 활동 현황 소개와 함께 진지하게 교포 사회의 현안과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7.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

9월 13일의 이사회에서 김문소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임되신 이문열 신임 이사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앞으로 한인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며 보다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인 사회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97년 10월 7일(화), 영빈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지의 19페이지에 상세히 수록되었듯, 진지하게 한인 사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며 협조와 참여 방안을 논의하였다.

8. 홍보

본 회지 38페이지에서 일부가 보이듯, Washington-Boston Today, Korean Voice, 한국일보 등에 광고 게재 또는 기사 송고나 보도를 통해 시민협회의 활동을 홍보하였다.

또한 제6호가 발간된 후와 제7호 발간을 위한 격려사 요청을 기해, 각종 관공서, 단체, 정치인에게 회지를 발송하여 한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협회의 활동을 홍보하였고, 제4차 전국 한미 지도자 대회에서도 회지의 배부를 통해 한국의 한인 지도자들에게 시민협회를 홍보하였다.

9. 각종 캠페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캠페인은 수시로 임원들을 통해 주지, 계몽했으며, 시민권 취득 캠페인은 워크샵 등과 신문을 통해 누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특히 이민법의 개정과 웰페어법 개정에 관한 최신 기사를 수시로 신문사에 제공하였다.

1월초, 레이니 주한 미대사의 이임으로 공석이 된 주한 미대사의 후임으로 클린튼 행정부에 의해 후보에 오른 폴신 박사를 천거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외부 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등에게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편지를 일제히 보냈으나, 역부족으로 임명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한인으로서, 그것도 1세가 주한 미대사의 물망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97년 1월 하반기에는 클린튼 대통령에게, 선거 공약을 준수하며 웰페어법을 복원함으로써 이민자들의 권익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편지 및 전보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전체 임원과 이사진들이 함께 편지와 전보를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 결과, 혜택의 일부가 복원되었으며 이는 소수 민족의 인권 운동의 역사에서 또 한 획을 그은 성과로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민법에 항의하며 재수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상하원에 일제히 발송한바 있다.

9월초에는 보스턴 총영사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뉴잉글랜드 출신 전체 상하원의원들에게 촉구 편지를 보냈으며, 이에 케네디 상원의원이 개정법의 상원 통과를 알려왔는데, 본 회지의 34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같다.

10. 다른 단체, 정부와의 관계 및 활동

96년 12월의 개최되었던 한인회 및 경제인 협회, 세탁인 협회 총회 및 송년 행사 등에 다수의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MIRA의 회의 등에 김명기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정부의 고위직에 한인을 추천하여 임명시켰으며, 이에 좋은 한인을 추천해주어 고맙다는 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차기 메사추세츠 주지사로 유력한 후보가 한인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해 오고 있어, 점차 한인의 위상과 시민협회가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97년 5월 3일(토)의 AAUD 디너에 다수의 임원이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시민협회의 "시민권 취득 종합 안내서" 발간 프로젝트가 Grant 대상으로 선정되어 2,000달러를 수여받았다. 이는 AAUD의 부회장으로도 수고하시는 최홍균 부회장의 숨은 노력의 성과였고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Grant에 힘입어 한인 교포들을 위한 종합 안내서가 무료로 발간, 배포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 지역 한인 역사상 한인을 위한 프로젝트에 외부 지원이 따른 최초의 기록으로 고찰되며, 시작으로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

본 회지의 28페이지부터 4면에 걸쳐 게재된 바와 같

이, 제4차 전국 한미 지도자 대회에 김명기 사무총장, 김성균 위원장, 함성기 대변인이 참석하여 전국적인 한인 정치 조직의 태동에 참여했으며 김성균 위원장은 이어 시카고에서의 회의에도 다녀왔다.

또한 시민협회는 8월 27일부터, 시민권 신청을 위한 이민국의 지문 채취 단체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인가자: 최홍균, 최영훈, 김명기).

11. 이사 정비 및 보강

아래 표에서와 같이, 제26차 이사회회의 의결과 임원회의 결정에 의거해, 이사회 결정으로 총회 보고 사항 및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 선출을 요하는 임원 또는 이사의 의안을, 현장 제11조 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제7차 정기 총회에 회부하며, 총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 선출을 요하는 임원 또는 이사

- ① 사임, 전출, 퇴임 이사: 윤익중, 이정현, 이영호, 김섭(전임 간사), 김문소(고문 추대)
- ② 임기 만료후 재임 이사: 박필수, 김기석, 임병규, 김한수
- ③ 신임 이사: 김명성, 이지훈, 이의인, 김영하, 신상철, 이문열
- ④ 신임 이사 (선출후 지역 간사 임명): 한운영, 오수택, 한서동

이사회 결정으로 총회 보고 사항

- ① 이사회 선출 이사장: 이문열
- ② 사임, 퇴임 고문: 송병혁, 임원준
- ③ 신임 고문 추대: 김문소 (전임 이사장)
- ④ 이사회 선출 신임, 퇴임 위원장: 김성인(신임), 김기자(퇴임)

김명기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주) 해외사업본부, Multi-Core, Inc.의 Document Control Center Director를 거쳐 Quality Engineering Consultant, H&E Septic Design Co.와 Veggies'n More를 운영했으며, 현재 무역업체인 H&E Korea Co.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세썬한국학교 교장,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임원, 중앙일보 본사 모니터를 거쳤으며, 현재 한국광고연구원의 미주통신원, 제일기획 등 광고업체의 프리랜서로서 Subsurface Disposal Systems Designer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Conference with the Religious Leaders

참석자 : 보스톤 문수사 도범 스님

- 보스톤 산성 장로교회 주원열 목사님
- 보스톤 중앙 성결교회 김갑동 목사님
- 보스톤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님
-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이정추 바오로 신부님
- 순복음 보스톤교회 김민진 목사님
- 반석교회 김기철 목사님
- 회장 김양길 전임 이사장 김문소
- 신임 이사장 이문열 고문 박경민
- 부회장 최홍균 사무총장 김명기
- 이사 김연숙 김계숙 (Mrs. 김문소)
- 김진희 (Mrs. 김양길)

일시: 1997년 10월 7일 (화) 오후 7:00 - 9:00

장소: 보스톤 소재 영빈회관

시회: 회장 김양길

시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뭉친 힘으로 한인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겠는가를 강구함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님들로부터 기탄없이 좋은 말씀을 듣는 기회를 시민협회가 가졌으면 하는 것이 신임 이문열 이사장님의 포부였습니다. 취임하시기 전부터 이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신임 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취지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교민 사회가 보다 뭉친 힘으로 한인의 권익 신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님들의 도움없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모든 것을 종교 지도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고견을 들으며, 이에 따라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 간담회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뭉친 힘을 한인의 권익을 위해 쓸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동안 한인 사회는 얼마나 단합해 왔는가에 대해 먼저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30년 이상을 한인 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오신 박경민 고문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경민: (요약) 53년도에 최초로 작성된 교민 명부에는 50여명에 불과했으나 교회의 필요성이 느껴져 53년 첫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의 시초였으며, 당시는 교민수가 적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교민 사회였습니다. 한인회는 1965년에 결성되었으며, 72년도에 교민이 2천명으로 늘게 되자 현장이 제정되어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80년도에 교민수는 급격히 늘어 5천여명이 되었으며 90년도에는 1만명, 오늘날에는 2만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교회도 이제는 24-2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한인 교회가 늘어나면서 초기에는 특히 각각의 교회가 자체를 확충하며 교인 수를 늘리는 발전에 노력하다보니, 한인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여 큰 신경을 쓰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인 사회의 발전이 중요하며, 민족공동체로서 국가와 민족과 한인사회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 없는 한인 사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인 사회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인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이 시점에서 한인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날 보스톤 지역에서 한인 사회 또는 한인회에 단합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각성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교민이며, 교민은 곧 교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들께서 지도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인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시회: 그러면 반세기의 역사를 돌이켜 우리가 어떻게 뭉친 힘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더 생각해 보기 위해, 오래 계셨던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단합해 왔는가, 한인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어떠해 왔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갑동 목사님: 한인 교회에 목회를 하고 또한 한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인 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개신교나 구교, 불교 모두 한인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며, 잘 할 수 있도록 하기에 그동안 큰 역할을 못하는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지역 기독교인들이 한인 사회에 왜 잘 참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분석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차라리 여기 시민협회의 김문소 장로같은 분이 해주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좌중 웃음)

시회: 교민 사회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 교민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로 뭉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융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반성해 보면서 점차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0년에 결성된 시민협회의 결성 동기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창립부터 일을 해오신 김문소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문소: 여기 시민협회의 지난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민협회 회지 1호부터 6호까지에 실린 시민협회의 지난 활동 보고서를 나누어 드립니다. 시민협회는 처음부터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이전에만해도 교회가 한인 단체였고 한인 단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늘어나면서 분산이 되었고, 이러한 한인 사회의 분산에 대해 시민협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창립 준비 때는 각 교회와 사찰에서 이사를 추천받아 그 원칙하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창립했습니다. 한인회와의 관계는 1990년 한인회 이사회에서, 한인회는 문화 행사와 친목 행사를 하고 시민협회는 산하 기관으로써

정치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기에는 유권자 등록과 시민권 취득 캠페인을 벌였고, 93년에는 김창준의원의 재선 모금 14,000달러, 94년엔 웰드 주지사를 위해 11,000달러를 모금했으며, 95년부터는 시민권 취득이 당면 문제가 되어 2년간 시민권 시험과 교육, 워크샵을 개최해서 많은 분을 도와 드렸습니다. 회지를 매년 발간하여 각 교회, 단체, 업소, 공공 기관, 정부에 배부해 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시민협회는 교회가 중심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지난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인 사회의 활동은 친목, 친교에 중점이 두어졌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오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각이 들었고, 더우기 1992년에 LA 폭동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폴신 박사의 말처럼 우리 한인에게 정치인 한두 사람만 두 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LA 폭동 사건이 있기 2년 전인 1990년에, 정치 신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선견 의식을 가진 분들에 의해 시민협회는 창립되었습니다.

LA 폭동 다음 해에도 플러싱에서 폭동 사건이 있었고 보스톤에서도 일부 발생했으며,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은 정치의 힘입니다. 정치적으로 단합하여 모친 힘을 과시해야 하며,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참여하며 정치에 개입해야 합니다.

백인의 유권자 등록은 70여%, 흑인은 약 80%, 히스패닉은 50%이나 불행하게도 한인들은 20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으로는 권익 신장은 힘들며, 힘을 모으지 않고는 피해를 보는 소수 민족에서 도저히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의 시각에서 본 한인 사회, 바람직한 한인 사회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좌중 가벼운 웃음)

김갑동 목사님: 종교인이 한인 사회를 보는 눈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시민협회의 하는 일을 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인과는 또달리 축복과 같은 댓가없이 교민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협회 일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며, 시민협회가 모일 때마다 방문이라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보답도 없이 쉬임없이 일하시는 수고를 교회 전체가 많이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좌중 웃음 소리와 아멘 소리)

김기철 목사님: 시민협회처럼 한인들의 일에 긍정적인 정치적 구심점이 있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일은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예컨대 웰드 주지사에게 기금 모금을 할 때 그 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후보 양쪽에 다 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협회에는 처음 참석해 보기 때문에 아직 잘 알지 못합

니다만, 한인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면 한인회와 시민협회가 갈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상호 협조하면서 보다 긴밀하게 할 수는 없었는지가 의문이 됩니다.

김문소: 저는 오랫동안 한인회관 일을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특히 92년의 LA 사태가 시작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치력 신장을 위해 투표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분야는 전문화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 인정이 되었고 분리가 된 것입니다.

사회: 이전이나 분쟁으로 분리된 것은 결코 아니며, 한인회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방문자도 있어서 정치 문제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별도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적 달성의 방법과 기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인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김민진 목사님: 남미의 에콰도르에는 중국인 장관도 있고 중국 물품 수입을 서로 적극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한인도 집 짓는 것을 서로 돕고는 했는데, 역시 못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민들이 다방면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살리면서 시민협회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더욱 활발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협회의 활동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 협동 요청 사항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균: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런 일은 임원 몇몇이 하기가 힘든 일인데 자원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둘째, 운영 자금도 부족한데, 작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회지 광고로 1만불의 수입이 있었고, 회비, 찬조금 등은 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참여의 문제로, 시민권 취득 워크샵 등을 앞서는 잘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호응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회비는 일년에 1백명 정도로 1천불선입니다. 회원이 백명으로는 일을 하기가 힘들고, 또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인 사회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천명은 되어야 합니다. 시민협회를 시민권자협회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나, 시민권자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자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서 총회에 1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일을 성취시키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 참석 운동을 벌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기: 중산층 가정이 5만달러의 수입이라고 할 때, 어떤 통계에서는 평균 40%의 세금, 즉 연간 2만달러를 낸다고 합니다. 소득세, 재산세 등의 직접세 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원천 과세와 부가세 등을 통털었을 때의 통계입니다. 뉴잉글랜드 내의 우리 한인 인구가 1만5천명

이므로, 계산상 6천만불을 매년 우리가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있고 우리에게서 정당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없는 권리의 주장이 아니며, 이 권리의 주장을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 시민협회가 하는 일입니다. 정치인에게 하는 그 요구의 목소리는 투표권의 수가 많고, 또 합쳐졌을 때 귀를 기울이며 들어 줍니다. 많은 참여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그동안 시민협회는 상하원에게 웰페어 복원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많이 해왔고, 그 결과 웰페어가 일시적이거나 복원되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나라별로 입국 비자를 면제해 주는데, 혜택을 받는 28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캠페인도 했습니다. 서울의 대사관에는 새벽부터 비자를 받기 위한 장사진이 쳐진다고 합니다. 시민협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정부의 고위 임명직에 한인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인을 추천했었고 고맙다는 편지가 왔었습니다. 또한 차기 주지사 후보로 유력한 사람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여명밖에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회원이 천명이 된다면, 우리보고 아부하며 도와달라고 할 정치인이 줄을 설 것입니다.

아까 정치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었는데, 한 사람을 지지했다고 해서 그 반대편 사람이 우리를 도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반드시 한인을 끌어 들여야겠다고 오히려 끝없이 접촉을 해오게 됩니다.

그럼,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종교지도자들에게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또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과 참여 방안에 대해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범스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불교인들도 국가관과 역사관, 민족관을 강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가벼운 좌중의 웃음)

이정주 신부님: 이런 일에 대해 회장님이 잘하고 계시며, 하자고 하시면 저는 따라만 갑니다. (좌중 가벼운 웃음) 종교 지도자로서 앞에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분들이 훨씬 잘하십니다. 시민협회에서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필요로 하는 것이나 몇 사람을 보내시는 등, 뒤에서 돕기는 쉽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앞에서 하고 종교인들은 뒤에서 충분히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목사님: 문제제기라면 한인회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에 대한 불신같은 것이 있었다는 점과, 성직자로는 사회와 정치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마치 외도나 딴 일을 한다는 시선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협회가 하시는 일은 한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인 만큼 그런 영역으로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그러면, 이 모임을 주선하신 이문열 신임 이사장께서 그동안 생각해 오셨던 것이나 종교지도자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문열: 오늘은 역사의 획을 긋는 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되시는 분들께 저희와 같이 몸으로 하고 말씀드릴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며, 이렇게 일년에 한번 정도 저희들에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새 이사장을 받아들여 동참하기로 한 이유는, 과거에 웰드주지사 모금시 김은한 회장이 2천통화를 했으나 참여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교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또 여기 계신 시민협회의 임원분들은 지난 8년 동안 60번 이상의 회의가 있었고 그 뒤에는 꼭 내조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없는 일에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노력하시며 출선수범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이나라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50명 정도 모여서 정치인에게 오라고하면 바빠서 못온다고 합니다. 시민협회를 도우시는 것이 우리 민족이 이곳이 정착하여 살게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 원효대사나 많은 목사님들처럼 종교 계통에서 선구자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데, 좀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격려하여 주인이 되게 시의원도 출마하게 하고, 어디서든 조그맣게라도 각자가 불씨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희 총회가 10월 25일에 있습니다. 결례가 될 지 모르나 머리 숙여 저희 총회에 3,4백명은 모이도록 인원 동원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회가 앞으로 앞장서서 오늘을 뉴잉글랜드 종교지도자의 날로 하여, 각 단체로 확대시키고, 나아가 미 전역에 종교지도자의 날로 세워나가, 오늘이 종교지도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온 세계의 종교지도자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 함께 뭉쳐서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한 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민족을 위하고 조국을 위한 길입니다. 개개인의 영리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인 모두인 우리와 우리 지손들을 위해서, 또한 2세들이 보다 쉽게 정계와 학계의 글래스 실링을 넘어서 더욱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바탕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고 뭉쳐야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부디 시민협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며, 특히 젊은 2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교포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 한인 교회와 한인 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운 박경민

Issue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Kyung Min Park, M.D., Advisor

-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churches and Korean organizations

1903년 한인 초기 이민으로부터 시작해서 2천년대를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미주로의 한인 이민의 수는 백만 내지 백오십만에 달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어느 곳에서나 대도시, 중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인 교포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지역의 한인 교포들의 지역적 요구에 부합되는 여러 교포 사회 단체가 생기게 되었다.

그중에도 한인회는 그 지역의 한인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고 회장은 교포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바, 상징적이기는 하나 한인회는 그 지역 한인 사회의 정부기구이며, 회장은 교포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의미에서 미국 행정부나 한국 정부에서도 교포 사회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포끼리의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한 각종의 사회 단체들이 직능 단체로서 단체의 성격 등 기타의 여건에 의해 한인회 산하에 있거나 독립된 단체로서 존재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미 한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집단이 있다면 한인교회(한인 개신 교회)일 것이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주 한인들의 65%가 개신교, 10%가 구교(카톨릭)에 속하고 있으며, 1997년 현재 미국 내 한인 교회는 2,500부터 3,000 사이를 헤아리는 숫자로서, 그 수에 있어서 한인 교포 500명에 한 교회 꼴로 팔목할 정도의 비약적 발전을 하였다.

현재 미국 51개주에 한인 교회가 없는 주가 없다. 특히 한인 교회가 많은 주를 본다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텍사스,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저지,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뉴잉글랜드의 순서가 될 것이다. 특히 보스턴 지역은 1950년도 유학생 중심의 보스턴 한인 교회로 시작해서 현재 교회 수가 20여개로 성장했으며, 이는 교포 인구가 2만이 넘는 대규모 교포 사회로 성장한데서 오는 필연적이고 자연적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 기존하고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와는 그 양상이나 성격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한인 교포 사회가 있는 곳에 한인 교회가 세워지고 번창하는 것은, 조국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남의 땅에 이주하여 사는 삭막한 이민 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 고독감, 좌절감, 긴장감, 괴로움, 설움을 당하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신적 안정을 주는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인 교회가 한인 이민자들에게 공헌하는 것은 교인들의 영적 및 신앙적 지도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운영 등으로 교인 자녀, 청년 지도 및 한글 교육에 힘쓰고, 이민자들이 타국에서 겪어야만 하는 사회적,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덜어주는 프로그램들을 후원하며 이민자들



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교회를 위해 봉사케 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으로서 보상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교인들의 개인적 가정문제, 취직 알선, 의료 상담, 법률적 문제 해결, 주택, 차량 구입, 영어 통역, 자녀 학교 입학, 노인 봉사 등 이민 정착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목회자가 도와 줌으로써, 교회는 다양한 세속적이고 비종교적인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바, 한인 교포 사회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 발전하며 교회 자체마다 교인 수의 확장 및 재정 확보, 교회 건물의 구입, 건립에 전념하고 있을 때, 한인 교포 사회의 또다른 구심점인 한인회 및 기타 직능단체들은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우리가 사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사회에 있어서의 중심인 한인회의 자체 재정이 이 교장 큰 교회의 재정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인회관을 아직도 마련치 못하고 있고, 행사 때의 교포 참여가 한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 수에도 못미치는 현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인회 회장의 노력과 수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한인회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회비나 찬조금을 내지 않는 교포들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한인회가 어떻게 그 권위를 지키며 직무를 수행하여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인회의 위상이 오늘날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원인을 한인회 집행부는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원인을 분석하고 자기 반성하여, 한인회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심기일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문제는 현 한인회 집행부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만

성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집행부의 임기가 바뀔 때마다 범 교포사회의 힘을 집결하지 못하고 일부만의 행사가 되고가는 사태들로 인한 교포 사회의 인심 이탈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혹 내분이나 사건들로 인해 교포들을 걱정시키고 실망시킨 일은 없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일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지도력을 교포들이 의심하는 일은 없었는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이건, 한인회의 위치와 위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한인회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이 고장 한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 작업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맺어질 것으로 믿는다.

한인회는 누가 뭐라고 하든 한인 교포 사회를 대표하는 중심이며 여러 직능 단체 및 한인 교회들의 구성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인회 집행부가 바뀌어도 한인회는 재미 한인 사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며 교포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 구성점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심하게 방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올바른 한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한인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케네디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인회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도 한인회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이 시점에서 물론 교포 개개인 및 직능단체들의 협조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동참과 역할이 아쉽고 필수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역대 어느 한인회장이 「우리 한인 사회의 단합과 협조심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기독교, 천주교, 불교)들의 협조없이 한인 사회의 발전과 성장이 요원하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하였습니다」라는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한인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교회가 맡아야 할 역할은 교인들의 영적 요구에 응답하는 종교적,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인회 및 기타 시민협회같은 단체들의 목적에 부응하고 그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조함으로써, 교포 사회의 실질적인 후견인으로서 한인 사회의 현안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회 참여 문제는 신학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위해 옳은 편에 서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옳은 일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경우가 똑같은 것으로서 신념이 굳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재미 한인 이민 역사 백년을 뒤돌아볼 때, 일제시대의 재미 교포들은 조국 광복이라는 명제하에 뭉쳤고, 하와이,

멕시코 등의 초기 이민들은 준노예 상태에서 사탕밭 중노동으로 낮설고 물설은 땅에서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과 인종적 차별을 받으며 매일 열시간 이상 사탕밭에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뽕뽕이 모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 교포 사회 발전과 조국 광복 해의 운동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헌신하고 참여한 공로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나라있는 민족으로서 이민해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땅에 이민와서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도, 이 나라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을 합해 자랑스러운 이민 역사를 후손에게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이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한인 사회를 떠나서 한인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음을, 한인 교회가 없는 한인 사회를 생각할 수 없는 논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회와 한인회, 시민협회 등의 사회 단체는 모두, 한인 교포 사회 한 울타리안에서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절대적인 상호협조를 해야하며 공생공존의 긴밀한 관계를 이뤄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인 사회 전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 이를 위해 교회는 우리 교포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맡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시민협회의 고문인 박경민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을 거쳐, 미국 마취과 전문의로서 Framing Union Hospital의 마취과장과 보스턴 의과대학의 임상외과교수를 역임후 현재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건립 위원장, 뉴잉글랜드 한인 의사회장, 평통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고, 현재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입니다.

Dr. Kyung Min Park, Advisor, graduated the medical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the same school. He is currently working at the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 He has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chair of the committee for the New England Korean Community Center,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He received an award from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He is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Chapt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The year was 1994.

Korean American elected officials fro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had been invited to Los Angeles to participate in an historical event: the first Korean American Political Conference.

Se i gu was the reason we had come together.

During the intensive one day conference we debated what had happened in Los Angeles and what it meant for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e all agreed that the Los Angeles riots served as a "wake up call" that clearly demonstrated the lack of power of the Korean Community. The event was bilingual in that simultaneous translation was being offered so some of the speakers, like State Senator John Lim and State Representative Paull Shin spoke in both Korean and English.

At one point in the conference there were nine of us seated at a long table on the stage facing television cameras and an audience of 250 people. The person sitting next to me turned and said, "How can you be Korean when you don't speak Korean?" I was momentarily stunned. Then I answered, "My grandfather must be turning over in his grave!"

The gentleman who had made the challenging remark proudly called himself "First Generation" while I was the only "Third Generation" Korean at that conference. That brief exchange of generational ethnicity is an example of the complexity of organizing a national organization of Korean Americans to effectively advocate on the behalf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you in the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are of the 1st generation, which means your native language is Korean. And while the struggle for full participation in the democratic process seems a long ways off, in many ways we truly have come a long way.

But while you are 1st generation you are not the first First Generation as many of you probably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and 80s. Your success is to be applauded as now your children are reaping the rewards of your struggle and sacrifice. Many of them are of the "1.5" generation, having arrived here as children, attending American schools and yet maintaining a bilingual and bicultural way of life that I wish was my way of life. But my circumstances were different.

WORLD WAR II

I was seven years old when the Japanese attacked Hawaii on December 7, 1941. On that fateful Sunday morning I stood outside our hilltop home with my grandparents and watched as Japanese planes bombed Pearl Harbor. During the first few



weeks of the war many innocent Japanese immigrants along with their Japanese American children were unjustly arrested in Hawaii an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Most of them were American citizens yet they had to give up their homes and businesses, spending the war years herded together in remote areas of the country.

The Japanese community was powerless to stop this terrible injustice. Naturally, other ethnic minorities feared a similar fate. And even though I was only 7 years old, I could feel the fear and harbored a secret thought: I was glad I was Korean and not Japanese.

Assimilation was seen as the key to survival. It wasn't enough, though to pay taxes and be a good citizen. Asians needed to sound like Americans since we obviously didn't look like the prototype white American. During World War II Korean Language schools, usually part of churches, closed down. I was raised by my grandparents. They spoke to me in Korean and required that we answer in English. Learning Korean was not promoted. This was not just in my family. Chief Justice Ronald Moon, the highest ranking Korean judge in the United States is third generation and his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is similar to mine, practically nil. But this happened to Chinese, Japanese, Hawaiians, anyone who spoke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Yet, I was immersed in the Korean culture in my home.

My grandfather, Cho Pyung Yo was from Pyongyang and a family of middle class farmers. My grandmother, Chang Kum Soon, was from Seoul, educated in the arts as her father was a scribe to the king. They met in Seoul where my grandfather was stationed as a soldier after attending the university. They married, left Korea on the S.S. Coptic and arrived in Hawaii on August 22, 1904. It was the period when Japan had already begun to colonize Korea.

Fleeing from Korea under those conditions made them both determined to fight for Korea's Independence and to one day return home. Unlike many of the 7, 843 Koreans arriving in Hawaii between 1903-1905, my grandparents were not laborers so they stayed on the plantation for only a few months and quickly used their entrepreneurial skills to start several businesses and to send my grandfather to school to learn English.

He graduated from Iolani School, and Episcopal boys school, in 1918 and soon became an interpreter for the Immigration Office. But throughout these difficult times of struggle and sacrifice they worked for Korean Independence. My grandfather was deeply involved in the politics of the Korean Community and eventually rose to become Presid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Kook Min Hoi from the years 1935-1947, the entire years of my childhood.

I grew up listening to men and women passionately debate the best strategy to politicize the community and support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I overheard the anxieties, anger, frustration of power struggles between Ahn Chang Ho and Syngman Rhee and then later between my grandfather and Syngman Rhee. We seldom visited those churches where the opposition party member, Dong Ji Hoi, were established, attending church socials with other Episcopalians, Methodists and Lutherans. The Independence of Korea was a priority in my family and a constant topic of conversation.

When World War II ended and Korea was divided, my grandfather was so deeply saddened he turned to the Bible, reading it through eight times before his death. When Syngman Rhee was exiled to Hawaii in 1960 my grandfather immediately made plans to return to Korea but suffered a stroke and died in early 1961.

In 1990 I was elected to the Hawaii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first Korean to serve as legislator since 1961, and the first Korean woman ever. After becoming an elected official I began to reestablish my ties in the Korean Community in Hawaii and I was proud to be able to sponsor a bill providing \$50,000 to plan the 9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nts to Hawaii.

But for me, the turning point was September. That date was also the closing of the 1992 legislative session. A few days later there was an editorial in the newspapers written by a Los Angeles Times reporter, a Chinese woman. The headline, "I'm Scared to Be Asian" and in the first paragraph her sentiments continued, "I don't want to be mistaken for Korean." I phoned her immediately and said I was coming to Los Angeles to see for myself what had happened.

I arrived there on Mother's Day, May 9. My oldest daughter Paula is an attorney in Santa Monica and President of the Korean Youth and Community Center. She took me through Koreatown. I saw signs that read, "Vietnamese owned" or "Spanish Owners." It was obviously frightening to be mistaken for Korean. I saw grandmothers that looked like my Halmanee. I saw children that looked like my cousins. I saw stores that were like the liquor store my parents owned. I saw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s speak out against the injustice of Koreans being blamed for the riots.

In 1992, an historic number of Korean Americans were elected to office. I was re-elected and became Vice Speaker of the House, the first woman to hold that leadership position. In January 1994 we gathered in Los Angeles and pledged to empow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U.S. From the ashes of Koreatown in Los Angeles three conferences have been held since: in Seattle, Hawaii and Washington, D.C. I believe we are finally on the verge of making the dream of a national coalition of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a reality, where the good works of organizations like yours can be strengthened through a voice in Washington, D.C.

So yes, I am a third generation Korean American who has little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but the words of my grandparents and their friends echo through my memories with poignant and reveting passion. Those of you who now identify yourself as 1st generation are part of perhaps the Fifth Wave of Korean immigrants to settle in the United States. While your struggles, in many ways seem similar to those of all immigrants, the difference is you can openly and freely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process.

My grandparents were denied citizenship. They were severely discriminated against and always viewed as "aliens." But it was their perseverance and fortitude that is part of the foundation for the America we know today. Freedom and Independence were never mere words. They were dreams worth fighting and sacrificing for.

So how Korean am I? You tell me. I carry on my grandfather's wish for unity in the Korean community and his dream of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would proudly and effectively advocate for the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His dream is my dream, his passion is in my blood.

On August 15, 1997, I received an award on behalf of my grandfather from the President of Korea. The medal recognizes my grandfather as a Patriot of his country for his unselfish and unwavering dedication for Korea's Independence.

1994년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정부 고위직에 선출된 한국인들이 "제1차 한국인 정치 협의회"라는 역사적인 모임에 초대되어 LA에 모였습니다. 4.29사건 때문에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룻동안 우리들은 LA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열띤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LA 폭동이 한인 사회가 정치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종이었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영어와 한국말로 진행되었는데, 동시 통역을 하기도 했고 주상원의원인 John Lim과 주하원의원인 Paul Shin같은 분은 영어와 한국말을 번갈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긴 탁자에 9명이 앉아 TV 카메라와 250명의 청중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앉았던 분이 나에게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순간 당황했습니다만 곧 "제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트림없이 돌아누우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도전적인 말을 하셨던 분은 자신이 1세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3세는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의에 관해 나누었던 이 짧은 대화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전국적 조직을 결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잘 말해 줍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1세이며, 따라서 한국말이 모국어입니다. 우리들이 민주주의 절차에 완전히 참여하려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는 벌써 많은 길을 걸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1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미국에 1970년, 80년대에 도착하였으므로 첫 1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에 박수 갈채를 보내며, 여러분의 고생과 희생의 수확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어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1.5세로서 어릴 때 미국에 와서 미국 학교를 다니지만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자란 환경은 달랐습니다.

2차 대전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한 1941년 12월 7일 나는 7살이 있습니다. 그운명의 일요일 아침 나는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집 밖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일본 비행기가 진주만을 폭격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몇주 사이에 죄 없는 많은 일본 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하와이와 미 본토 전역에서 부당하게 검거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었지만 집과 사업체를 포기해야만 했고 전장 동안 변방 지역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인 사회는 이런 엄청난 불의를 막을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다른 소수 민족들도 당연히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일곱살밖에 되지 않았으나 두려움을 느꼈고 속으로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어서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동화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선량한 시민으로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전형적 미국 사람인 백인이 아니므로 더욱 미국 사람처럼 제대로 영어를 해야 했습니다. 2차 대전 중 한글 학교 (대부분 교회의 일부)는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조부모에 의해 길러졌는데, 조부모님은 나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셨지만 대답은 영어로 하게 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장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집안 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Ronald Moon 하와이 대법원장도 3세인데 그의 한국말 실력은 나와 비슷하게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 하와이인 등 영어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서는 한국 문화에 깊숙히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조병요씨는 평양의 중산층 농부 가정 출신이고, 할머니 장금순씨는 서울 출신인데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왕의 서기로 일하셨으므로 미술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신 후 군인으로 서울에 계실 때 서로 만나 결혼하셨고, S.S.Coptic호 배를 타고 한국을 떠나 1904년 8월 22일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벌써 한국의 식민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조부모님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며,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1903년과 1905년 사이에 하와이에 왔던 7,843명 한국인의 대다수와는 달리 조부모님은 노동자로 지내지 않았으며, 사탕수수 밭에서는 몇개월 만을 지낸 후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몇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영어를 배우러 학교에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Iolani 학교를 거쳐 성공회 학교를 1918년에 마쳤고 이민국의 통역관으로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스럽고 희생했던 시기에 그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사회의 일에 깊이 관련하셨고, 나의 모든 어린 시절이었던 1937년에서 1945년까지는 국민회 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나는 어른들이 지역 사회를 정치적으로 묶어 상해 임시정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이나에 대해 정열적으로 토의하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나는 안창호씨

와 이승만 박사, 그리고 나중에는 이승만 박사와 할아버지 사이의 권력 투쟁에 대한 불안, 분노와 좌절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대파인 동지회가 모이는 교회에는 거의 가지 않았으나, 성공회, 감리교와 루터교 교회의 사교 모임에는 갔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우리 집안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항상 대화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분단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몹시 슬퍼하셨으며, 성경으로 마음을 돌리셨고 돌아갈 때까지 8번을 읽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왔을 때 할아버지는 귀국을 계획하셨으나 심장마비로 1961년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1990년 나는 하와이 의회에 1961년 이래 처음으로, 또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후 나는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였으며, 하와이 한인 이민 90주년 행사를 위해 50,000달러를 후원하는 법안을 기안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4.29 사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날은 또한 1992년 의회 회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L.A. Times지의 중국인 기자가 쓴 사실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인이기가 두렵다"였는데, 첫 문단에 "한국 사람으로 오인되기가 싫다"라고 써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자에게 당장 전화를 걸고 사태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 LA에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날인 5월 9일 LA에 도착했습니다. 큰딸 Paula는 Santa Monica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Korean Youth Community Center"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딸은 나를 Koreatown에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베트남 사람 소유" 또는 "스페인 사람 소유"라고 쓴 표지판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으로 오인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할머니와 같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조카들과 같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이 소유했던 것과 같은 주류점도 보았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비난하는 불의에 대해 항의하는 1.5세 한국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1992년에는 역사상 제일 많은 한국인들이 공직에 당선되었습니다. 나는 재선이 되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와이 의회의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1994년 우리는 한국 사회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 LA에 모였습니다. LA Koreatown의 잿더미를 딛고 그후 시애틀, 하와이, 워싱턴에서 세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한인 단체 전국 연합을 결성할 꿈을 실현할 단계에 와 있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 뉴잉글랜드 시민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워싱턴의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 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3세이지만, 조부모님과 그 친구들의 말뚝이 나의 기억에 예리하고 강하게 울리고 있

니다. 지금 1세라고 지칭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미국에 온 한국 이민의 5번째 물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쟁은 여러 면에서 모든 이민들이 겪는 것과 비슷하겠지만, 다른 점은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절차에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부모님은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항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내와 강인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미국 생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독립은 결코 단순한 말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우고 희생할 가치가 있는 꿈입니다.

내가 얼마나 한국 사람이나고요? 나는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한국 사회의 단합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의 이익을 자랑스럽고 효율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전국 조직의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은 나의 꿈이며, 그의 정열은 나의 핏속에 살아 있습니다.

1997년 8월, 나는 한국 정부가 할아버지에게 준 상을 대신 받았습니다. 메달에는 할아버지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변함없는 헌신을 한 애국자라고 써여 있습니다.

재키 은혜 영 박사는,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한인 미국인 3세입니다. 1990년에 하와이 주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한인 미국인으로서의 물론, 여성으로서도 첫번째로 하원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와이주의 어퍼머티브 액션 사무소 디렉터를 지냈으며, 하와이 패시픽 대학교에서 1982년 이래 교수로 봉직하면서 하와이 및 미국 문교성에서 12년 이상을 봉직했습니다. 하와이 한인 상공회의소의 이사이며 각종 사회 봉사 및 정치 단체에서 고위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Jacqueline Eurn Hai Young, Ph.D. is a third-generation Korean American born and raised in Hawaii. Elec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1990, Dr. Young was the first woman and first Korean American Vice Speaker of the House. She wa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Affirmative Action, State of Hawaii. A professor at Hawaii Pacific University since 1982, Dr. Young spent over 12 years with the Hawaii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She is a Director of the Hawaii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several other organizations, and was Chair of the Asian-Pacific Islander National Caucus of Legislators and First Vice President of the National Women Political Caucus.

1차 (L.A.), 2차 (Seattle), 3차 (Honolulu) 미 전국 한인 대회에 이어, 4차 대회 "National Conference on Korean-American Leadership (NCKAL)"이 1997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다.

1992년 4.29 L.A. 사건이 촉매가 되어 개최된 1, 2, 3차 대회는 미 전국 한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각성 및 미국 내 한인의 실태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대회에 힘입어 필자가 참석한 "4차 대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전국 한미 (Korean-American) 연합 조직체」의 태동을 논의하였다.

Washington D.C.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아시아 민족 전국 조직체는 중국인의 OCA (Organization of Chinese Americans)와 일본인의 JAACL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이다. 이 두 조직은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 조직에 대해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대변인으로서, 또한 그들의 권리가 유리하게 스며드는 정부 정책을 수립을 위해서 팔목할만한 정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반하여, 우리 한인들은 아직도 Washington D.C.에서 우리 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봉사하는 전국적인 정치 단체가 아직 없다. L.A.의 한인들은 그곳에 기반을 둔 KAC (Korean American Coalition)에서 와싱턴 대표로 Mark Keam씨를 파견해 놓고 있긴 하지만, 부분적인 대변일 뿐 전국적인 차원의 조직적 활동은 아닌 것이다. 과연 미국내의 전체 한인의 이익을 위해 Washington D.C.에서 어떤 조직이 일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미 전국의 한인들을 총괄하며 대변하는 Washington D.C.에서의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전국 한인 권익 주창 기구의 창설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미 전국 각 지역에서 NCKAL에 참가한 인사들 모두 필자와 거의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조직체 창설을 위한 위원회 결성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서 약 두달 후인 7월에 Chicago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Chicago 회동에서는 미 전국 연합체 창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담당할 인재들이 많이 모였다. 전 KAC 창립 회장이며 현재 연방 상무성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동수 씨가 주축이 되어, Washington 대회에서 만났던 Jackie Young (전 하와이 하원 부의장 역임), Mark Keam, David S. Kim (와싱턴에서 로비스트 활동), Martha

Choe (시애틀 시의원) 등과 함께 활기차고 결정적인 토론을 주고받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4차 대회의 실질적인 종결을 이루었다.

앞으로 창설될 미 전국 연합체의 성격은 비영리, 초당적인 조직체로서 Washington D.C.에 사무실을 개설하며, 조직 구성인은 원칙적으로 "회원 기반 모델"로 한다. (Washington 대회에서는 미 전국 각 지역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콘설시업 기반 모델"을 토의한 바 있었다. 이 모델은 짧은 기간안에 전국에 있는 기존 한인 조직을 모아서 연합체를 창설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모으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직체를 어떻게 평가하여 의사 결정에 수렴시키느냐하는 점과 운영상에서의 실질 참여를 할 조직 선정에 커다란 난제가 있다.)

이러한 "회원 기반 모델"은 앞에서 언급한 OAC나 JAACL 두 조직이 이미 채택한 방법이며,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똑같은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며, 보다 많은 실질 참여를 진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필자 또한 찬성하였다.

두번째의 의결 사항은 15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결성하여 창립시까지 모든 감독과 추진을 한다는 것이었다. 집행위원장에는 Martha Choe 위원에는 Howard Harm, Mark Keam, 정동수 (모두 KAC 이사임)씨가 선출되었다.

셋째로는 잠정적으로 전국의 이사진을 선정하는 "11인 선정 위원회"를 결성하는 일이었고, 위원장으로 Jackie Young이 선출되었다. 위원에는 현 KAC회장인 Charles Kim이 봉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Washington 대회에서 결성되었던 기존의 "조직단"과 "일년 계획단"을 일관하여 이 두 Task Force 그룹이 앞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전국 조직 주소록을 만들기로 하고 Chicago 회동을 마무리지었다.

이번 Washington 대회와 이어진 Chicago 회동에서 필자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한 구성원이며 미국에 사는 재미 1.3 - 1.2세(하기 주 참조), 그리고 2세의 아버지로서 재미 한인 동포의 밝은 미래를 예견케하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전 미국 한인 연합회가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으로 창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노력이 전제로써 필요함을 통감하였다.

필자를 비롯하여 이곳에 사는 한인 미국 시민 가정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1세부터 2세까지의 가족 구성원을 갖고 있다. 상이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조화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필요한 미덕이 서로간의 신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인정하며 이해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전국 한인 연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각 지역 곳곳에서 다른 이권을 추구한다고 하여도 서로간의 양보와 긴밀한 협조가 전국 한인 연합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 지역의 이질성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비판보다는 "포용"하는 미덕이 극히 요망된다.

더불어 이 조직이 성공적으로 결성되려면, 1세와 2세의 상호 협동이 절대 필요하다. 1세와 2세를 가로막는 쓸데없는 권위 의식은 미국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한인 사회에 퇴보를 자초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1세가 하나 2세가 뒷전에 있고, 2세가 하나 1세로서 뒷집지고 영어 장벽을 방패어닌 무기 삼아 방관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

영어만을 구사하여 진행된 이번의 두 모임에서, 2세 인재들의 진지함이나 전문 영역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이들

의 의견과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필자에게 아주 많은 동기 부여를 가져다주는 뜻있는 만남의 시간이었다. 성경에서 모세에게 아론이 필요하며 아론은 모세가 있기에 그 존재 가치가 부여되듯이, 2세에게 있어 1세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NCKAL Washington 대회에는 시민협회 사무총장 김명기, 대변인 함성기씨가 함께 참석하였으며, 특히 우리 시민협회의 회지와 시민권 취득 안내서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유일한 우리 협회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더욱 뜻깊은 참관이였다.

(필자 주: 스탠포드 대학의 배태일 교수는 단순한 1세, 1.5세의 양분법에서 더 세밀한 용어 정립을 하였다. 이민 온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원생은 1.9세, 1-3학년은 1.8세, 4-5학년은 1.7세, 10-11학년은 1.5세, 12학년은 1.4세, 대학생은 1.3 - 1.2세, 대학원은 1.1세대로 구분하였다.)

CLINTON GORE

October 23, 1996

Mr. Yangkil Kim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82 Olympic Lane
North Andover, Massachusetts 08145

Dear Yangkil:

I am very pleased that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have endorsed me for reelecti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Vice President Gore and I are honored by this expression of trust and support, and we hope that you will extend our appreciation to all the members of your organization.

We are proud of our record of achievement. In just under four years we have cut the deficit in half, reducing it each of those years. The economy has created more than 10 million new jobs, the combined rate of inflation, unemployment, and home mortgages is at a 28-year low, and real wages, which had fallen for a decade, are starting to rise again.

You and I both understand the extraordinary importance of the 1996 presidential election for our nation's future. America can enter the next century divided or unified -- either burdened by fear or moving forward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next millennium. In the days and weeks ahead, I will be counting on your help as we work toward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Again, thank you for your loyal support. Your endorsement means a great deal to Vice President Gore and me.

Sincerely,

Bill Clinton

기록으로보는 시민협회의 활동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한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지지해준 시민협회에 보낸 감사의 편지
클린턴 대통령에게 개정된 웰페어법을 복원시키라고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리는 시민협회 (일부 혜택이 복원됨)



'클린턴 전보 보내기' 활발 한인신청자 벌써 1천명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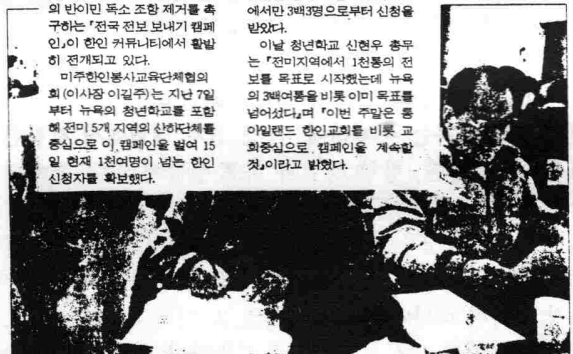
김한준 기자

클린턴 대통령에게 웰페어법의 반이민 특소 조항 제거를 촉구하는 '전국 전보 보내기' 캠페인,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사장 이길주)는 지난 7일부터 뉴욕의 청년학교를 포함해 전미 5개 지역의 산장단체를 중심으로 이 캠페인을 벌여 15일 현재 1천여명이 넘는 한인 신청자를 확보했다.

청년학교는 15일 오후 경로회관을 방문해 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날까지 뉴욕시에서만 3백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날 청년학교 신청을 총무는 '전미지역에서 1천명의 전보 발송 목표'로 시작했는데 뉴욕의 3백여통을 비롯 이미 목표를 넘어섰다.며 '이번 주말은 온 아일랜드 한인교회를 비롯 교회 중심으로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포노인들 클린턴에 항의편지

제4차 전국 한인 미국인 지도자 대회 (National Conference on Korean-American Leadership; NCKAL)가 1997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다는 통지를 주최측으로부터 받고, 이의 참가 여부가 3월 29일의 제24차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다.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대회에는 김양길회장께서 참석했었는데, 회장님 이하 임원진께서는 이 대회의 의의와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특히 앞으로 시민협회의 지향하는 바를 재확인해야한다는 사명을 가진 젊은 임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배우고 익힐 기회라며, 가능한한 많은 참석을 강력히 권고하셨다. 협회의 예산은 1명 참가 경비에 해당될 뿐이었으나, 궤히 특별 찬조의 의사를 밝히신 김문소 이사장과 경비 일부 부담을 자원한 김성군 변호사의 성원에 힘입어, 김명기 사무총장, 김성군 위원장, 함성기 대변인이 금요일인 5월 9일 오후에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이 NCKAL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양길 회장이 제6호 회지에서 제3차 대회 참가기를 통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NCKAL의 탄생은, 1992년 4월에 발생한 충격적인 4.29 LA 폭동 사건에서 한인이 폭동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은 한인의 정치력 부재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한인 지도자들의 진단과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력이 한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정치인들이 모여 장기간에 걸친 준비끝에, 제1차 대회가 1994년에 개최되어 LA 폭동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미국내 한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여야 할 당위성을 논의하였고, 1995년의 2차 대회에서는 한인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줄이며 타 소수 민족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 LA 폭동 사건 이후의 진척 상황 및 2세와의 세대차 타개 등이 논의되었다. 1996년의 3차 대회에서는 미국내 한인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정치 위상의 제고를 기하고자 도모하였다.

이러한 진전의 맥락 속에서 개최된 4차 대회는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1, 2, 3차 대회에서 정립한 당위성, 현상 진단, 방향 정립과 목표 설정에 이어 정치력 신장을 위한 조직 태동에 이르렀다. 1차 대회가 문제점의 시발인 LA에서, 2차 대회가 한인의 정치력이 다소 구축된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3차 대회가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하와이에서 개최되었고, 이제 4차가 비로소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 진출하여 개최됨도, 논리의 진전과 함께 확실한 발전적 진전의 맥락을 갖고 있었다.

이 대회는 모든 과정이 영어로만 진행되었고 따라서 휴식 시간의 개인적인 인사나 토론, 심지어 사담마저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인이 모였으면 한국어를 해야한다는

1차원적인 통념을 떠나, 미국 사회에서 정착하여 중추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확고한 결의의 표현이자, 세대간의 차이에 있어 1세들의 2세에 대한 양보 내지 포용과, 1세의 희생과 노고의 토대위에 성장한 2세들에게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바톤이 이어짐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김창준 하원의원과 폴신박사(워싱턴주 전 하원의원), 재키 영 박사(하와이주 하원 전 공동 부의장), 존 림(오레건주 상원의원), 마사 조(시애틀 시의원) 등의 선출직 정치인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임명직 고위 공직자, 학자, 로비스트, 정치 관련 유명 인사들도 망라되어 있었다. 더우기 3, 4학년의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몇몇이 보인 점은 놀라웠고 젊은 한인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음도 주목되었다. 반면 총인원은 120명선으로 생각보다 적었고 전체 평균 연령이 30대 정도로 젊었으며, 40대나 특히 50대 이상의 순수한 1세대는 찾아 보기가 극히 힘들었다는 특징이 보였다. 이는 주최측의 홍보 부족보다는, 아직은 성인 한인의 대다수가 1세대이고 그들의 영어가 불편한만큼, 영어로만 진행되었던 지난 대회들의 경험으로 참석을 기피한 때문이라고 보여졌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1세들의 언어의 장벽때문만이 아니라, 수준의 차이, 위기 인식 및 대처 방법의 차이, 참여 및 결의 정도의 차이, 결집이나 단합력의 차이, 관심의 차이, 또는 심지어 2세 주도 흐름에 대한 1세의 소외감 및 반발의 단초일 수 있다면, 문제는 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었다.

4차 대회는 대회 주제에 따라, 전반적인 논의가 모두 미래를 위한 전국적인 한인 정치 단체의 결성에 집중되었다고 정리된다.

첫날인 5월 9일, 금요일 오후의 일정은 2시부터의 환영사에 이어 "전국적인 논제 및 한인 미국인의 전망", "이민: 현황과 전개", "의사전달의 개선을 통한 한인 사회의 개선", "다양성인가 아니면 차별인가: 어퍼머티브 액션", "범죄와 선입관"이란 주제하에 패널 토의가 있었다.

이어 저녁에 개최되었던 디너 파티에서 주제 강연을 한 김창준 의원은, 리더쉽의 부재, 정치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부의 도전에 대한 쫓기를 촉구하였다. 흑인들은 지난 100년간 권리를 위해 투쟁하였고 그 투쟁의 결과로 많은 흑인들이 현재 고위 공직에 있는 것이며, 투표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상기시켰다. 특히 미국 정부내에서 한국에 대한 전문가가 모두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이며, 장관급으로 한인이 전무하다는 점, 심지어 주한 미대사가 7개월씩이나 공석임을 지적하면서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대사가 공직이었다면 그 즉시 채워졌

을 것임과 비교해 힘의 미력함을 개탄하였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오는 관광객 순위로 세계 5위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비자가 면제되는 28개국 중에 아직도 끼지 못하고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 한인 전체가 공동 운명체로서 결속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우리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미국의 한부분이며 그 목표를 달성해내자고 역설하면서, 이민자가 이제는 외국인으로 불리우는 신이민법,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차별을 받는 웰페어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한인 사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갈파했다. 이의 달성을 위해 한인의 단합된 전국적 정치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설을 마쳤다.

이 김창준 의원의 연설과 조정자였던 재키 영 박사의 연설은 전번의 대회들과 이번 대회의 목표에 확연히 획을 그으면서, 점차 토론의 열기가 전체를 휩싸며 고조하기 시작했다. 디너 파티가 끝나고 숨을 돌리려는 밤 10반경, 긴급한 연락으로 주대회장으로 내려오니 이미 수십명이 모여 전국 조직체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토론회는 순서에도 없던 것으로써 전체가 평등한 원탁 형식으로 앉아, 참석자 모두가 발언하고 주의 깊고 진지하게 서로의 찬반 의견과 관심사를 경청하면서 걱정적이고도 평평한 긴장속에 진행되었다. 전국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고 토론회가 마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이튿날인 5월 10일 토요일은 오전 중에 "돈과 정치", "로비와 캠페인", "한인 미국인의 정치력 강화", "한인 미국인의 성공적인 사업", "한인 미국인의 예술"이라는 주제하에 패널 토의가 개최됐고 점심 식사 중에는 "연합된 힘을 향하여"라는 주제하에 1952년에 창설된 일본계 전국 조직체인 JAACL과 1972년에 창설된 중국계 미국인의 OCA, 20년이 된 히스패닉 전국 조직체인 CHC의 대표들이 각 조직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오후에 들어서는 "행동 전략", "메시지 전달 강화 방안", "행동 지도력", "미래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 "교회와 근간 조직의 역할"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시민협회에서 참석한 3명은 종일 각자의 전문성과 임무에 따라 각각 다른 패널 토의에 참여했고 휴식 시간에는 함께 모여 각자가 참여했던 토의의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하면서 찬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의 공식 일정은 오후 5시반에 모두 끝나기로 되어 있었으나, 밤 7시경, 다시 긴급한 원탁 회의가 소집되었고, 어제밤의 논의에 근거한 전국 조직의 방법과 성격 규정,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토론에 들어갔다. 분반토의를 거쳐 취합되고 다시 토론되며 조정되어 일차적인 취합을 도출한 것은 자정이 훨씬 지나서였다. 이 마라톤 토의에서는 Possible

Mission, Possible Structural Components, Possible Tactics가 구축되었으며, 이에 관한 Concerns가 요약되었다.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5월 11일, 어제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아침 10시부터 주 회의실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디로 지향할 것인가?"라는 주제하에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어제밤 격론의 요약은 밤새 정리 작업을 통해 이미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고, 이로부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정리되었는데, 초안은 "To advocate nationally on behalf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ng as a unified voice through a consortium of regional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였다. 단어 하나하나 의미의 정의와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었고, 향후의 전국 조직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액션 아이템들이 선정되었으며, 전자 메일을 통한 연락망이 조직되었다.

비행기 시간이 임박한 12시경, 시민협회의 참석자들은 열기있는 논의가 계속되는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했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3차 대회의 공동의장이자 이번 대회의 핵심이었던 재키 영 박사와 함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개인적인 정분을 나누고 공식적으로는 듣기 힘든 도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번 대회에의 참석은 아직 시민협회의 갈 길이 지극히 멀고 아득하며, 더 많이 익히고 눈을 뜨며 배워야 한다는 각각의 기회였으며, 이러한 기회를 젊은 임원들에게 열어주며 참여를 독려하신 회장 이하, 이사장님,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시민협회의 회의 때 외에는 크게 같이 할 시간이 없었던 시민협회의 참석자들 상호간의 교의를 돈독히 할 수 있었던 점도 큰 소득이었다.

연일 밤 늦게까지 계속된, 긴장되고 솔직하며 때로는 극히 격정적이던 토론에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채 미소를 띠며 지켜보던 폴신 박사와 재키 영 박사와 같이, 밀거름이 되기를 마다않는 지도자들, 패기와 지혜와 진중함이 어우러진 젊은 2세 지도자들의 정열과 추진력을 보면서, 서로의 신뢰와 자신감을 확인하고 한인의 미래가 밝음을 가슴 가득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체험이었다.

92년의 4.29 LA 폭동 당시, 수만명의 미국내 선출직 정치인 중에 한인은 5개주에서 고작 총 10명에 불과했다. 이제 얼마안있어 수백명이 되고 또다른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며, 장관과 상원위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이 역사적인 순간의 모임에 다음에는 보다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4차 대회 이래 들어온 50여통의 e-mail에 이어, 오늘도 추진 위원회로부터 한인의 미래를 위한 e-mail이 들어오고 있다.

재미 교포들의 1세대가 장년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인생의 황금 시기인 은퇴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타국에서 갖은 고난을 겪으며 한평생 일을 한후, 사람들은 삶을 마무리하는 은퇴 생활이,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갈등에서 벗어난 보람있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안락한 은퇴 생활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별판에 성을 쌓듯 많은 시일에 걸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편안한 은퇴 생활의 준비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세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경제적, 둘째는 정신적, 셋째는 건강과 신체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주안점은,

1. 현재의 재정 관리 상태를 유지하면 퇴직 후에 자손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가?
2. 바라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액수가 필요할 것인가?
3. 사회 보장 연금과 직장의 퇴직금은 총 은퇴 생활비의 몇%나 차지할 것인가?
4. 퇴직후 세금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위에서 필요한 액수를 보충하려면 오늘부터 월간 얼마의 액수를 어느 곳에 저축해야 하는가?

미국의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은 1945년대에는 50여명의 납세자들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1985년에는 3명의 납세자가 1명을, 2030년도에는 2명의 납세자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1997년 현재, 1인당 사회 보장 연금 액수는 최대 년 15,000달러까지이다. 따라서 퇴직 후 사회 보장 연금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음이 자명하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웬만한 퇴직금조차 퇴직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적 궁핍을 받지 않는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은퇴시에 필요한 수입은 현재 수입액의 8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 소액이라도 규칙적으로 장기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가장 쉽게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둘째로 정신적인 면에서의 고려할 주안점은, 1주일에 40시간 내지 60시간씩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할 일 없이 갖게 되면, 정신적으로 당황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며 허탈감에 빠져 신체적 영향을 받아 바람직한 은퇴 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일에 충실한 사람(Workholic)들은 퇴직후 아무

할일이 없으면 갑자기 사망하는 일도 있다. 의미있는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서히 자신의 취미 생활을 Explore해야 한다. 은퇴후의 활동은 자신의 내적 성장과 정신적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예술, 교육, 요리, 골프, 테니스, 여행 등과, 또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봉사, 종교 단체, 병원, 양로원, 정치단체, 노인 단체 사업 등에의 참여가 있겠고,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에는 아동 교육, 강연 등을 들 수가 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므로 퇴직 후의 거주지 선정도 또한 중요하다. 은퇴 생활 거주지 선정에 고려할 점은 집을 소유할 것인가, 렌트할 것인가, 자녀와 가족 및 친구들과의 거리 관계, 기후, 동네 안정도, 부동산 세금을, 오락 시설, 교통, 병원, 교회 등등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건강과 신체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주안점은, 만약에 신체의 건강을 상실하면 장기 의료비 대책은 어떻게 하는가이다. 장기 의료비에 의해 재산의 손실은 얼마나 오고, 자녀나 배우자의 생활 수준에는 어떤 지장이 오는가?

인간의 재정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젊은 시절에는 생명 보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는 어떤 종류의 보험이 가장 중요한가? 미국 사회에서 현재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사람들 중, 50%가 장기 질병으로 인하여 양로원에서 평균 2년반 정도를 기거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보스턴 근교의 양로원 비용은 하루에 1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에 달하므로 2년반의 양로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Medicare에서는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지 2%밖에 보조가 안되므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을 통털어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비한 노후 양로원 보험은 가장 효과적인 재산 보호 방법이나, 고려해야 할 점은 보험료의 증가가 나이에 정비례하므로, 젊은 나이에 시작할수록 적은 돈으로 상당한 노후 재산보호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평균 65세에 은퇴하여 85세에 이르기까지 총은퇴 기간은 20년에 해당한다. 자본주의의 침단을 걷는 미국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와 "동양 노인"의 위치, 또한 "빈궁한 동양 노인"의 위치를 잠시 생각해 보자. 계절에 비유하면 추수를 거두어 들이는 가을과 같은 것이 은퇴기이다. 아직 우리에게 인생의 지향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기에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모두의 은퇴 생활이 보람있는 황금시기가 되도록 계획하고 미리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김연숙 이사는 현재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에서 미국내 8천명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고위층 1%에 해당하는 Advanced Group 재정 계획 전문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상을 포함한 각종 수상 경력과 각종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ith many Korean Americans nearing their retirement age, we have reached the time where we need to think about taking care of our future. After working so hard throughout their lives, most of people aspire to and expect to have a successful retirement. But the reality is that a successful retirement does not happen automatically. As anything in life, we must carefully plan ahead. It is never too early or too late to start planning for retirement. Most people share a common concern; they are worried that they won't have enough money when they get older, and that they won't be able to live comfortably. In order to prepare for a comfortable retirement, there are three factors to be considered; 1) financial, 2) emotional and 3) health considerations.

Key financial considerations:

- If I maintain current lifestyle and level of savings, will I have enough money at retirement?
- How much money will I need at retirement to live comfortably?
- What % of retirement income will be supplemented by Social Security and pension fund?
- How can I prepare for the tax and inflation implications after retirement?
- How much money do I need to save every month in order to achieve my retirement goal?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 about retirement is, "Where will my money come from?" According to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n 1945, 50 work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upported one retiree, in 1985 it took three workers to support one retiree, and by the year 2030 the number will shrink to two workers per retiree. The maximum annual Social Security benefit a person can receive is \$15,000 in 1997 dollars. Many people have company pension plans and contribute to some form of qualified plan at work a small percentage of their income; 5, 10, or 15%. While these two sources will help supplement our retirement, we will not be able to depend on Social Security and pension plan alone to provide for our retirement. It becomes clear that in order to support the kind of retirement we envision, we need to set up a personal savings and investment plan ourselves. The realistic goal for a targeted retirement should be approximately 80% of current income. The most efficient way to prepare for retirement is to begin early and systematically save every month even if it is a small amount.

The second factor is Emotional considerations;

Consider these sayings; "It is blessed to be busy" or "The human brain is like a spring, the more you use it, the fresher it gets". After working 40 to 60 hours a week, suddenly having a lot of free time without any set agenda can have a dramatic

effect in our emotional health. We have often heard of reports where a healthy hardworking person dying suddenly soon after retirement. Retirement is no longer synonymous with rocking chairs. It can be a time to grow and explore our talents and hobbies such as art, education, golf, tennis, travel, or volunteering at a children's hospital, shelter or community event. Perhaps you may want to share your expertise through teaching or give a seminar for a fee. In short, it can be the best time of our life.

The environment we live in is an important element in our liv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me of the issues surrounding where we will live at retirement such as; own a home or rent, climate, geographical proximate to family, friends, hospital, church. Other areas to consider are; safety of neighborhood, transportation, tax rate, recreational facilities etc..

The third area of consideration is protecting ourselves and family in case of illness;

Balanced diet and a regular exercise program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the retiree in order to maintain good physical health.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financial impact of a prolonged medical care to our loved ones. Life insurance was an effective way to protect our earning power while we were working, At retirement, Medigap and long-term care insurance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Acco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 50% of adults age 65 and over may face entering a nursing home with average nursing home stay of 2 1/2 years. Unfortunately only about 2% of people in nursing homes actually receive Medicare help. Without insurance, our life savings could be depleted very quickly - in greater Boston area, nursing home cost ranges from \$150 to \$300 per day. In order for one to become eligible for Medicaid you must exhaust most of your income and assets. Long-term care insurance can be an effective way to prevent your lifetime earnings from severe asset depletion due to prolonged medical care when we reach an age where we can no longer care for ourselves.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policies to choose from. And since the younger the age the lower the premium, it pays to explore the choices as soon as possible.

People are retiring earlier and living longer. If we retire at age 65 and live to age 85, we are faced with 20 years of non-income producing retirement years. It is one thing to be "old", and yet it is another thing to be "old and poor" in this capitalist society. A retirement can be a most exhilarating, richly rewarding time. It can be a best time of our lives, if we plan ahead.....

비자 면제 프로그램 캠페인

Campaign for Visa Waiver Pilot Program (VWPP)

시민협회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누구나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한 모국 동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뉴잉글랜드 전역의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전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을 지난 9월 중순에 전개했습니다. 이는 본회 헌장 제4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는 시민협회 사업의 일환입니다. 미국법 상,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국가에 한해서만 입국 비자를 면제시키는 법안(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담은 내용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보스턴 총영사관으로부터 긴밀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September 15, 1997

I am very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s now in its seventh year and actively engaged in a number of endeavor to raise the level of civic participation for Korean Americans. Primarily, we have assisting Koreans to obtain U.S. citizenship and encouraging more Korean Americans to vote. Our aim is to have Korean Americans develop a stronger voice in the political arena as well as to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line with this mission, I am writing to you concerning the issue of exempting visas for short-term visitors from Korea, including business people to the U.S. As you well know, the U.S. Congress should be considering the reauthorization of the Visa Waiver Pilot Program (VWPP) prior to its expiration at end of September of this year. Your ongoing support will be critical, as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is legislation will be important to both Americans and Korean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one of the strongest allies to the U.S. and is the fifth largest export market and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for the U.S. with two way trade reaching \$55 billion last year. With the expansion of these business relations, the number of Koreans traveling to the U.S. has been growing dramatically. In fact, Korean visitors to the U.S. are increasing at the highest rate of all nationalities. The U.S. Travel And Tourism Administration estimates that during this year alone, over one million Koreans will visit the U.S. contributing substantially to the U.S. economy.

While the U.S. remains the most preferred destination for Korean nationals, Koreans traveling to the U.S. are often forced to retract their business and vacation plans because of the delayed visa issuance process. This process particularly frustrates would-be Korean business travelers who often make travel plans within a short time span. As such, an exemption of U.S. entry visas for short-term Korean visitors will greatly serve the interests of the U.S. as well as the expansion of commerce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believe that the bill that you introduced, H.R. 1880, which would modify current VWPP requirements, and enable Korea to be eligible for the VWPP is key to this initiative. There also has been growing support from others in Congress including Senator Frank Murkowski (S. 209), Representative Neil Abercrombie (H.R. 627), and Representative Jay Kim (H.R. 203) who have introduced bills that, with varying provisions, would extend the VWPP to Korean nationals. Members of 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an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have also declared their support for Korea's inclusion in the VWPP.

A slight modification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VWPP, specifically, changing the non-immigrant visitor visa refusal rate from 2% as currently stipulated in the VWPP, to 3% would enable Korea, whose refusal rate of last year was 2.87%, to be eligible for the program. In fact, until last year, the VWPP enabled a country with refusal rate of less than 3% to be designated as a pilot program country with probationary status.

The U.S. VWPP has been a resounding success in accomplishing its goals to contribute to the U.S. economy, and to allow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o use its resources in a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manner. I firmly believe that extending the VWPP to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elp to the advance the goals of this program. Your support in this matter will be of the utmost importance not only to Korean nationals, but to your constituents including Korean Americans, and the U.S. at larg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We appreciate and look forward to your valuable support in this matter.

Sincerely,

Yangkil Kim
President

시민협회에서 전개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캠페인의 결과로, 상원의 법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한 메사추세츠 출신 연방 상원의원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아래와 같은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협회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확대 조처를 해야한다는 데 납득했으며, 규제 완화 법안을 공동 제안하여 9월 26 일자로 상원에서 통과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이 법안은 귀하가 보내주신 편지에서 언급한대로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비자 거부율의 완화 조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규정에 부합되며, 이 법안은 한국을 훨씬 용이 하게 이 프로그램의 해당국이 되게 합니다. 이제 연방 하원에서 토의될 이 법안의 추이를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ORRIN G. HATCH, UTAH, CHAIRMAN
STROM THURMOND, SOUTH CAROLINA
CHARLES E. GRASSLEY, IOWA
ARLEN SPECTER, PENNSYLVANIA
FRED THOMPSON, TENNESSEE
JON KYL, ARIZONA
MIKE DEWINE, OHIO
JOHN ASHCROFT, MISSOURI
SPENCER ABRAHAM, MICHIGAN
JEFF SESSIONS, ALABAMA
PATRICK J. LEAHY, VERMONT
EDWARD M. KENNEDY, MASSACHUSETTS
JOSEPH R. BIDEN, JR., DELAWARE
HERBERT KOHL, WISCONSIN
DIANNE FEINSTEIN, CALIFORNIA
RUSSELL D. FEINGOLD, WISCONSIN
RICHARD J. DURBIN, ILLINOIS
ROBERT G. TORRICELLI, NEW JERSEY
MANUS COONEY, Chief Counsel and Staff Director
BRUCE A. COHEN, Minority Chief Counsel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WASHINGTON, DC 20510-6275

September 29, 1997

Yangkil Kim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Dear Mr.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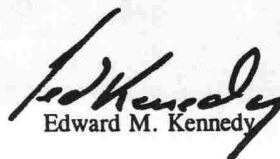
This is in response to your letter of September 15, 1997 regarding the inclusion of South Korea in the Visa Waiver Pilot Program.

I am convinced that the Visa Waiver Pilot Program has been a great success, and it deserves to be extended. I am pleased to report that the U.S. Senate on September 26 passed a bill I co-sponsored to ensure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Visa Waiver Pilot Program. The bill eases one of the criteria for participating in the Visa Waiver Pilot Program, the non-immigrant visa refusal rate, as mentioned in your letter. The result should be that the Visa Waiver Pilot Program is put in reach of even more countries.

South Korea would have to meet these new qualification criteria in order to join the program; this bill puts it that much closer to being able to participate. We are now monitoring the debat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this important issue.

Thank you for sharing your views with me.

Sincer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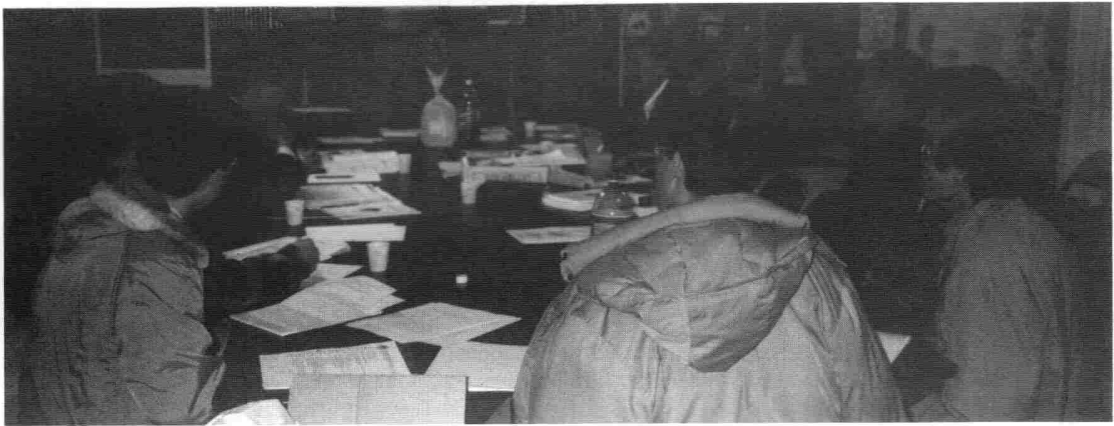

Edward M. Kennedy

사진으로 보는 시민협회 활동

Activities of the League: Pictures



97년 3월: 제1차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의 모습



97년 3월: 제24차 시민협회 이사회



97년 6월: 제2차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의 모습



97년 5월: 보스톤 총영사관 초청 간담회



97년 9월: 회지 제7호 편집위원회



97년 10월: 제1차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

신문 기사로 보는 시민협회 활동

Activities of the League: Newspaper Articles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6차 정기총회 및 초청 강연

생활환경 바뀌어 이제는 미주류 사회 참여할 시기

지난 19일(토) 오후 8시 케임브리지 교회 담임(김태환)에서 한인시민협회의 6차 정기총회 및 『21세기를 향한 해외동포들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출신(신호봉 박사) 전 혁신준주 주하원의원의 초청 강연이 2부에 있었다.

제1부에서 사회 및 진행에 최홍근 총무, 개최선언 김일갑 회장, 개최기도 김태환목사, 회신채택, 협회경과보고 김사과 증정, 현시민협회 김문소 이사장은 지난날의 협회 발전에 공헌한 전 시민협회장 김은한 고문에게 감사패 및 상장을 전달하였고, 이현주 재무의 재무보고에 회회 개정안, 임원선출, 이사인준, 이사회 개에 김문소 이사장의 신임이 사들의 소개가 있었다.

신임이사회는 이경혜 집행원속 할성기 집성인 박정현 한석은 노영호 이영희 윤익중 진중호 씨 등이며

이이 신임회장의 김일갑 회장의 인사에 고문 및 임원 소개가 있었다. 9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김경기 사무총장의 예산안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기타 안건 및 폐회하고, 제 2부에에서 출신(신호봉 박사)의 초청 강연 연설에서 『21세기를 향한 해외동포들의 비전』이란 강연이 있었다. 우리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 20세기 초부터 시작하였으나 한국동민이 시작된 1950년도 이전에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6.25사변을 계기로 당시 출민한 미국군인의 수가 늘어났던 전정고이며, 미국 가정의 양자 또한 유학생들이 미국에로의 이민이 부쩍 늘기 시작하여 1970년도에는 그 정점에 달하였고 1990년에는 무려 150만인만 교포들이 미국에 이주하여 살고있다.

미국에로의 본격적인 우리



▲ 김문소 이사장이 김은한 고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있다

이민역사가 반세기여 가깝다 고 하여도 아직 한인인 대부분이 이민 1세대이며 이들은 그간 특별한 성공한 계기가 별로 없었다. 갖이 안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닦기에 자녀들의 교육에 또 일상생활에 바쁜 일정을 이민 생활의 미래를 계획적으로 다루어볼 여유나 기회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게 해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가까워오며 우리 이민사회의 1.5세대들이 적지않게 출현하고 있고 또 시민권자의 수도 늘어 이들이 새로운 세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고 한국인 특히 1.5세대들이 정체에 나가 한국을 잃었고 그 능력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희망이다. 그 예로 본인은 한국에서 4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아버지는 형방형되었고 그의 할머니를 통해서 자라던

중 6.25를 만나 그해 16살의 몸으로 미군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미장교의 기정에 일임되어 "포미하였다. 그러나 현지 미국에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것때문에 피는물나는

특약을 통하여 정착고시에 합격하여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에 들어가 모든지가 어려우나 인내와 노력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고 당시의 회상을 하기도 하였다.

보스톤 이북5도민회 결성 회원되고저 하는분 연락 바람

보스톤지역에 이북 5도민회회가 지난 9월 7일 뜻있는 지역 5도민회 결성사업이 모여서 이북 5도민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보스톤 준비위원회에 연락을 바란다. 문의전화 날 (617)623-9107 밤 (508)592-5575 또는

보스톤 최고의 발행부수 최다의 광고효과 광고문의는 617-599-2799

NE 한인미국시민협회

시민권취득 워크샵

시민협회(회장 김일갑)는 6월14일 토요일 오후 1시-5시까지 미주주세주 연도비에는 북부 보스톤 한인 연합 교회에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전과정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2차 워크샵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영주권카드, 소시알사유리카드, 신청수수료 \$95를 주세주 미니오더로 맡아서 "Payable to INS" 지참해야하며 지문채취를 위해 별도의 \$10를 준비해야한다. 그리고 FORM N-400 시민권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협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음회 연락처로하면 된다.

시민협회 연락처: 전화 (603)659-6732(김경기 사무총장)
시민협회장 전화 (508)475-3534(장문수)
시민협회사무장 전화 (617)825-1115(김성문 변호사)
시민협회취득 워크샵 전화 (617)935-4620(박원복 변호사)

일시: 1997년 6월 14일(토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가리교회

NE 한인미국 시민협회 시민권 신청 무료워크샵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는 14일(토) 오후 1시에서 주 연도비 소세 북부 보스톤 연합 교회에서 시민권 신청 과정을 무료로 도와주는 워크샵을 갖는다.

이날 워크샵 참가자들은 영주권, 소세 서류리 카드, 이민관에 납부할 시민권 신청 수수료(95달러)의 미니 오더, 각 교회, 단체 한국 업체에 무료로 배부되는 시민권 신청서를 입수하여 미리 기입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민 워크샵에 관한 문외는 시민협회의 핫라인(603-659-6732)로 하면 된다.

시민협회의 활동을 보도한 신문 기사의 일부 (와싱턴-보스톤 투데이, 코리아 보이스, 한국일보)

시민협회 2천불 보조금 수혜 아시아인 아메리칸 유니티 디너에서

시민협회(회장 김일갑)는 5월3일 Boston Sheraton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인 아메리칸 유니티 디너에서 시민권 취득 안내서 발간 보조비로 \$2,000을 받았다. 시민협회는 지난 3월 30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Workshop을 갖고 N-400작성, 사진촬영(두부)과 지문채취(\$10)서비스를 행하였으며 시민권 취득안내서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유니티 디너는 여러 아시아 사람들의 단합을 위해 매년 5월 첫 주 토요일에 행사를 갖고있는

데 뉴잉글랜드 지역의 최대 아시아인 행사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적은 7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시민협회는 이 행사에 매년 참여하고있다. 이날의 사회자는 Channel56의 한국인기자인 Mary Pae가 맡았다. 검찰총장 Scott Harshbarger, 보스톤 시장 Thomas Menino, Randolph Selectman으로 최근 당선된 Dan Lam(중국어)이 초청연사로 왔으며 기조연사는 Lau Technology의 사정인 Joanna Lau였다. 식사전에는 여러 나라의 민속공연이 있었는데

Linda Kim의 한국고전 무용도 있었다.

유니티 디너는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므로써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미국 여러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있다. 이돈의 일부는 지역사회단체들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후 그 보조금으로 지불한다. 올해는 시민협회를 포함한 일곱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았다.

유니티 디너는 또한 지역 봉사상을 개인에게 수여하는데 올해는 보스톤 대학에서 일하는 Hiep Chu가 이 상을 받았

시민권시험, 월페어법 보고회의, 뉴스레터 창간등 시민협회 24차 이사회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회장 김일갑) 사무총장 김경기 직통 전화 (603) 659-6732에서는 3월29일 시민협회가 주관한 시민권 취득 워크샵이 끝난 후인 저녁 7시에 북부 보스톤교회에서 제 2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본제장이 보고하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라고 인터넷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노인분들의 한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한국어 선반들의 지원에

이하는 증명결과와 함께 6월달까지 계속해서 개최할 것이 필요하였으므로 향후 부족한 자원봉사자의 문제 해결이 제기되었다.

한편 인터넷에서의 인터넷부가 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라고 인터넷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노인분들의 한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한국어 선반들의 지원에

이 는 의되었다. (한국어 능력에 필요한 분은 시민권 안내 위원장 김성준 변호사 617-523-7700으로 연락바람)

이어서 시민권 및 월페어법과 관련한 MIRA 등의 회의 참석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시민협회의 소식과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월페어법 시행 관련 소식들을 고민에 고민에 고민에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하기로 했던 지난 23차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6월중에 뉴스레터창간호를 발간하기로 하

뉴잉글랜드 시민 협회 시민권 취득 교포 도와줘 월페어법 개정으로 시민권 신청 쇄도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회장 김일갑)는 오는 3월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도비 북부 보스톤 교회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민들에게 시민권 취득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시민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시민권취득 시험과 교육을 주관했었고 또 올해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대항하고있는 Manch사의 신청 취소권인 요구가 지나치게 많아 한인용시자에게 많은수요를 요구하고있어서 이의 조정을 위해 시민의 난관을 겪고있었다. 그러나 월페어법의 개정으로 신청이 급박하기때문에 작년과는 달리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민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모든 과정을 무료로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이날의 워크샵에서는 참여

한 모든 교민들에게 시민권 신청과정의 소개와 N-400서류 작성,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모두 무료로 해준다. 작년의 경우는 이 서비스에만 1인당 85달러를 Manch사에 납부해야만 했었는데 올해는 105달러를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이번의 무료 워크샵은 그동안 시민권 신청 경리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주저하고있었던 많은 교민들에게 희소식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권 신청을 위해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민관에 납부할 수수료로 95달러의 개인 수료를 "Payable to INS"로 작성하여 지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당일 무료로 봉사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N-400을 최종 작성하기위해서는 양식에 기재될 각종 개인 신상자료가 포함되어 한 한국식 증명이나 식량, 교회에 배부

되고있는 N-400작성준비서를 받아 미리 작성해서야만 당일 완전히 작성할수가있으니 꼭 이 준비서를 작성해 오기를 바라고 있다. 시민협회에서는 이 무료 워크샵이후의 시험실시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일정을 추후 확정하여 신청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무료 봉사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함에 시민협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자원봉사에는 N-400을 위시한 서류의 작성을 도와주실 분과 사진촬영, 인쇄, 인터넷 영어통역자, 시민권교육자 등의 분야로써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면 본은 소중한 지원에 시민협회의 회장 김일갑 전화 (508) 691-5108로 연락주시기를 바라고있다.

이민국, 장애인 시민권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회장 김양길)에 따르면 연방이민국은 지난 3월 19일부터 장애자의 시민권 시험을 면제해 주는 시민권 취득 시험제도를 공식 발표했다고 한다. 시민협회에서는 작년에도 시민권 시험을 주관했다고 올해는 지난 3월 29일에 북부 보스톤 교회에서 시민권 취득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었는게 그동안 장애자의 시민권 시험 면제 규정에 대한 고민과 문의가 폭주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최종 발표된 시험제도를 긴급 접수하였는데 그 요약된 내용을 보면 아래의 요지와 같다.

이 면제시험 제도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들

50세 이상이나 15년이상 55세 이상인 분들이 합법로 시험을 치거나 통역을 동반한 면접을 할 수 있는 것등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

시민협회에서는 한인 장애자들이 모두 가능한 말리이 혜택을 받아 시민권을 취득하기를 권고하고있으며 신청서인 N-648양식을 요청하면 무료로 배부해 주고있다.

양식 신청과 문의는 사무총장 김필경기 회장인 전화번호(603) 659-6732 또는 회장 김양길 (508)691-5108로하면 응송해준다.

장애자 시민권시험 면제에 관한 시험제도는 아래와 같다.

시민권 시험을 면제받기위한 장애자의 개념에 관한 규



시민협회, 오는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회장 김양길)에서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14일에는 한국어와 영어 시민권 시험을 주관한다.

장소는 메사추세츠 앤드버에 소재한 북부 보스톤 연합감리교회이며 등록 및 시험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회장 김양길(전화 508-691-5108) 또는 시민권 취득 안내 위원회 김성근위원장(전화 617-523-7700)에게 하면 된다.

시민협회에서는 이번 시민권 시험을 성공적으로 주관하기 위해 각 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준비모임을 지난 11월 5일 북부 보스톤교회에서 가진 바 있다.

시민협회에서는 지난 4월에 시민권 시험(제 1차)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영어와 한국어 시험의 신청자 105명중 8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번 시험을 위해 11월 중순 부터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며칠간의 교육과 시험의 전 과정에 걸쳐 각종 봉사활동과 교육, 안내와 연락, 응시 독려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격제한은 전혀 없으며 한인사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봉사할 분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개정 이민법이 확정되고 특히 월페어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각종의 혜택이 끊기게 될것으로 특히 나이드신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게다가 현재 계속적인 반이민적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권 취득 시험도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민협회에서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권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회지 무료 배부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회장 김양길)에서는 96년도 회지인 제6호를 발간하였다.

지난 1990년에 설립된 정치 참여를 통한 한인들의 위해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함회는 매년 10월의 총회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 주관

12월14일 시민권시험, 영주권자 교포들 참가해야

시민권 취득 워크샵 성황리에 종료

80여명 시민권 신청, 시민권협회원 정성껏 봉사

지난 3월 29일(토) 앤드버 소재인 북부 보스톤 교회에서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회장 김양길)가 주최한 시민권 워크샵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80여명의 교민들이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효율적인 워크샵의 준비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오전 10시부터 조직적으로 준비를 진행하는 가운데 낮 12시가 되어오면서 이미 이십여명의 교민들이 일찍워서 기다리면서 번호표를 교부받았으며 예정 시간인 오후 1시에 정확히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신청자가 모인 가운데 김양길 회장이 워크샵의 순서와 방식, 시민권 취득에 대한 안내 설명을 했고 이어 질의와 응답이 이어진후 안준모 노인회장의 시민협회를 지원해 주자는 권고말씀이 있은후 이내 워크샵이 시작되었다.

신청자들은 순서에 따라 접수하고 북부보스톤 교회의 친교실에 미용사 모양으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탁자를

돌며 시민권 신청서식인 N-400의 기입과 작성, 사진촬영, 지문채취, 필요한 서류의 복사 등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번호표의 검토와 서명을 거쳐 시민협회에서 준비한 봉투에 모든 서류를 넣어 이민국에 발송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시민권 신청의 전과정을 몇시간만에 마쳤다. 짧은 시간과 제한된 공간안에 자원봉사자까지 100여명 이상의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질서 정연했으며 예정된 오후 5시가 채 안된 4시 45분경 모든 분들이 신청을 성공적으로 모두 마칠수 있었는데 참



▲ 시민권 신청을 들고있는 모습

석자들은 입을 모아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배치와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에 기뻐하며 이런 행사를 주최한 시민협회 측에 감사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준비가 잘된 행사도 다 못할 신청을 단지 세시간만에 그것도 무료로 마칠수 있었다」 라고들 참석소감을 말했다.

이날의 행사는 모든 과정이 무료였으나 이민국의 요구조건상 지문채취만은 Asian-American Civic Association에서 나온 지문채취만이 10달러씩을 각자 별도로 직접 지불하였다.

대우기 이날의 행사에서는 새로 발간된 「시민권 취득 종합안내서」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었는데 50여쪽으로 깨끗이 제작된 안내서에는 1부에 종합안내, 2부에 영어필기시험, 3부에 한국어 필기시험, 4부에 면접 시험 문제와 해답이 실려있으

손영희씨가 수고했으며 복사에 박필수, 김용표 학생, 지문에 김계숙(Mrs 김문소) 정인경 목사님 부부, 종합검토 및 봉사에 김양길, 김문소, 고광숙씨 그리고 최종검토에 김성근 변호사와 한석훈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셨다.

이날 접수증을 받은 분은 78명이었으나 실제 도움을 받은 신청은 8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고있으며 정식으로 시민권 취득 신청을 전부 완료하신분들은 61명이었고 이중 28명이 시민협회에 가입을 하거나 정성채 한조금을 내어 주셨다고 한다.

이날의 워크샵에 참석한 분들 보면 50명이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넘는 55세 이상의 노인분이었고 영어시험을 치뤄야 하는 사람은 28명 선에 불과해 월페어법이 개정되고난후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노인분들의 절실한 시민권 취득 열의의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것이라고 시민협회에서 분석했다. 시민협회에서는 이날 자원봉사자들과 장소를 제공해 준 북부 보스톤 교회(전종현 목사님)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있다.

한편 시민협회에서는 워크샵에 여러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한 분들의 문의가 계속 폭주하고있는데다가 추가로 젊은이들의 시민권 취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6월말경에 다시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며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6월 초에 신문 지상과 각종 매체 교회 등 각종 단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시민협회에서는 앞으로 계속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도와주실 자원봉사자

시민협회의 활동을 보도한 신문 기사의 일부
(와싱턴-보스톤 투데이, 코리아인 보이시, 한국일보)

시민협회에 참여하고 도와 주신 분들

회비 납부자 명단

송남수	조수현	송광옥	고광숙	박영복	박필수	김문소	김계숙	최홍균	황성미
김명성	이주연	오예자	이훈재	김명기	김선미	이익남	김한수	김경희	김기석
김현숙	이재신	박경민	정용훈	장명숙	박현경	김양길	김진희	이경해	김은한
이혜원	최영훈	이지원	강길원	신동옥	김정선	조순래	한승희	김경애	임병규
이현수	이재신	이좌경	박경민	고광숙	김윤순	박경숙	구본훈	박성호	허선옥
이중섭	심고분	이소영	백인분	이오숙	손종옥	이수민	김상현	박종문	박영미
김혜숙	이옥희	박종화	박채운	조봉준씨 부부		고일석씨 부부		장문기씨 부부	
김민수씨 부부	이용필씨 부부			Ming Dong		제1차 워크샵때 납부자 14명			
'98년분 선납:고광숙	고영복	이문열	이숙기	최영훈	이지원	김문소	김계숙		
김광능	변정자	이강필	이재신	김홍혜	박경민	장정울	현철우	이금주	김희준
이영경	김재룡	민제홍	신미봉	이희규	김혜연	김영곤	김미정	이우조	이영자
조중운	백 린	최선경	안병학	김경순	김원엽	김영희	김성균	권정자	함성기
고중돈	최낙철	장세중	백혜담	정화용	최연일	최송자	권이덕	권영희	최수길
김명철	정진기	조준호	조한나	이완재	김정희	박기춘	신정수	오진옥	이재신
김홍혜	박경민	장정울	김양길	김진희	김경희	최홍균	황성미	김은한	이혜원
최영훈	이지원	박필수	김명기	김선미	김선영	김갑성	이상구	임나경	최연집
최옥자	윤은상	윤순혜	김영희	정석호	정에스터	장용복	이창주	김정선	조순래
안준모	강길원	강동옥	임영호	임경애	서태환	최원길	채길식	임원준	윤정자
김부석	김순현	이춘화	조의자	오상철	최영애	이민용	이용자	조봉준	고일석
고일석	이문봉	조영희	이문열	이경해	정대철	이광섭	이선옥	이강필	송재옥
이동수	이천각	허영자	이강원	홍지복	이정여	박복남	정인옥	소정숙	김종천
김찬숙	김명숙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김문소	최홍균	박필수	최낙철	이강필	김기석	박경민	정용훈	박경원	이경해
김연숙	김양길	김은한	최영훈	정석호	고일석	임병규	한석훈	이재신	조봉준
김명기	Jessica Lee	'98년분 선납:이문열	최영훈	정석호	김문소				

찬조금 납부자 명단

고광숙	이재신	김영기	이병철	이경해	김문소	이문열	서해수	보스톤산성교회
-----	-----	-----	-----	-----	-----	-----	-----	---------

회지 6호 광고 찬조금 납부자 명단

노인회	한인회	NAKA	문수사	세탁인협회	경제인협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버드연합감리교회	영광순복음교회	캠브리지한인교회	성요한감리교회	캐브리지한인교회	성요한감리교회	김연숙 재정상담
내슈아한마음장로교회	보스톤한인교회	퀸지영생장로교회	보스톤장로교회	퀸지영생장로교회	보스톤장로교회	김선희 종합보험
로드아일랜드중앙교회	보스톤소망교회	보스톤한인감리교회	북부보스톤교회	보스톤한인감리교회	북부보스톤교회	아시아나 그릴
임나경 상담소	한석훈 변호사	보스톤 보석	국제해운	보스톤 보석	국제해운	농장식품
이경해 부동산	김성균 변호사	한은에 치과	고향식당	한은에 치과	고향식당	신신식품
코리아 여행사	캐롤운 치과	뉴장수갈비	신라식당	뉴장수갈비	신라식당	청계식품
이현주 회계사	찰스허 치과	태양자동차	대한항공	태양자동차	대한항공	천주교회
이영화 변호사	신영목 치과	형제떡집	박스오토	형제떡집	박스오토	우촌
Bank of Boston	Complete Car Care	Captain Boston Fish	AT&T	Captain Boston Fish	AT&T	HDM
						MetLife
						PSI

시민권 취득 안내서 광고 찬조금 납부자 명단

보스톤한인감리교회	보스톤장로교회	보스톤한인교회	보스톤소망교회	천주교회
뉴버드연합감리교회	영광순복음교회			

회비, 이사회비, 그리고 찬조금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광고를 게재해 본회의 회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전 임원의 감사를 올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 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4조: 사업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뉴 잉글랜드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 잉글랜드 한인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2. 준회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서 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정권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회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라. 헌장 개정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라. 헌장 개정 추천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사. 회비 책정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자. 사업 계획 추천

차. 고문의 추대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전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임원회는 회장단, 이사회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제반 사업 보고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사회와 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총장 1명
4. 재무 1명
5. 대변인 1명
6. 섭외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사무총장, 재무, 대변인 및 섭외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령 서열에 따라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5.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제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6. 섭외는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섭외 활동을 한다.

7.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8.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9.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1.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회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3.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4.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업에 따른 사업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사회나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 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헌장 개정

제21조 본 헌장은 이사회 또는 제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헌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개정

1.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2.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3.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Article I General

Section 1: Name

The organization shall be known a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referred to as the League hereafter).

Section 2: Location

The League shall perform its activities in the New England area and shall have its main headquarters in the greater Boston area.

Section 3: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 (2) to enhance the legal status and benefits of Korean-Americans and to firmly establish Korean-Americans as being among the own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educating them about their rights and duties as American citizens;
- (3) to strengthen relations among Korean-Americans; to

improv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tuses; and to actively work to rectify social injustices;

(4) to help future generations keep their Korean pride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by preserving Korean traditions and transferring them to future generations;

(5)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tion 4: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shall be: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vote and to run for elected positions;

(2) to support politicians who stand for Korean-Americans and Korea;

(3) to lobby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4) to submit petitions and letter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5) to engage in legal activities to protect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6) to undertake projects to protect Korean-American homes, guide Korean-American adolescents, and promote benefits for elderly Korean-Americans.

Section 5: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he League shall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o promote collaboration.

Article II Membership

Section 6: Membership Classes

The League shall be composed of Regular, Associate, and Special members.

Section 7: Membership Eligibility

Any Korean-American U. S. citizen residing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 Regular member. Any Korean-American permanent resident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n Associate member. Any person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who has been recommended by the Executive Body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 may become a Special member.

Section 8: Obligations and Rights of Members

Members shall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League and pay membership dues. All members may vote, but only Regular members may run for elected positions.

Section 9: Suspension and Expuls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suspend or expel from the League any members who have:

- (1)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Bylaws of the League;
- (2)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League;
- (3) have not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League.

Article III Organization

Section 10: Meetings

The League shall hold the following meetings:

(1)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in the October of each year. The General meeting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2) A Speci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within four weeks of when the Board of Directors has deemed it necessary. It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However, if it is not possible to hold such a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3)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hen the Chairperson, President,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Directors deem it necessary.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and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more than one-half of the Board. The Chairperson shall send out a notice of the meeting and its agenda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meeting date. If it not possible to hold the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4)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or one-third of the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request it.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5)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at least twice a year.

Section 11: Meeting Functions

(1)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report of the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s accounts and activities;
- b. report of the following year's budget and plans;
- c. election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if necessary;
- d.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any other item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tudy and plan all proje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General meeting. The Board shall support the President in executing the decisions made at the General meeting. In addition, the Board shall take charge of the following:

- a.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the offices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 b. organization of committees;
- c. approval of Bylaws for committees;
- d.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enactment and amendments to the Bylaws;
- e. admission of new members, including Special members, and suspension and expulsion of members;
- f. determination of membership dues;
- g. approval of drafts for the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 h. recommendation of plans for the coming year;
- i. recommendation of advisors;
- j. introduction of any other items to the General meeting that the Board deems necessary.

(3)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Committee chairs, loc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Body. It shall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and make plans for urgent projects, which shall subsequently be ratified by the Board.

(4)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Executive Body,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It shall study effective methods of executing the items decided upon at the Board meetings, and then it shall be in charge of their execution. It shall also discuss the projects,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to be reported to the General, Board, or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oversee the execution of other necessary items.

(5) In an emergency or necessities, the Presid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Chairperson, may call a join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2: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consist of one President, two Vice Presidents, one Executive Director, one Treasurer, one Spokesperson, and a few Public Relations Officers.

Section 13: Selec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following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a petition signed by more than fif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Treasurer, Spokesperson, and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be nominated from the Regular members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Section 14: Terms for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serve for two years. If one of the members resigns before the term expires, a replacement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The term for such members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Section 15: Duties of the Executive Body

(1)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League,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Board, and be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eague.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preside over the Executive Meeting.

(3) The Vice Presidents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case the President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more senior aged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His or her term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former President's.

(4)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keep all records of meetings and operations,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and report those activities at the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be a paid position.

(5) The Treasurer shall collect membership dues, be in charge of the League's finances, and report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t the General meeting.

(6) The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perform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7) The Spokesperson shall represent and announce the opinions of the League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8) Executive Body members shall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Board.

(9) The Executive Body shall recommend Special Members.

Section 16: Composition of the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fewer than fifty members. There shall be on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two Auditors, chairpersons for the committees, and local representatives.

Section 17: Selection of the Board Members and Their Terms

(1)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o be elected shall be decided at a Board meeting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lected Board members shall serve four year terms and be elected by a majority vote from the following pool of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petitions signed by more than thir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2)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of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two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Board members.

(3) Auditors,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among elected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at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four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a Board members.

Section 18: Duties of the Board Members

(1) The Chairperson shall call and preside over the Board meetings and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If the Chairperson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come the Chairperson.

(3) Board members shall attend the Board meetings, make decisions on the items listed in Article III, Section 11 (2), and perform activities for the pertaining committee.

(4) Board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study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ones listed in Article I, Section 4 and submit plans to the Board or the Standing Committee.

(5)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record and keep the minutes of the meetings.

(6) The Auditors shall audit the accounts of the Leagu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Meeting.

Article IV

Finance

Section 19: Income

Income for the League shall come from membership dues, directors' dues, and othe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of the League.

Section 20: Expenditures

All expenditures of the Leagu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require receipts.

Article V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ection 21

At the written proposal of the Board or one-fifth of all members, the Constitution may be amend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nd with the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Appendix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it is adopt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2. The terms of the present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as of 1996 shall serve their remaining terms.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1997년 10월 25일 현재)

List of Officers

(As of Oct. 25, 1997)

			Home Tel #	Office Tel #	Fax #
회장	김양길	<u>President</u> Kim, Yangkil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978) 691-5108	O:(978) 623-2103	H:(978) 687-8942 O:(978) 623-2603
부회장	최홍균	<u>Vice President</u> Choi, Hong Kyun (Ph.D.)	11 Bartkus Farm Rd., Concord, MA 01742 H:(978) 369-0351	O:(781) 981-4457	H:(508) 371-1217 O:(781) 981-0122
부회장	조봉준	<u>Vice President</u> Cho, Bong June	10 Endicott Rd., Andover, MA 01810 H:(978) 475-2317	O:(978) 535-6936	F:(978) 475-2317
사무총장	김명기	<u>Executive Director</u> Kim, Michael Myungki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603) 659-6129	O:(603) 659-4845	H:(603) 659-5488 O:(603) 659-5488
재무	이현주	<u>Treasurer</u> Yi, Hyon C.	199 Johnny Appleseed Lane, Leominster, MA 01453 H:(978) 840-3651	O:(781) 944-2442	F:(781) 944-2772
대변인	함성기	<u>Spokesperson</u> Steve Ham	51 Congress St. Apt.#3, Nashua, NH 03062 H:(603) 881-9587	O:(603) 595-4777	O:(603) 595-9777

이사장	이문열	<u>Chairperson</u> Lee, Moon Yeal	1634 Bluehill Ave., Mattapan, MA 02126 H:(617) 327-9714	O:(617) 298-1185	O:(617) 298-1185
부이사장	박대위	<u>Vice Chairperson</u> Park, David	107 Scotland St., Hingham, MA 02043 H:(781) 740-1286	O:(781) 740-8032	F:(781) 740-8032
감사	정수일	<u>Auditor</u> Chung, Sooil	15 Locker St., Wayland, MA 01778 H:(508) 655-2067	O:(508) 875-9111	
감사	최영훈	<u>Auditor</u> Choi, Yung Hoon	37 Woodpark Circle, Lexington, MA 02173 H:(781) 861-6068	O:(603) 884-2295	O:(603) 884-0120
고문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자동 추대)				

유권자 등록 추진 위원회 REGISTRATION & CAMPAIGN COMMITTEE

고문	김은한	<u>Advisor</u> Kim, Eun Han (M.D.)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173 H:(781) 861-0437	O:(617) 665-8912	F:(781) 861-0437
위원장	최낙철	<u>Chairperson, Committee</u> Choi, Steve	12 Springdale Rd., Lexington, MA 02173 H:(781) 860-9426	O:(617) 878-7015	
위원	박필수	<u>Member, Committee</u> Park, Phil S.	22 Maplewood Ave., Tyngsboro, MA 01879 H:(978) 649-6595	O:(978) 649-4177	
위원	김명성	<u>Member, Committee</u> Kim, Matthew	23 Watson Lane, Hampton, NH 03842 H:(603) 926-3411	O:	F:(603) 929-4234
위원	김영하	<u>Member, Committee</u> Kim, Young Ha	1011 Centre Street, Newton, MA 02159 H:(617) 527-3456	O:(617) 442-1616	

기금 모금 위원회 FUND RAISING COMMITTEE

고문	박석만	<u>Advisor</u> Park, Suk Man	18 Olde Berry Rd., Andover, MA 01810 H:(978) 475-8627	O:(508) 686-9546	F:(508) 687-6255
위원장	정석호	<u>Chairperson, Committee</u> Chung, Paul S.	65 Broadway St., Newton, MA 02160 H:(617)928-1023	O:(800) 473-1922	F:(617)267-5009
위원	김기석	<u>Member, Committee</u> Kim, Kisuk	1 Terrace Rd., Weston, MA 02193 H:(781) 899-3453	O:(617) 576-6840	
위원	안병학	<u>Member, Committee</u> An, Byung Hak	50 North St., Andover, MA 01810 H:(978) 689-9546	O:(978) 749-9904	F:(978) 749-9904
위원	이경해	<u>Member, Committee</u> Dong, Kay	239 Fremont St., Taunton, MA 02780 H:(508) 824-4080	O:(800) 867-9000	F:(508) 828-1585

홍보/출판 위원회 COMMUNICATIONS & PUBLICATION COMMITTEE

고문	박경민	<u>Advisor</u> Park, Kyung Min (M.D.,Ph.D.)	41 Laxfield Road, Weston, MA 02193 H:(781) 899-5009	O:(508) 879-7111	O:(508) 875-1297
----	-----	--	--	------------------	------------------

위원장	김명기	<u>Chairperson, Committee</u> Kim, Michael Myungki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603) 659-6129 O:(603) 659-4845	H:(603) 659-5488 O:(603) 659-5488
위원	박경원	<u>Member, Committee</u> Park, Kyung Won (M.D.)	127 Ridge St., Winchester, MA 01890 H:(781) 721-1260 O:(617) 667-3112	F:(617) 667-5013
위원	김연숙	<u>Member, Committee</u> Corkum, Yon K. (C.F.P.)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301, Braintree, MA 02184 H:(781) 821-5825 O:(781) 849-0980 x172	O:(781) 848-3617
위원	이의인	<u>Member, Committee</u> Lee, Eui In (ph.D.)	7 Goffe Rd., Lexington, MA 02173 H:(781) 862-5270 O:(781) 981-4544	H:(781) 862-2636 O:(781) 981-7830

정치 활동 위원회 POLITICAL ACTION COMMITTEE

고문	김일평	<u>Advisor</u> Kim, Il-Pyong (Ph.D.)	61 Hillyndale Rd., Storrs, CT 06268 H:(860) 429-2428 O:(860) 486-3456	
위원장	김성인	<u>Chairperson, Committee</u> Kim, Sung In	6 Zambom Terrace, Andover, MA 01810 H:(978) 738-0034 O:(617) 737-3243	O:(617) 338-1280
위원	김기자	<u>Member, Committee</u> Kim, Kija	23 Wright Farm, Concord, MA 01742 H:(978) 973-9080 O:(617) 354-0100 x212	F:(617) 868-6855
위원	이강필	<u>Member, Committee</u> Lee, Kang Pil (ph.D.)	Aspen Systems Inc., 184 Cedar Hill St., Marlboro, MA 01752 H:(508) 443-7647 O:(508) 481-5058 x11	F:(508) 480-0328

이세 지원 위원회 SECOND GENERATION SUPPORT COMMITTEE

고문	김 철	<u>Advisor</u> Kim, Joseph Chul (M.D.)	8 Fresh Pond Lane, Cambridge, MA 02138 H:(617) 661-0761 O:(617) 246-4333	
고문	이재신	<u>Advisor</u> Lee, Jay	141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H:(508) 923-0031 O:(617)	
위원장	한석훈	<u>Chairperson, Committee</u> Han, Kenneth S. (Esq.)	165-U. New.Boston St. Suite 289, Woburn, MA 01801 H:(781) 272-7692 O:(617) 935-4620	F:(617) 935-4187
위원	진동호	<u>Member, Committee</u> Jin, Donald	27 Antone Drive, Norton, MA 02766 H:(508) 226-3116 O:(401) 884-6300	F:(401) 884-5276
위원	이지훈	<u>Member, Committee</u> Gary G. Yi	38 Eastern Ave., Malden, MA 02148 H:(781) 322-6417 O:(781) 324-7765	O:(781) 324-7756
위원	방선옥	<u>Member, Committee</u> Gregory Pang	431 Bay Rd., Easton, MA 02375 H:(508) 230-2757 O:(617) 239-8420	F:(617) 235-8506

국적 위원회 NATIONALITY COMMITTEE

고문	백 린	<u>Advisor</u> Paik, Lin	6 Edwin Street, Brookline, MA 02146 H:(617) 734-9178	
위원장	고일석	<u>Chairperson, Committee</u> Koh, David I.	5 Cityview Circle, N. Providence, RI 02911 H:(401) 353-6180 O:(401) 944-1110	F:(401) 944-1106
위원	신상철	<u>Member, Committee</u> Shin, Sang Chul	5 Dewey Rd., Lexington, MA 02173 H:(781) 862-0512 O:(508) 442-0531	

대외 협력 위원회 COMMUNITY LIAISON COMMITTEE

고문	김문소	<u>Chairperson</u> Kim, Moon So (D.V.M.)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H:(978) 475-3534 O:(978) 851-3626	H:(978) 470-3232 O:(978) 851-6408
위원장	박경수	<u>Chairperson, Committee</u> Park, David KyungSu (Esq.)	15 Lyme Road, Newton, MA 02165 H:(617) 964-1140 O:(617) 973-3536	
위원	노명호	<u>Member, Committee</u> Lowe, Myeong Ho	325 Western Ave., Lynn, MA 01904 H:(781) 641-4588 O:(617) 648-4783	
위원	제시카 리	<u>Member, Committee</u> Jessica Lee	298 Ocean Ave., Marblehead, MA 01945 H:(781) 639-1847 O:(617) 639-1847	

인권 옹호 위원회 CIVIL RIGHTS COMMITTEE

고문 전주서 Advisor 75-83 Cambridge Pkwy PH-5, Cambridge, MA 02142
 Chun, Chu Suh H:(617) 621-1696 O:(617)
 위원장 정용훈 Chairperson, Committee 80 Central St., Andover, MA 01810
 Jung, Yoang Hoon (Esq.) H:(978) 475-3124 O:(617) 727-9305 x202
 위원 임병규 Member, Committee 24 Thomas Dr., Reading, MA 01867
 Lim, Byoung Kyu H:(781) 942-0624 O:(617) 664-5527

시민권 취득 안내 위원회 CITIZENSHIP COMMITTEE

고문 전중현 Advisor 37 Autran Ave., N. Andover, MA 01845
 Chun, Walter C. (Ph.D.) H:(978) 689-3990 O:(978) 470-0621 F:(978) 470-1998
 위원장 김성균 Chairperson, Committee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Kim, Song-Kun (Esq.) H:(617) 825-1115 O:(617) 482-1300 F:(617) 482-3344
 위원 김한수 Member, Committee 26 Reeves Rd., Bedford, MA 01730
 Kim, Hansoo H:(781) 275-2409 O:(617) 499-1433 F:(617) 864-1293
 위원 이동익 Member, Committee 26 Rockyhill Road, Andover, MA 01810
 Lee, Dongik H:(978) 470-1793 O:(978) 470-4793 F:(978) 470-8232

지역 간사 REGIONAL REPRESENTATTIVES

RI주 이천각 Rhode Island Rep. 46 Beechwood Dr., Cranston, RI 02921
 Lee, Chun Kak (M.D.) H:(401) 823-8343 O:(401) 785-2660
 RI주 한서동 Rhode Island Rep. 73 Sayles Ave., Pawtucket, RI 02908
 Han, Suh Dong (M.D.) H:(401) 723-7796 O:(401) 722-0305 F:(401) 726-4720
 NH주 한윤영 New Hampshire Rep. 15 Cindy Ave., Salem, NH 03079
 Han, Yun Young H:(603) 893-6373 O:(603) 622-8883
 NH주 오수택 New Hampshire Rep. 3 Stone Post Rd., Salem, NH 03079
 Oh, Steve H:(603) 898-6576 O:(603) 434-8399
 ME주 채도경 Maine Rep. 3 Tallwood Road, Augusta, ME 04330
 Chai, Dou Kyung (M.D.) H:(207) 622-9757 O:(207) 623-3515 F:(207) 626-9277
 CT주 이상원 Connecticut Rep. 99 Pigeon Rd., Willimantic, CT 06226
 Lee, John Sangwon (M.D.) H:(860) 456-4347 O:(860) 456-1132

임기 년한별 이사 구분

2001년도	2000년도	99년도	98년도	당연직 이사(회장단)
박필수 김기석	*최낙철 김성인	이정현	*김명기	김양길('98)
임병규 김한수	*정수일 박경원	방선욱	*고일석	최홍균('98)
김명성 이지훈	김기자 김연숙	안병학	*정용훈	조봉준('98)
이의인 김영하	*한석훈 노명호	이문열	*박경수	이현주('98)
신상철	*김성균 이동익	(이사장)	제시카 리	김명기('98)
	이경해 진동호		이강필	함성기('98)
	*최영훈 윤익중		박대위	
	*정석호		(부이사장)	

-이름 앞에 *표는 96년도 신입 감사 또는 신입 분과위원장으로 임기는 2000년임(단, 정용훈위원장은 유임으로 99년, 김명기위원장은 유임으로 98년임). 김성인위원장은 97년도 신입으로 2001년.

- 지역간사 임기: 2000년-이천각, 채도경, 이상원 2001년- 한윤영, 오수택, 한서동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재무 보고서

재무 이현주

Financial Report

Hyon C. Yi, Treasurer

회계 기간 : 9/19/96-10/15/97

BALANCE SHEETS

ASSETS	
CURRENT ASSETS	
Cash	\$4,402.02
Equipment	\$3,210.80
TOTAL ASSETS	\$7,612.82
LIABILITIES AND FUND BALANCE	
CURRENT LIABILITIES	
Account Payable	\$0.00
TOTAL LIABILITIES	\$0.00
FUND BAL.-BEGINNING	\$7,413.86
NET INCREASE(DECREASE)	\$198.96
FUND BALANCE-ENDING	\$7,612.82
TOTAL LIAB. & FUND BAL.	\$7,612.82

CASH DISBURSEMENTS:

Advertising	\$1,325.00	Gratuity/Speaker	\$150.00
Bank Charges	\$106.65	Office Expenses	\$757.22
Commission	\$4,000.00	Postage	\$499.00
Licenses & Fees	\$539.00	Printing	\$7,872.00
Travel	\$1,192.50	Repair/Maintenance	\$290.02
Miscellaneous	\$741.27		
Total Expenses			\$17,472.66
Total Income (See Below)			\$17,671.62
NET INCOME			\$198.96

년도별 입금 내역

회계 년도	8/31/91	9/30/92	10/31/93	9/17/94	9/19/95	9/18/96	10/15/97
회비	\$1,660.00	\$420.00	\$740.00	\$450.00	\$900.00	\$1,140.00	\$820.00
이사회비	\$1,600.00	\$500.00	\$1,300.00	\$1,500.00	\$2,500.00	\$2,200.00	\$2,200.00
찬조 및 기타	\$640.00	\$720.00	\$615.00	\$1,000.00	\$1,704.18	\$3,060.00	\$1,210.00
광고 후원		\$2,400.00	\$750.00	\$1,500.00	\$2,270.00	\$3,750.00	\$12,700.00
은행이자				\$17.33	\$40.04	\$52.28	\$51.62
기타						\$11,022.00	\$690.00
합계	\$3,900.00	\$4,040.00	\$3,405.00	\$4,467.33	\$7,414.22	\$21,224.28	\$17,671.62

('96 기타 내역: 시민권 \$6,802.00 AAUD \$595.00 기금모금 \$3,625.00)

편집 후기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정성들여 한해 한해를 매듭짓는 회지를 낸지 벌써 일곱번째. 한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할 수 없듯이, 지난 7년간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충성되어 봉사해온 김명기 편집위원장님 (동시에 사무총장으로도 수고하심)의 일편단심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뛰어난 편집 능력에 힘입어 오늘 또 제7호 회지를 탄생시킬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 더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영문 번역과 교정 및 협회 살림에 맡기지 않고 계시는 최홍균 부회장님, 특히 시민권 교육과 협회지 광고를 위해 열성을 다하신 김양길 회장님과 정석호 이사님 및 박경원 이사님 등 여러 이사님들, 특별히 편집위원회의 힘을 돕기 위해 흔쾌히 고문직을 허락해 주신 박경민 편집 고문님, 매년 광고를 통해 재정적 큰 도움을 주시는 여러 단체 및 업소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은 작년에 이어 시민권 교육과 취득에 중점을 두어, 지난 3월 29일에 북부 보스턴 연합 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시민권 취득 교육 및 서류 작성을 위한 워크샵에서 78명이 참가 등록하여 61명이 N-400 작성을 완결했고, 이를 계기로 「시민권 취득 종합 안내서(50면)」를 1,000부 발간하여 한인 각 종교 단체 및 업소에 배부한 바 있으며, 이제 또 10월 총회를 기해 협회지를 3,000부 발간하여 우리 한인 시민권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매개체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3,000명의 한인 시민권자들이 시민협회에 가입하여 우리의 힘을 미국 사회에 뚜렷이 과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길 염원합니다. (전임 이사장 김문소)

교회 및 업소 전화번호 (일출진 업체는 본 회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지원하신 업체입니다. 광고를 보아주십시오.)

Allston TV	617-787-1667	Allston	미나토스시	617-731-6700	Brookline	우리보석	617-338-2799	Boston
Always Hair	781-932-8935	Woburn	미림식품	617-783-2626	Allston	우리식품점	973-772-1772	Ayer
Benefit Solutions	781-324-7765	Malden	미스타스시	617-731-1122	Brookline	우정식당	978-772-5742	Ayer
Cambridge Dental	617-492-8210	Cambridge	박요한변호사	617-762-8980	Cambridge	우촌집	617-623-3313	Somerville
Captain Boston Fish	781-395-8138	Medford	범아여행사	617-482-6237	Boston	은혜교회	781-643-0463	Arlington
Complete Car Care	978-858-0074	Tewksbury	범약해운	978-470-8272	Andover	이경해부동산	508-880-3535	Taunton
Continental Maint.	800-884-9600	Boston	범어사	508-529-3224	Upton	이우보산부인과	508-580-0044	Brockton
Cream'n Puff	617-734-3313	Brookline	보고카페	617-776-8857	Somerville	이정선	781-933-0909	Woburn
Dental Associates	617-471-8161	Quincy	보스틴장로교회	508-478-9705	Newtonvil.	이현주회계사	781-944-2442	Reading
Foreign Motors West	617-237-1212	Ashland	보스튼감리교회	617-629-2322	Somerville	인취식품	508-537-8180	Leominster
H&E Korea	603-659-4845	NH	보스튼뉴프룬교회	617-721-9136	Brookline	일선당	617-787-4503	Allston
KAL 보스튼영업소	617-261-3883	Boston	보스튼산성교회	617-926-2195	Watertown	이나경상담소	617-738-9622	Brookline
Korea House	617-783-7030	Brighton	보스튼보석	617-723-7979	Boston	제이스카페	617-421-9405	Boston
Lee Antiques	781-631-4255	Marblehead	보스튼사방의교회	781-661-7532	Wellesley	제이스카페	617-497-8380	Cambridge
Lee Auto Service	781-273-0060	Burlington	보스튼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Weston	진노래방	617-782-9282	Brighton
Mr. Bug 소독	978-245-3116	Fitchburg	보스튼소망교회	781-647-0190	Waltham	진로소주	508-994-0248	Fairhaven
Narita	617-868-2226	Cambridge	보스튼시온성교회	781-251-0164	Bedford	진미식품	617-964-2668	Newton
New Life Church	781-449-6635	Needham	보스튼예수계림교회	781-279-9049	Stoneham	진비디오	617-782-9282	Brighton
Park's Autobody	978-686-9546	Lawrence	보스튼중앙교회	617-731-4381	Newton	찰스 허치과	781-861-8978	Lexington
Prudential Security	617-239-8420	Wellesley	보스튼총영사관	617-348-3660	Boston	정계종합식품	978-772-5213	Ayer
P.S.I.	617-547-0211	Cambridge	보스튼클럽시	617-783-1234	Allston	초이스간판	781-229-1888	Burlington
Reading Cleaner	617-944-9699	Reading	보스튼루테이	781-599-2799	Lynn	최석희	781-665-9277	Milrose
Sun Auto Repair	617-638-1589	Somerville	보스튼한국유학원	617-783-1323	Allston	갈라분식	617-787-5656	Allston
Tewksbury 동물병원	508-851-3626	Tewksbury	보스튼한국가리교회	617-254-5746	Somerville	케이브리지장로교회	781-547-5389	Arlington
가드하우스	978-691-5448	Lawrence	보스튼한국교회	617-469-4289	Brookline	케이브리지제일교회	508-584-1680	Cambridge
가야식당	617-236-5858	Dracut	보스튼한국천주교회	617-244-9685	Waban	케이브리지한인교회	617-491-0855	Cambridge
샬시인사부인과	978-957-4660	Dracut	북부보스튼감리교회	978-470-0621	Andover	코리아나	617-576-8661	Cambridge
갈보리교회	413-789-9888	Pedding	사라식당	603-624-0770	Goffstown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Boston
강승은변호사	617-737-3000	Boston	세빛미용실	617-734-7309	Brookline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Quincy
고려원	617-492-9643	Boston	세생명교회	617-787-1868	Brighton	퓨존레스토랑	617-247-2111	Boston
고향식당	617-623-7220	Somerville	서울식당	617-244-6483	Newton	태양자동차공업사	617-628-1589	Somerville
꽃개노한의원	617-661-1961	Cambridge	서울식품	603-626-1334	Marcheste	하나스시	617-868-2121	Cambridge
국제보석	617-523-2553	Boston	성요한가리교회	781-275-7880	Lexington	한상카페	617-739-6221	Brookline
그린소주	617-436-0899	Dorchester	소라화장품	617-566-5106	Brookline	한국식품	617-623-9620	Somerville
기녀미용실	781-593-4292	Lynn	송옥식당	617-491-5091	Cambridge	한국의료원	781-388-4158	Malden
김머리방	617-739-1067	Brookline	순복음보스튼교회	617-628-9526	Somerville	한국이발관	617-278-0275	Brookline
김성균변호사	617-482-1300	Boston	스프링필드장로교회	413-798-4522	Agawam	한국일보	617-713-0010	Allston
김양일회계사	617-491-4959	Cambridge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3-6636	Springfield	한미옥	617-783-2090	Brighton
김연숙종합부동산	617-849-0980	Ext.172	시온교회	413-772-6926	Millers	한빛교회	781-641-2106	Arlington
김창근회계사	781-935-4620	Woburn	신라식당	617-547-7971	Cambridge	한석후변호사	781-935-4620	Woburn
까치비디오, 만화	617-782-8874	Allston	신신식품	978-686-0813	Lawrence	한우애 교정치과	781-862-0930	Lexington
나라식당	617-338-5935	Boston	신영목치과	617-265-5606	Boston	한이름식품	617-547-8723	Cambridge
내수이한마음장보	603-888-8040	Nashua	쌍둥이네식품	508-798-2547	Worcester	한인종합보험	617-734-7998	Brookline
농장식품	617-232-0800	Brookline	쌍둥이레스토랑	508-798-2547	Worcester	한인천주교회	617-244-0520	Newton
누가야	617-497-5656	Cambridge	이리당하우스	617-536-1277	Boston	헤어보트	617-523-5353	W. Boston
뉴욕식품	617-868-9850	Cambridge	이시이나그릴	781-646-2766	Arlington	휘인복회계사	617-254-1226	Brighton
뉴장수칼비	781-272-3787	Burlington	안디옥교회	508-534-3394	Leominster	현재역진	978-975-3303	Methuen
다인	781-860-0171	Lexington	에비뉴엑스	617-666-2901	Somerville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Allston	에어웨이브	617-324-9255	Cambridge			
동양한방원	617-737-6100	Brookline	엘허스트장로교회	413-649-0604	Amherst	뉴잉글랜드계인협회	978-749-9904	Andover
로드아일랜드중앙교회	401-885-9418	RI	영광순복음교회	978-681-8436	Wilmington	과학기술자협회	401-846-2906	RI
롯데식품	617-661-1194	Cambridge	영리 미니쉬 변호사	617-367-4949	Boston	병화통일자문위원회	978-474-4780	Andover
리플부산	978-897-5107	Maynard	영빈가든	617-367-8360	Boston	뉴잉글랜드한인회	508-473-8310	Milford
마라톤컴퓨터	508-872-8649	Framingh.	연수옥	508-879-9533	Framingh	서울대학교동창회	781-899-5009	Weston
문수사	781-224-0670	Wakefield	오리엔트여행사	781-665-0004	Melrose	드라이클리너협회	781-648-4783	Lynn
물레방아	617-423-3848	Boston	요코하마	781-689-4047	Lawrence	시민협회 학라인	603-659-6732	NH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Renewal(갱신 또는 년 회비 납부)() New(신규) ()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직장 전화: () _____ 정당:Independent() Republican() Democratic()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직장 전화: () _____ 정당:Independent() Republican() Democratic()

주소 :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ounty) _____ 집 전화:() _____

소속 교회 혹은 기관 : _____

위 본인은 협회 헌장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서명 _____ 서명 _____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귀하

년회비 (Membership Yearly Dues) : 1인당 \$10.- \$ _____

이사회비 (Officers Yearly Dues) : 1인당 \$100.-이상 \$ _____

찬조비 (Other Contribution) : \$ _____ 총계 (Total) : \$ _____

수표 작성, Payable to : KACL

Mailing Addres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Yangkil Kim (회장 김양길, Tel.508-691-5108)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알리는 말씀

시민협회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미리 갖추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영문이력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ailing Addres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Yangkil Kim (회장 김양길, Tel.508-691-5108)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Renewal(갱신 또는 년 회비 납부)() New(신규) ()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직장 전화: () _____ 정당:Independent() Republican() Democratic()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직장 전화: () _____ 정당:Independent() Republican() Democratic()

주소 :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ounty) _____ 집 전화:() _____

소속 교회 혹은 기관 : _____

위 본인은 협회 헌장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서명 _____ 서명 _____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귀하

년회비 (Membership Yearly Dues) : 1인당 \$10.- \$ _____
이사회비(Officers Yearly Dues) : 1인당 \$100.-이상 \$ _____
찬조비 (Other Contribution) : \$ _____ 총계 (Total):\$ _____
수표 작성, Payable to : KA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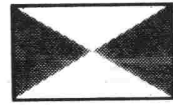
Mailing Addres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Yangkil Kim (회장 김양길, Tel.508-691-5108)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알리는 말씀

시민협회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미리 갖추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영문이력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ailing Addres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Yangkil Kim (회장 김양길, Tel.508-691-5108)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한국일보 보스턴 지국



보스턴 **한국일보**

한국일보의 문은 여러분들을 위해
1년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Tel:(617) 713-0010 Fax:(617) 739-0464
1140 Commonwealth Ave. #B, Boston, MA 02134
지국장 조성구

와싱턴 - 보스턴 투데이 Washington Today in Boston

뉴잉글랜드 교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

1990 - 1997
시민협회의 창립 7주년을 축하합니다.

Tel:(781) 599-2799 Fax:(781) 599-2872
24 Market Square, Lynn, MA 01905
보스턴 투데이 지사장 서효원



TEWKSBURY ANIMAL HOSPITAL

1098 MAIN ST. TEWKSBURY, MASS. 01876
TEL: (508) 851-3626 / FAX (508) 851-6408

HOURS: MON. TUE. THURS.
9-12 NOON 4-7 P.M.
FRI. 9-12 NOON 4-6 P.M.
SAT. 9-12 NOON ONLY

김문소

DR. MOON S. KIM
& ASSOCIATES

김성군

SONG K. KIM
ATTORNEY AT LAW

TEL: (617) 482-1300
FAX: (617) 482-3344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IMPORT/EXPORT



H&E Korea

Michael M. Kim (김명기)
President

2 Lamprey Lane
Lee, NH 03824-6552 U.S.A.
Tel. (603)659-4845, 6732, 6129
Fax. (603)659-5488
e-mail HNEKorea@aol.com

Prudential Securities 

Gregory S. Pang
Financial Advisor
방선욱

Prudential Securities Incorporated
60 Walnut Street, Wellesley, MA 02181
617 239-8420 800 225-9184 Fax 617 235-8506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신영목 치과



FRANK Y. SHIN, D.M.D.

1428 Dorchester Avenue
Boston, Massachusetts 02122

Telephone: (617) 265-5606

이운로 산부인과

Uhun R. Lee, M.D.
Practice in Obstetrics & Gynecology

Telephone
580-0044

45 Pearl Street
Brockton, MA 02401

광개토 한의원
한의학박사 김명철



Myung C. Kim
D.O.M.
Lic. Acupuncturist
Lic. Herbalist

CAMBRIDGE
2302 Mass Ave.
Cambridge, MA 02140
Tel. (617) 661-1961
Fax (617) 868-3870

TEWKSBURY
1501 Main Street
Unit 52, 2nd Floor
Tewksbury, MA 01876
Tel. (508) 851-9277

K. David Kang, M.D., FACOG
강길원 산부인과
Obstetrician and Gynecologist

Tel. (978) 957-4660
505 Nashua Road., Dracut, MA 01826

임나경 상담소

Nakyung Im

LICSW, ACSW, BCD
Licensed Psychotherapist

308A Harvard St.
Brookline, MA 02146
Phone: (617)738-9622
Fax: (617)739-9035

110 W. Squantum St. Ste 20
N. Quincy, MA 02171
Phone: (617)472-5428
Fax: (617)847-4450



Continental
Maintenance
of New England
Inc.

Paul S. Chang
Vice President

The Schrafft Center
529 Main Street • Box #3
Boston, MA 02129

Tel. (800) 884-9000
Fax. (617) 248-5826
Pager (617) 486-9606

☎ (617) 944-9699

READING CLEANER & TAILORING

Quality & Service

서해수
SUH, HAI-SUE

525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Financial
Advisors**

**Advanced
Advisor
Group**

Yon Kim Corkum, CFP 김연숙
Certified Financial Planner
Senior Financial Advisor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Inc.
IDS Life Insurance Company

Suite 301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P.O. Box 9154
Braintree, MA 02184

Bus: 617.849.0980 Ext. 172
Bus: 617.821.5825 Fax: 617.848.3617



KOREA TRAVEL & TOURS

코리아 여행사

ORIENT TRAVEL SPECIALIST

Esther J. Chung (에스더 정)

Boston Office

Tel. (617) 267-7777

Fax. (617) 267-5009

650 Beacon St. Rm. 205, Boston, MA 02115



GARY G. YI
Financial Consultant
이지훈

BENEFIT SOLUTIONS
"The Velocity of Money"

38 Eastern Ave.
Malden, MA 02148

Tel. (781) 324-7765
Fax. (781) 324-7756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하오며, 회지 7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수택
한윤영

김 섭
이문봉

뉴잉글랜드 경제인 협회

2 Railroad St., Andover, MA 01810
Tel.:(978) 749-9904

회장: 안병학 (978) 749-9904
이사장: 한윤영 (603) 622-8883
부이사장: 김영기 (978) 975-0385

고문: 인준식, 김 섭, 김수환, 신고희, 오수택, 이문봉,
정수일, 구좌삼

부회장: 김성군
재무: 현인복
문화: 장병준, 이승주

사무총장: 김성환
정보: 최 순
섭외: 김종호

시민협회의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0 - 1997 창립 7주년

재미 한국 과학 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The Korean American Scientist & Engineers Association
New England Chapter 1997-1998 (26th Term)
30 Lock Lane, Portsmouth, RI 02871 Tel.:(401)846-2906

회장: 조차희	차기 회장: 신상철	총무: 고재상
섭외: 오순신	전기/전자: 신상철	재무: 이종오
학생: 김순범	생명과학: 권호정	편집: 현덕환
토목: 최동호	섬유: 이충시	화학: 이진규
조직: 장학중		
고문: 강경식, 김정완, 김정선, 김용구, 김 영, 이희규, 이강원 이기용, 신재균		
감사: 변창윤, 도운희		

시민협회의 발전과 회지 7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민주 평화 통일 자문 위원회 보스톤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Boston (New England) Area Council (8th Term)

101 Lovejoy Rd., Andover, MA 01810

Tel.:(978) 474-4780 Fax.:(978) 474-6447

보스톤 지역 협의회 회장: 남궁연

위원: 강경식, 김성인, 김수환, 김양길, 김인수, 김정완
김창덕, 신고희, 안창수, 이문봉, 이의철, 이천각
임원준, 정세련, 정수일, 조남규, 조봉준, 채도경
최승훈, 최흥균, 한운영, 홍성도

1990년 - 1997년

시민협회 회지 제7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Rte. 109, Medway St., Milford, MA 01757

Tel.:(508) 473-8310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New England
41 Laxfield Rd., Weston, MA 02193
Tel.:(781) 899-5009 Fax.:(508) 875-1275

회장: 박경민

총무간사: 권이덕

재무간사: 김성열

기획간사: 김문소

홍보/출판: 이의인

섭외간사: 최영훈

체육간사: 온기철

학생간사: 남윤석

이사: 강경식, 강길원, 고일석, 김종성, 김은한, 도운희, 박영철
박태영, 성낙호, 신정수, 윤상래, 윤충남, 옥인걸, 이이순
이향숙, 인준식, 채영석, 최찬혁, 최홍균

감사: 김재호, 김호영

시민협회의 제7차 정기 총회를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드라이클리너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325 Western Ave., Lynn, MA 01904 Tel.:(781) 648-4783

회장: 노명호 (781) 648-4783
부회장: 윤익증 (508) 689-3122
부회장: 김경무 (617) 254-9576
이사장: 이문봉 (508) 485-9077
사무총장: 이태경 (508) 485-5592
재무, 서기: 최동인 (781) 942-1575



시민협회의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김연숙 종합 투자 상담



Yon Kim Corkum, CFP, CMFC
Advanced Planner Group
Master Financial Advisor
(781) 849-0980

자격증

-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 Chartered Mutual Fund Consultant (CMFC)
- * Series 7 증권 브로커 자격증 보유
- * Series 63 매사추세츠주 증권 법률 자격증 보유
- * Series 65 연방정부 단일 투자 상담가 자격증 보유

등록증

-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inancial Planning

투자	❖ Stock	❖ Bond	❖ Mutual Fund
	❖ Annuity	❖ Tax Credit	❖ IRA
	❖ Pension	❖ 401K, 403B	❖ Unit Investment Trust
보험	❖ 생명보험	❖ 학자금 보험	❖ 은퇴보험
	❖ 불능보험	❖ 의료보험	❖ 사립요양원 보험
재정계획	❖ 유산 상속 계획	❖ 은퇴 계획	❖ 자녀 교육 계획
	❖ 사업체 재정 계획	❖ 연금 계획	❖ 세금 절약 계획

현재 미국내 재정 기획 기업 중에서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재정 기획 회사」는 1백 5년의 역사와 1억 50조 달러의 자산을 소유하고 2백만명의 고객을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틀림없는 생활의 안내자인 재정 기획 전문가 김연숙씨를 만나십시오. 당신의 소박한 꿈이 꼭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Inc. IDS Life Insurance Company

Financial Advisors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201, P.O. Box 9154, Braintree, MA 02184
Phone: (781)849-0980 Ext. 172 or (781)821-5825 Fax:(781)848-3617

New Life!

- ◆ Is English your primary language?
- ◆ Do you want to be with other Korean-Americans but also want a church where your non-Korean friends and colleagues can come?
- ◆ Are you in school and want to grow spiritually?
- ◆ Are you looking for a loving church where you can feel at home and raise your children?
- ◆ Do you wish to become involved in the world's largest mission organization?

Come and visit New Life! We are a multi-ethnic church where you can experience dynamic music and clear Biblical message. Come and experience what God has in store for you and your family.

- ◆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십니까?
- ◆ 직장에서 영어권 친구와 신앙 생활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 ◆ 학교의 영어권 친구와 신앙 생활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 ◆ 해외 선교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 ◆ 우리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Principle Pastor:	Rev. John J. Lee	Sunday Worship:	2:30 p.m. Sun.
Associate Pastor (Singles):	Rev. Kevin Howard	Couples' Group Meeting:	7:30 p.m. Wed.
Associate Pastor (Couples):	Rev. Timothy Pintello	Young Adults Group Meeting:	8:00 p.m. Fri.
Music Minister:	Mr. Steve Turley	College Group Meeting:	8:00 p.m. Fri.
Children's Minister:	Mrs. Timothy Pintello	Children's Sunday School:	2:30 p.m. Sun.
Family Care Minister:	Ms. Sarah S. Lee	Prayer Ministry:	1:30 p.m. Sun.

New Life Fellowship Church

754 Greendale Avenue
Needham, MA 02192

Tel: (781) 449-6635; 449-4000 Fax: (781) 444-7952
E-mail: TheNewLife@aol.com

보스톤 문수사

Mun Su Sa Buddhist Temple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Tel. (781) 224-0670, 224-2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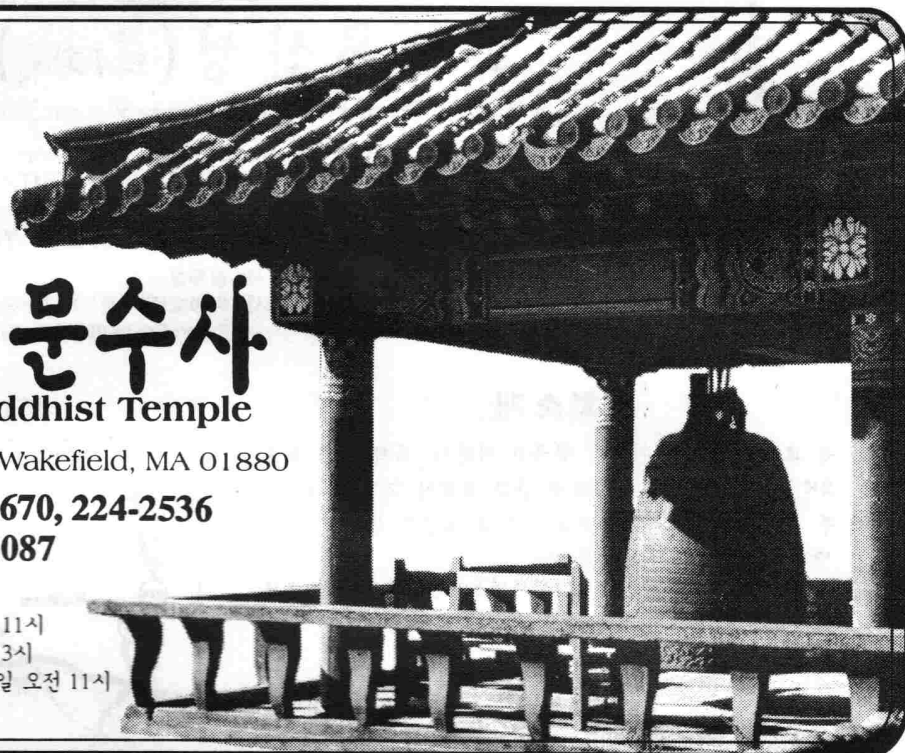
Fax. (781) 224-1087

법회안내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참선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 한글학교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내슈아 한마음 장로 교회

Nashua HanMaUm Korean Church

목표 (행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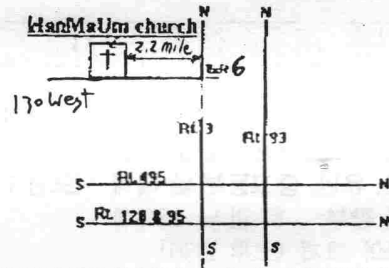
1. 말씀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2.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3.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한마음교회 성구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마음을 품어 (빌 2:2)"

본교회 집회 안내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1:30
금요 성경공부,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8:00
매월 구역 예배	
한마음한글 학교	주일 오후 12:30
유년/중고등부	주일 오후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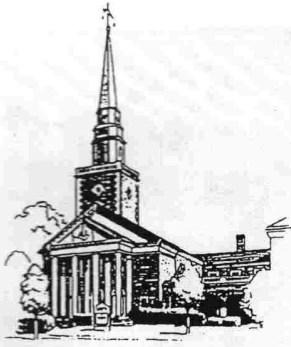
교회 위치

Rt. 3 North로 나오시다가 Exit 6로 나오신 후, Rt. 130 West로
약 2.2마일 오시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박계철 (Rev. Gye Chil Park, Pastor)

교회주소: 555 Broad St., Nashua, NH 03063 (603) 889-4020

목사관: 44 Cadogan Way, Nashua, NH 03063 (603) 888-8040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산성(山城)장로교회

Greater Boston Fortress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1 Mt. Auburn St., Watertown, MA 02172
(617) 926-2195 (교회, Fax) (617) 325-8703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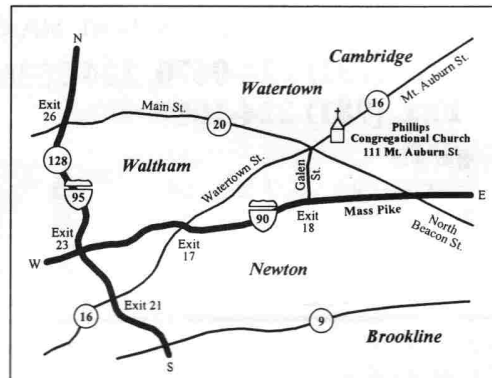
담임목사: 주원열 (Rev. Weon Yeol Chu, Pastor)

협동목사: 방유창
교육 전도사: 양명호(유학생부), 김유경(중고등부),
Polly Crispell(유초등부)

교회소개

- (1) 본 교회는 보스톤 지역의 한국인 이민자, 유학생 및 교포 2세들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안고 설립된 교회입니다.
- (2) 본 교회는 한국 보수 장로교의 신앙 노선과 정치 체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 (3) 본 교회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교회약도



집회안내

주일 대 예배: 주일 오후 2시 주일 낮 성경공부: 주일 오후 1:15
주일 새벽기도회: 주일 새벽 6시 어린이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구별별 성경공부: 금요일 저녁 한글 학교: 토요일 오전 9:30

보스톤 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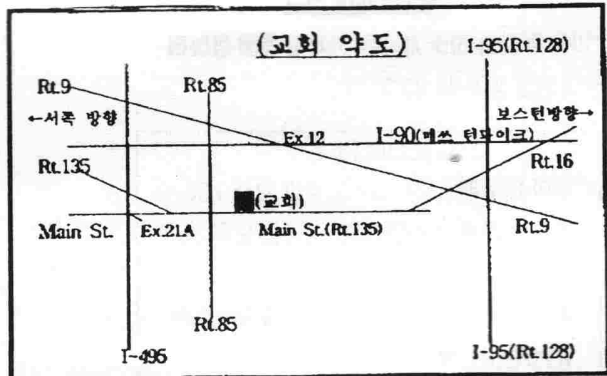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Greater Boston

보스톤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지 22년 제, 역사 깊은 보스톤 세계 마라톤의 출발 지점인 합킨톤 센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지난 9월 5일 하나님께 예배당을 봉헌하고 보스톤과 뉴잉글랜드를 향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20개 이상의 교실과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2세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특히 영생의 문제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교회 집회 안내

- ◆ 매일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30부터 개인적으로)
- ◆ 주일 새벽 기도회 (매주일 오전 6:00)
- ◆ 주일 장년, 유년, 중고등부 낮 예배 (오전 11:00)
- ◆ 주일 성경 공부 (주일 낮 12:30)
- ◆ 주일 성도의 교제 (오후 1:30)
- ◆ 수요일 기도회 (오후 8:00)
- ◆ 중, 고등부 모임 (토요일 오후 7:00)

(교회 약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 장로 교회

2 Main Street, Hopkinton, MA 01748

교회 (508) 435-4579, 팩스 435-5467 목사관 (508) 478-9705

담임목사: 전덕영 전도사: 김성혜(Grace Kim, 유년부) 박성일(Erick Park, 중고등부)

보스톤한인감리교회



상록선교회
(60세이상)
특별활동 몇
나들이여행

집 회 안 내

주일1부예배: 주일오전 8:00 주일2부예배: 주일오후 1:00
 중고등부: 주일오후 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오후 1:00
 성가대 : 주일오전 12:00 새벽성찬기도: 월-금새벽6:00
 속회 : 매주중 회원가정 장년성서공부: 매주일 12:00
 통일전도기도: 매일정오10분 성가대 : 주일오전 12:00
 칠야기도회: 금요일11:30pm 은교우성찬: 매월첫째주일

보스톤감리교회 한국학교

주일 낮 12:00부터 토요일특강및특별활동
 교장: 박에스터 H(617)928-1023 B(617)267-3633

THE KOREAN METHODIST CHURCH OF BOSTON 14 CHAPEL ST. SOMERVILLE, MA. 02144

Directon:

지하철 (T)RED Line, Davis Sq. 에서
 College Ave(서쪽방향)로 200 m 거리,
 왼쪽 석조교회건물.교회입구는 Chapel St.
 (건물측면입구)를 이용하세요

담임목사: 정 인경 협동목사: 김 정수

Tel: (617)254-5746 Fax:(617)782-4095 Bef:1-800-691-2617

장로: 이 인호, 최 창섭, 정 석호, 기획위원장: 이 훈재
 지휘: 신 현중 반주: 정 인숙

보스톤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The Presbyterian Church(U.S.A.)
 Founded in 1953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146
 Tel: 617)739-2663 Fax: 617)739-1366

담임목사: 이영길

(Pastor: Rev. Young Ghil Lee)

목사관: (617) 469-4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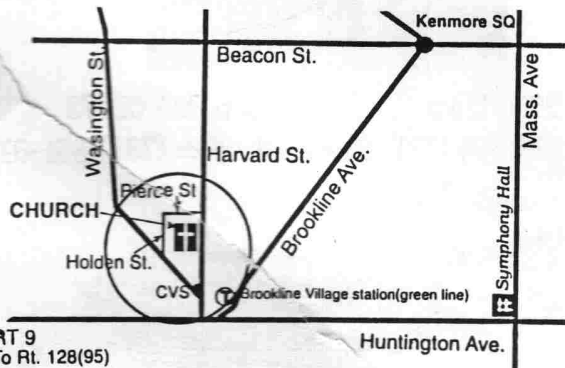
주일예배 안내

주일예배(1부)	오전 9:00- 10:00
(2부)	오전 12:00- 1:00
유년부예배	오전 12:00- 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2:00- 1:00
영어예배	오후 2:00- 3:00

교회학교 성경공부

새신자반	오전 10:30(주일)
장년성경공부	오전 10:30(주일)
수요여성성경공부	오전 10:30(수)
영어예배부	오후 7:30- 9:00(금)
청년부	오후 7:30(금)
대학부	오후 7:30(금)

보스톤 한국학교 오전 9:15- 11:15(주일)



RT 9
 To Rt. 128(95)

Huntington Ave.

*Van Service Available

* Internet: <http://www.kcboston.org>

북부 보스톤 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1. 새 담임목사: 보스톤대학 사회유리 철학박사, 한인교회와 미국인교회의 경험을 가지시고 1996년 7월 부임.
2.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로 찾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 가정, 교보, 이웃이 달라지는 선구적 역할.
3. 인간의 존엄성 회복: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드높혀지는 보람된 삶을 추구.
4. 다양 속의 창조성: 각기 다른 사회 경험의 풍요한 인적 자원을 가진 교회로서, 다양한 사회 전기(Sociobiography) 안에서의 창조성 표출
5. 이민 사회의 보람과 성취: 이제는 한국인의 우수성을 표하는 건설적인 태도와 실생활 속에서의 구현.
6. 이제 교육에 초점: 장래의 소망인 유치부, 유년부, 중 고등, 대학부의 미래를 향한 신앙양교육의 중대성 강조.
7. 한국학교의 한국 문화와 컴퓨터 교육: 무철한 이념과 소명감으로 공헌하시는 김종례 박사가 이끄는 알찬 교육.
8. 자체 교회: 아름다운 예배실을 비롯, 12개의 교실, 운동장, 주차장 등 공간적 여유 구비.
9. 교통 편리: 93번 도로에서 1/2마일, 495번 도로에서 2마일, 128번 도로에서 10분 거리로, 보스톤을 비롯, 각 지역에서 쉽게 오실 수 있음.

모임 안내		
주일예배	영어 예배	오전 9:30
	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공부	성인성경반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00
주일새벽 기도회		오전 6: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수요특별기도회		오후 8:00
금요성경 공부	제자훈련	오후 8:00
속회모임		오후 7:30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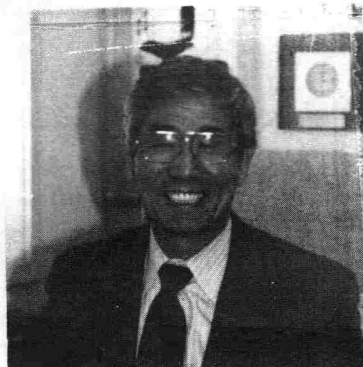


담임목사: 전 중현 (Rev. Walter C. Chun, Ph.D.)
 교회사무실:(978) 470-0621, (978) 470-1998(Fax) 목사관:(978) 689-3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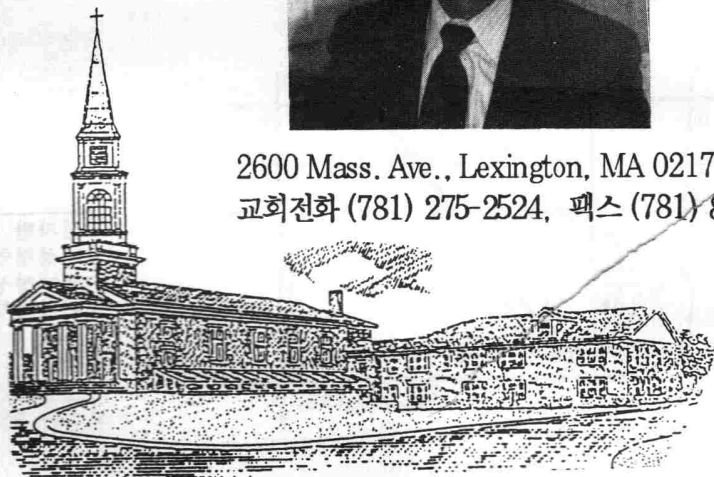
성요한 감리교회

담임목사: 권진태 (781) 275-7880
 영어예배: Joseph Lee (781) 862-9492
 성가지휘: 김호기, 반주자: 이수연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173
 교회전화 (781) 275-2524, 팩스 (781) 861-6931

교회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한국어)	일요일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영어)	일요일	오후 1:45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일요일	새벽 6:00
주일학교	일요일	오전 11:30
성경공부 장년부(한국어)	일요일	오전 10:30
금요일 한국어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대학생부(영어)	금요일	오후 7:30
청년부(영어)	금요일	오후 7:30
중고등부(영어)	토요일	오후 5:30
	일요일	오전 9:00



성령이 충만한 교회! 지혜가 충만한 교회! 정찬이 충만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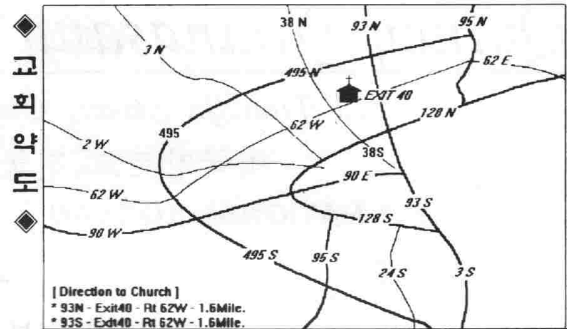


영광 순복음교회

이곳에 귀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받을 주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은혜스런 예배와 깊은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뉴 잉글랜드는 물론 세계 선교에 비전을 가진 영광 순복음교회로 정중히 귀하를 초청합니다.

요일	모임	장소	시간
주일	주일대예배	예배실	오후 1시30분
	유년주일학교	교육관	오후 1시30분
	장년성경공부	예배실	오후 12시45분
	한글학교	교육관	오후 12시45분
	주일새벽기도	예배실	새벽 6시
수요일	구역예배	교구별	오후 7시
금요일	성령대망회	예배실	오후 7시45분
	Y.G.A. 모임	예배실	오후 7시
토요일	영적대각성일	예배실	오후 8시(매월말)

담임목사: 김정대



<교회로 오시는 길>

- * 남쪽에서(보스턴 방향): I 93N (Exit 40) ⇨ Rt.62W ⇨ 정확히 1.6마일 지점 왼쪽에 있는 교회임.
- * 북쪽에서(뉴햄프셔 방향): I 93S (Exit 40) ⇨ Rt.62W ⇨ 정확히 1.6마일 지점 왼쪽에 있는 교회임.

173 Church St., Wilmington, MA 01887

☎ (978) 681-8436(목사관, 팩스) (978) 658-0150(교회)

보스톤 한인 천주 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주임신부: 이정추 (바오로)

주일미사:	주일	오후 4:00
유아세례:	첫주일	미사후
한글학교:	주일	오후 1:30

목요미사:	목요일	오후 7:30
에비지교리:	주일	오후 2:30
주일학교:	주일	오후 2:30

St. Philip NERI Church

1518 Beacon St., Waban, MA 02168

Tel.: (617) 244-9685

<성당 찾아 오시는 방법>

Mass Pike(West)에서 Exit 16(West Newton)으로 나와 Toll Gate를 지나 신호등에서 우회전.
 10분 정도 계속 직진하다가 Beacon St.에서 좌회전 한후,
 5분 정도 더 가면 왼쪽으로 성당이 보임(Church St. 바로 전).
 전철 이용시 녹색 D 라인을 타고 Waban에서 내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보임.



담임목사 : 강 준 모

전화: (617)770-2755

PRESBYTERIAN CHURCH (USA)

퀸지 영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270 Franklin Street, Quincy, Massachusetts 02169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 협의회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

예배 시간

교회학교

퀸지 한국학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 기도회: 토요일 새벽 6:00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후 1:00
유치, 유년부: 주일 오후 2:00
중등, 고등부: 주일 오후 2:00
청년부: 금요일 오후 7:00
장년지도자 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8:00

주일 낮 12:30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www.FirstKoreanChurch.org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자라는 신앙 공동체

A Community of Faith Growth in Love and Hope

담임 목사 김태환 (Rev. Tae Whan Kim, Pastor)

e-mail: taekim@FirstKoreanChurch.org

35 Magazine St., Cambridge, MA 02139

617.491.1474 (Church) 617.491.0855 (Residence)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1978년 10월 몇사람의 뜻있는 신앙인들이 모여 한국은 물론 세계에 이바지할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비전을 나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교단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미국 교단으로 미국 내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메사추세츠 최대의 개신교 교단이며, 종교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 온 청교도들이 세운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가 모체가 되어 같은 정신을 가진 개혁교단들이 연합한 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파간의 연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주에서 한인교회로서는 유일하게 U.C.C. 교단에 속해 있는 본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2년에 현재의 교회 건물과 목사관을 구입하여 자체 교회를 갖게 되어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교육관을 준공하여 주일학교(주일)와 한국학교(토요일), 성경공부(금요일)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①한국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하여 복음주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며, ②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고, ③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며, ④이 세계에 봉사할 인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새벽기도와 일대일 성경공부 등 성경공부가 각 부서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도 폭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의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산 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교회 안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는 바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현주 공인회계사

C.P.A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회계처리 및 감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각종 License 신청업무

용자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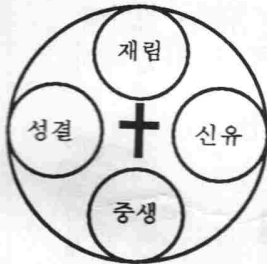
523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tel: (617) 944-2442
fax: (617) 944-2772

14 Monument Square
Leominster MA 01453
tel: (508) 534-8801
fax: (508) 840-3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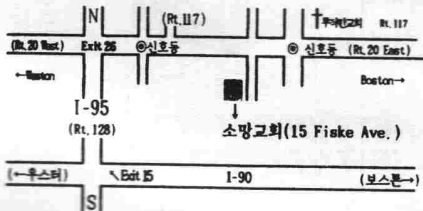
보스톤 소망교회

The Korean Hope Church of Boston

15 Fiske Ave. Waltham, MA 02154 Tel: (617) 647-0190 Fax: (617) 647-0385



교회주소



I-95, Exit 28으로 나와서 Rt. 20 East(Boston 방향) 쪽으로 1 마일 지점
Exit 28으로부터 두번째 신호등 직전에 우회전을 하면 교회가 보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매일)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장년 성경 공부	:오전 10:00 (주일)
한글학교	:오전 10:00 (주일)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00 (매 금요일)
여전도회 성경공부	:오전 11:00 (매 수요일)

*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약 20분간 인도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교회: (781) 647-0190



동양과 유럽 골동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예술품의 고유적인 한국 가구들을 구하고 있으니 문의 및 연락, 그리고 찾아주십시오.

Buying and Selling,

- ◆ Asian Porcelain and Pottery
- ◆ Satsuma, Imari, Nippon, Netsuke
- ◆ English, French, European Porcelain
- ◆ Decorative Arts, Fine Art
- ◆ Early Furniture
- ◆ Sterling Silver, Antique Jewelry

235 Washington Street
Marblehead, MA 10945
Tel.: (781)631-4255
Jessica Lee

로드 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

Rhode Island Central Korean Church

111 Greenwich Ave., Warwick, RI 02886

교회: (401) 739-7168 팩스: (401) 738-4215 목사관: (401) 885-9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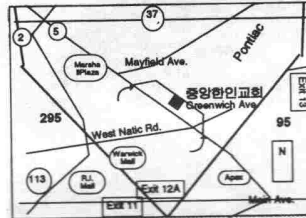
담임목사: 서영주 (Rev. Brian Y. Seo, Pastor)
교육목사: 박정환 (Rev. Jason Park, Pastor)
교육전도사: 손헬렌 (Sunday School Minister: Mrs. Hellen Son)
중,고등부 전도사: Mr. Julius Kim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2세 교육에 전념하는 교회
사람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며 배개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주일 대예배:	오후 12:30	주일 새가정반:	오전 11:00
주일 학교 예배:	오후 12:30	화요일 성경반:	오전 11:00
중고등부 영어 예배:	오후 12:30	목요일 교리반:	오후 7:00
청년회 예배:	오후 2:00	금요일 Youth:	오후 6: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청년반:	오후 7:00
구역 예배:	매월 마지막주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6:00



주일마다 교회 버스가 운행합니다.
(차가 없으신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Travel & Tours in Boston

보스톤 코리아 여행사

보스톤 교통의 중심지 Kenmore Sq. (B.U Book Store 옆)에 위치하여 최고의 서비스/최저가격 으로 항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정 Ticket 대리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든 국내선 / 국제선 항공권

최저 가격 보장 (각종할인)

보스톤 유일의 관광가이드

* 일일관광-시내 & 프리머스

* 뉴잉글랜드, 캐나다지역

** VISA, 통역/번역 기타 **



We are located in
650 Beacon St. Suit #205
Boston, MA 02215

Tel : (617)267-7777

Fax : (617)267-5009

Toll : 1-800-473-1922

Esther Chung (에스더 정)



가든 하우스



한식 중화 요리 전문

가든 하우스 별미 짬뽕
서울 명동 동해루 짜장맛
손으로 만든 국수와 별미의 짜장맛을 보기위해
이젠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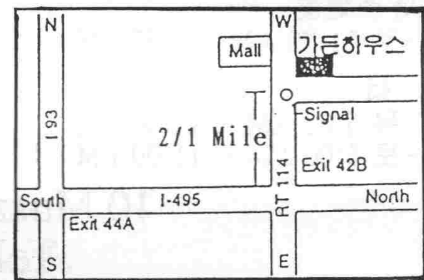
영업 시간
화 - 일 : 11:30 AM - 10:00 PM
월요일 : 휴무 (Closed)

기리오케 원비
최고의 분위기
최신식 음향

- * 짜장면
- * 짬뽕
- * 양장피
- * 탕수육
- * 잡탕밥
- * 즉석 떡볶이
- * 참쌀 순대 외 일체

뉴메뉴 - 한식류 일체!!

10 Winthrop Ave., Lawrence, MA 01843
Tel.: (978) 691-5448



아시아나 그릴

ASIANA GRILLE

한식일절

바베큐 그릴

스시바

중화요리(짜장, 짬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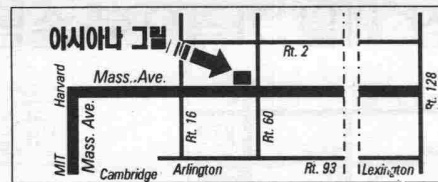
정통 일식(스시, 사시미)

타이음식

FREE PARKING

Open Hour : 7 days open

Mon - Thur : 11:30am - 10:00pm / Fri - Sat : 11:30am - 11:00pm / Sunday : 2:30pm - 10:00pm



Tel. (781) 646-2766 / 5686

Arlington, MA 02174 (아시아나 그릴은 일랑본 센터에 있습니다)



다 빈

- ◆ 최신의 시설
- ◆ 아늑한 분위기
- ◆ 즉석 바베큐 (갈비, 불고기)
- ◆ 일본식 다다미 방
- ◆ 연회석 완비 (20, 30, 100석)
- ◆ 주차장 완비 (오후 4시 이후)

일식 한식

FULL LIQU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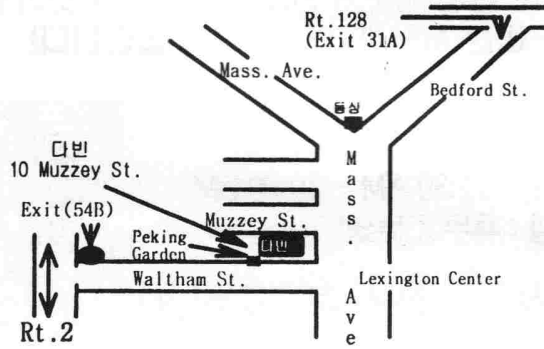
런치 스페셜

월-토 11:30 AM - 2:30 PM

다 빈

일-목 5:00 AM - 10:30 PM

금-토 5:00 AM - 11: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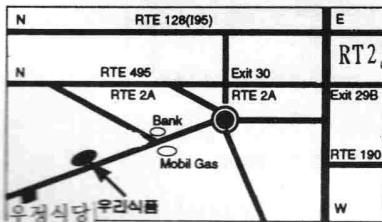
10 Muzzey St., Lexington Center
Tel.: (781) 860-0171

우리 식품점

싱싱한 야채는 농장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아모레 노에비아 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전문점

- ♥ 싱싱한 야채 및 생선류
- ♥ 선물 코너
- ♥ 조리된 밀반찬류
- ♥ 생선회 주문 받습니다.
- ♥ 각종 동양 식품 일체

"생선회 및 밀반찬, 떡 주문 환영"
항상 세일 가격으로 손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매일 오전9시 - 오후9시 (연중 무휴)

21 West Main Street, Ayer, MA 01432

Tel.: (973) 772-1772

하나 스시 (일식집)

Hana Sushi Bar

생선초밥, 생선회

주문
배달



단체
음식

영업시간

점심:

월-금 12:00PM - 2:30PM

저녁:

월-토 5:00PM - 10:30PM
일 5:00PM - 9:30PM

HANA SUSHI (하나 스시)
2372 Mass. Ave., Cambridge, MA 02140

Tel.: (617) 868-2121

Narita

Japanese Restaurant & Sushi Bar



CALL 868-2226

FAX 868-3338

CALL 868-2121 (Hana Sushi)
For FREE DELIVERY
to Arlington, Belmont, Cambridge,
Medford or Somerville
(with \$15 minimum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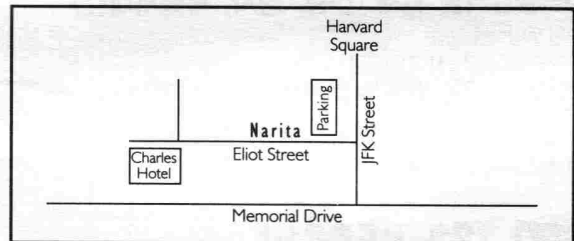
LUNCH

12:00PM - 2:30PM

DINNER

5:00PM - 10:30PM

일 5:00PM - 9:30PM



**18 ELIOT STREET
(HARVARD SQUARE)
CAMBRIDGE, MA**

Cambridge Dental Assoc.

원장 : Dr. Carol Yun(윤) D.M.D.

- * 최고의 치과 진료는 예방합니다.
- * 케임브리지, 섬머빌 두군데에 위치한 종합의료원에서 모든 치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 * 각종 보험 취급, 응급 치료
- * 저녁 시간, 토요일도 진료합니다.
- * 전화 예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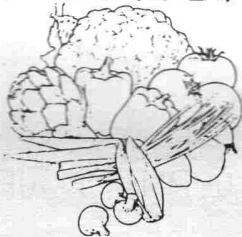


921 Mass Ave., Cambridge
(617) 492-8210

56 College Ave., Somerville
(617) 776-5900

농장식품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무공해 야채를 저렴한 가격으로 교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양식품 일체 (친절, 봉사, 특별서비스)

- 모든 동양식품 일체
- 항상 청결 신선유지 가격저렴
- 생산상 생로알제리, 한국과일 목록있음
- 비디오 테이프 대여
- 질 좋은 육류 판매
- 위생적인 무공해 밀반찬

(617) 232-0800 낮
(508) 584-9255 밤

1617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146

신신 식품점

SHIN SHIN ORIENT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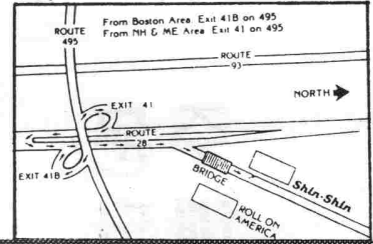
저렴한 가격

다양한 품목을 자랑합니다

978-686-0813

615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영업시간▶
화-목: 오전10시-오후7시
금-토: 오전10시-오후8시
일요일: 오전10시-오후6시
월요일: 휴무함



떡 전문점

형제떡집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떡집

백일 돛 잔치 주문 환영 각종 떡 종류 일체

687 Lowell St. #3-B (Armory Sq.), Mathuen, MASS 01844

(978) 975-3303

27 Shandel Drive, Tewksbury, MASS 01976

(978) 851-4182

청계종합식품

- ◆ 다양한 동양식품류 취급
- ◆ 최신 시설을 갖춘 생선부
- ◆ 싱싱한 야채류 취급
- ◆ 최고급 비육류 취급
- ◆ 조리된 밀반찬류 판매
- ◆ 특별 선물용 코너
- ◆ 한국 비디오 테이프 취급
- ◆ 넓은 주차장 시설 완비

아모레화장품
취급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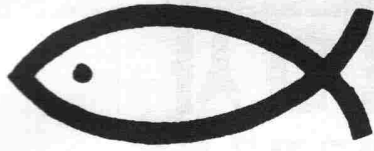
싱싱한
생선회 전문

주 7일 영업 / 10:00 am - 9:00 pm



(978) 772-5213

210-D West Main St., Ayer, MA 01432



싱싱한 생선

Captain Boston Fish



싱싱함 그 자체의 신선한 생선과
빛감은 언제든지 쿨링(생선전용보관)차로
원하시는 그 때에 바로 도착합니다.

식당전용배달

영업시간 : 월-토 8am-7:30pm

Tel. (781) 395-8138

Fax. (781) 391-5782

375 Main Street, Medford, MA 02155

93(N), Exit 31, 38번 도로 패스, 직진 두번째 신호등 코너

93(S), Exit 29, 38(N)번, 왼쪽 Harvard St., 두번째 신호등 코너



박 자동차 바디

Park Auto Body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었습니까?
오토바디 예술사 - 박 오토바디를 찾아주십시오.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한 견적서 작성



Park Auto Body
11 Embankment St.
Lawrence, MA 01842

Tel.: (978) 686-9546

Fax.: (978) 687-6255

태양자동차공업사

한인 최대의 자동차 정비 수리 및 바디 전문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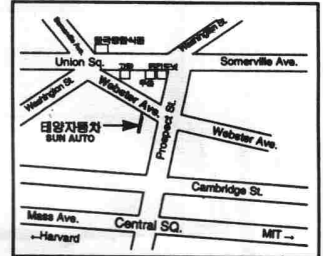
서비스 분야
 엔진수리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컴퓨터 테스트
 미플러
 자동차 전기
 에어컨
 윤활
 오일교환
 자동차바디
 자동차 페인트
 프레임 조정
 타이어
 트임서비스

총면적 8천 스퀘어피트에, 보스턴에서는 최초로 한인 자동차 바디샵까지 갖춘 태양자동차 공업사는 더욱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 철저한 서비스로 성실히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태양 엔진 전문 수리샵
 최신형 컴퓨터로 진단, 점검 Owner가 직접 정비합니다.

태양 자동차 바디샵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차 바디 페인트 배합 시설완비
 원색과 같은 페인트를 재생시킬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진
 크게 파손된 자동차 바디를 새것처럼 바꾸는 기술
 사고난 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 견적서 작성



영업시간
 월 ~ 금 : 7:30 am - 6:00 pm
 토요일 : 7:30 am - 1:00 pm

주소 : 47 Webster Ave., Somerville, MA 02143 팩스 : (617) 628-6337
 Tel : 617-628-1589 (정비부) / 617-628-4646 (바디부)

COMPLETE CAR CARE

자동차 종합정비소

컴퓨터에 의한 각종 차량의 정확한 분석

- Tune-Up
- Muffler
- Heating & Air Condition
- Engine Repair
- Brake
- Alignment

수너루브(Tel. 978-858-0070)
 자매업체인 옆에 문의
 David Kim

Tel. (978) 858-0074

818 MAIN STREET
 1 Mile South of 495 on Rte.38
 TEWKSBURY
 Sooner Lube 자매업체임

1 mile south of I 495 on Rt. 38

LOEWLL

I 495

Friendly's

Sooner Lube

Complete Car Care

Rt. 38

자동차 바디

FOREIGN MOTORS WEST

당신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당신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떤곳에 차를 맡겨야 될까요? 점점 Computer화, 고급화, 다양한 테크닉,
 다양한도색 방법 - 모르면 못고치는 기계입니다.. 오너도 모르는 순간 Mechanic의 실수로
 전기와Computer에 이상이 생겨 정말 위험한 순간에 Air Bag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FOREIGN MOTORS WESTS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장비, 많은 Information을 가진,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큰 시설과 장비, 기술의 Full Service 딜러입니다. 안심하고 당신의 차를 맡겨주십시오
 교민들을 위해 성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차종이든지 전화 주십시오

Full Service Dealer Bodyshop

롤스로이스, 벤츠, 랜지 로버, BMW, 썬쥬
 최신, 최고의 장비, 완벽한 수리
 Professional Body Technician

240 Eliot St., Ashland, MA 01721

Tel.: (617) 237-1212

(508) 881-8080

Fax.: (508) 881-3723

Chong Kyo Yi

이정규

Allston TV

Allston TV를 아세요?

여기 항상 저렴한 가격과 친절 한 봉사로 교포 여러분의 전자제품 구입에 손과 발이 되어 드립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Lechmere나 Circuit City보다 저렴하며, Free Delivery와 Set-up도 해 드립니다.
 <Ask for Detail>

취급 품목 안내

- ▶ Audio & Video
- ▶ Camaras
- ▶ Telecomm.
- ▶ KODAK Film Processing
- ▶ Small Home Appliances
- ▶ Watches, Ray-Ban Sunglasses
- ▶ Electronics, Accessories

OPEN HOURS

Mon.- Sat. : 9:30AM - 7:30PM

Sun. : 12:00PM - 6:00PM

Allston TV

190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 (617) 787-1667

Fax.: (617) 782-7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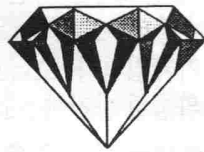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매주 일요일 12시-5시
까지 OPEN 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톤 보석

(THE DIAMOND EXCHANGE)

한국말로 된 간판
「보스톤
보석」을
꼭 확인
하세요



신용과 성실 그리고 정직을 바탕으로
교포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드립니다.

- ⊗ 다이아몬드 전문점(GIA Certificate)
- ⊗ 각종 보석 감정, 재가공 상담등 전문 서비스
- ⊗ Gold-18K, 14K 팔찌, 반지, 목걸이 도매가 제공
- ⊗ 약혼 생일 결혼예물 상담

339 Washington St., Boston Downtown (617)723-7979 / 723-3029 / 491-6227(야간) Mr.& Mrs.李

비슷한 Shop이 나란히 붙어 있으니 한국간판 「보스톤 보석」을 꼭 확인하세요

	CVS	Woolworth	Filenes	Jordan Marsh
	↓ ↓ ↓ 339 Washington St.			① Red Line Downtown Crossing
Jewelry Building	DIAMOND EXCHANGE	Nature Food	B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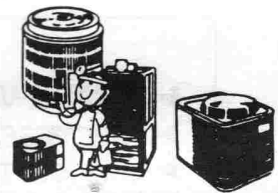
PARTS SERVICE INSTALLATION

Professional Services Installation
PSI

에어콘/냉동/히팅

냉동 및 에어컨 설치, 수리 상담
사업용 및 가정용

냉동 : Freezer, Cooler, Ice Machine
에어콘 : Central, Roof Top Unit
히팅 : Gas & Oil Heater, Hot Water Heater, Heat Pump



ALL INSURED & LICENSED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와 테크니션들이 Quality Work를 보장합니다.

24시간 출장 서비스!!!

대표
이영호

CALL US TODAY, 5 DAYS A WEEK!

Tel. (617) 547-0211

우리말 상담 Peter Lee

24 Baystate Rd., Cambridge MA 02138

치과 DENTAL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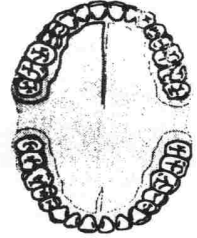
안태준 D.M.D.

Tufts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문유경 D.M.D.

Harvard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 Preventive: X-Rays, 치석 제거, 치료 상담, 충치 예방, Fluoride Treatment (불소)
- Cosmetic: 미용 치과, Bleaching, Bonding, Veneers
- Pedodontic: 소아치과, 어린이 충치 예방 (Sealants)
- Orthodontic: 교정치과
- Restorative: 아말감, 보철 (Crowns & Bridges), 틀니, 부분 틀니, 치아 이식 (Implants)
- Periodontic: 치주 질환 치료
- Endodontic: 신경 치료
- Oral Surgery: 구강 외과, 발치, 사랑니 제거
- Oral Pathology: 병리 치과, 구강암 진단



✦ Emergency Services ✦ 저녁, 주말 진료 가능

For Appointment, (781) 322-8548 또는 (617) 471-8161 에 Message를 남겨 주십시오.

Presidents Place Dental

1250 Hancock St. #123
Quincy, MA 02169
(617) 471-8161

Wal-Lex Dental

1077 Lexington St. #201
Waltham, MA 02154
(781) 894-1988

Boston Office

65 Harrison Ave. #206
Boston, MA 02111
(617) 338-9727



Prudential Securities



증권



채권



은퇴연금



IRA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성실히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Gregory S. Pang (방선욱)
Financial Advisor

60 Walnut Street, Wellesley, MA 02181

(617) 239-8420

MA (800) 225-9184

Fax. (617) 235-8506



New Patients Welcome!

CHARLES C. HUR D.M.D.
MYUNG J. KIM D.M.D.
JINNY BANG D.M.D.
CHARLES CAPETTA D.D.S.

PIERRE DOCHE D.M.D.
JACK DORKHOM D.M.D.
ROSS AJEMIAN D.D.S.
STEVEN SILVERBERG D.M.D.



△유아치과 △일반치과 △미용치과

Lexington Family Dental
394 Lowell St. Suite 3
Lexington, MA 02173
(781) 861-8978

Boston Dental Group
79 Middle St.
Concord, MA 01742
(508) 369-0254

Omni Dentix
172 N. Dartmouth Mall
N. Dartmouth, MA 02747
(508) 996-3360

한은애 교정치과

Dr. Unae K. Han (Orthodontist)
하바드 치과대학 D.M.D.
하바드 보건대학 M.P.H.
미시간 치과대학 M.S. 교정전문의

Orthodontics for Adults and Children

성인과 어린이
교정치료 전문

Member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Orthodontist Dr. Unae K. Han
789 Mass. Ave., Lexington, MA 02173
Tel.: (781) 862-0930

한국인 변호사 Young Lee Danesh

- ▶ 교통사고
- ▶ 이민문제
- ▶ 민사소송
- ▶ 법률상담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CONFIDENTIAL
비밀 보장

18 Tremont Street Suite 705
Boston, MA 0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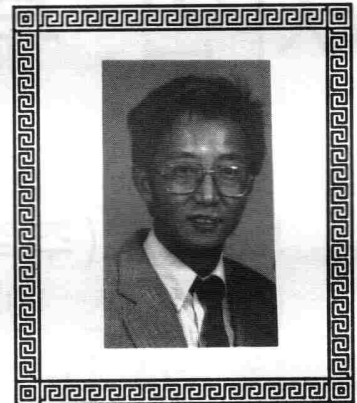
Tel. (617)367-4949 Fax.(617)367-3390

한 석 훈 변호사

Kenneth S. Han
Attorneys at Law
Law Offices of Kenneth S. Han

GENERAL PRACTICE Including;

- | | |
|-------------|---------------------------------|
| * 상법 | Commercial |
| * 사고상해법 | Personal Injury/Auto. Accidents |
| * 회사법 | Corporate/Small Business |
| * 부동산법 | Real Estate |
| * 이민법 | Immigration |
| * 가정법 | Family/Divorce |
| * 상속법 | Wills/Trust & Estate |
| * 민사, 형사 소송 | Civil/Criminal Litigation |



165-U New Boston St., Suite 289, Woburn, MA 01801
Tel: (617) 935-4620 Fax: (617)935-4187

LEE ASSOCIATES

사업과 부동산 서비스



이 경 해 (Kay Dong)
B : 1-800-867-9000
(508) 880-3535
Fax.:(508) 828-1585

239 Fremont Street
Taunton, Ma 02780

사업, 부동산 무료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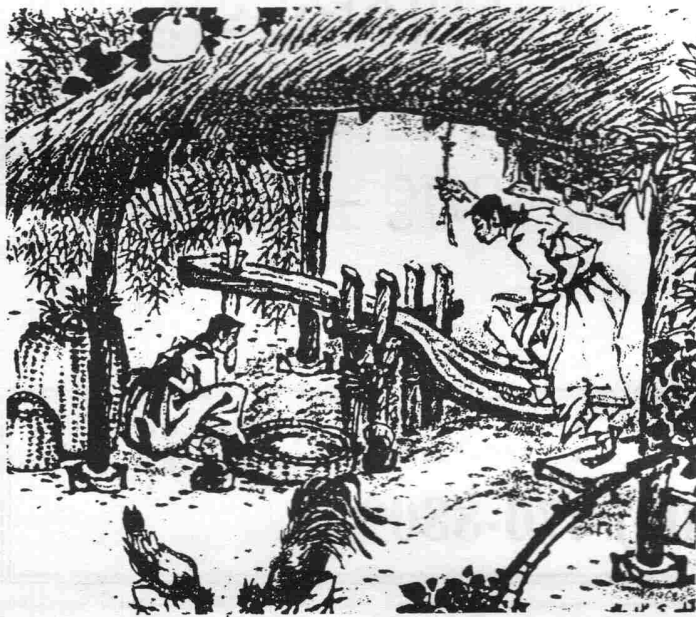
부동산 (주택과 상업용)
비즈니스 브로커(다양한 리스팅이 많음)
용 자 (노 인컴 베리피케이션 프로그램)

우촌집

Wuchon House

Korean - Japanese Restaurant

"오늘 우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영 업 시 간

월-토 : 오전11시30-오후11시30분

일요일: 오후12시 - 오후 10시

일품요리

특미 냉면

왕갈비

즉석곱창뉘지전골

해물전골

- * 각종 대소연회
- * 4-12명까지의
아담한 연회실
- * 무료주차장 오후5시이후
- * 일요일은 무료주차
- * 1 1/2 Mile from
Harvard & MIT
- * 둔.회갑.생일.잔치음식.
주문 받습니다.

Tel. (617)623-3313 / Fax. (617)623-3439

Union Square 290 Somerville Ave., Somerville Mass.



범양해운(주)

PUM YANG EXPRESS U.S.A., INC.

159 High Plain Rd., Andover, MA 01810



귀국 이삿짐 탁송 안내
상담 전화 (24 시간)
1-800-939-4989

보스톤 지역: Tel. (978) 470-8272 이진원
Fax. (508) 470-8809

뉴욕 사무소

425 Victoria Terrace, Ridgely, NJ 07657

Tel. 1-800-PUM YANG

Fax. (201) 840-1569

서울 본사

대표전화 (02) 774-6161

Fax. (02) 774-9145

부산 사무소

대표전화 (051) 469-4191

Fax. (051) 464-2944

New JangSoo Korean B.B.Q. Restaurant

뉴장수갈비

ニュー・ジャソス・カル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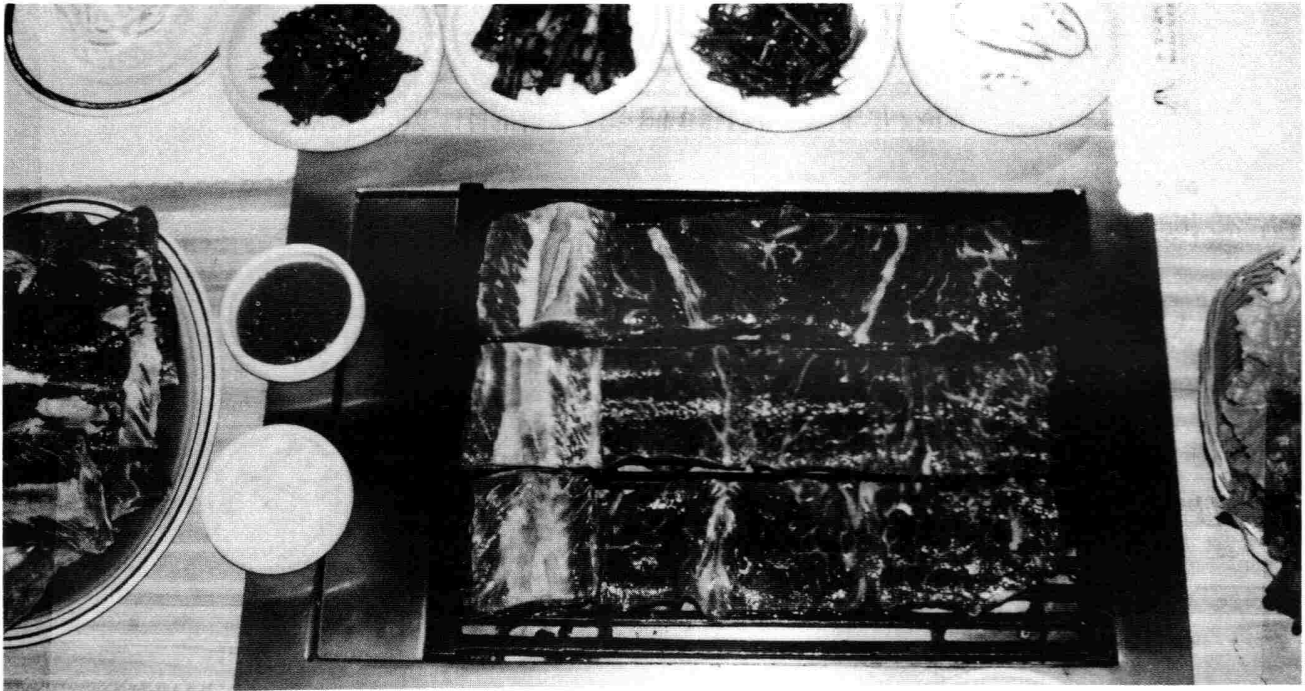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갈비 경력 15년의 주인이 직접 요리합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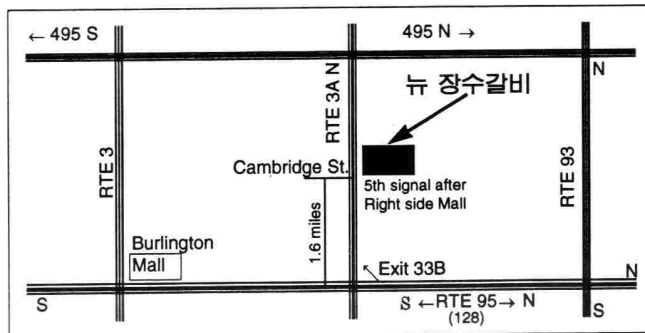
즉석 왕갈비 • 냉면 전문



뉴 장수갈비

☎ 617-272-3787

260 Cambridge Street
Burlington, MA 01803



▶ 대형 무료 주차장시설

OPEN HOURS

화-금: 11am - 10pm

토-일: 12pm - 10pm

※ 매주 월요일 휴업

지금,
신청하십시오!

스카이패스 회원의 혜택

* Officeway : 617-625-6455
(Somerville)
16 McGowan Highway
(Tower City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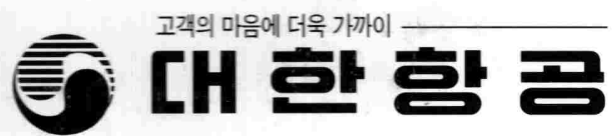
스카이패스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십시오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카드를 갖고 계십니까?
아직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사용하실수록
더욱 커지는 스카이패스의 혜택-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카드와 함께 여행의 즐거움은 한층 더해질 것입니다.

- 다양한 혜택 • 편안한 여행 -

- 델타항공과 상호 마일리지 교환(전미주, 일본, 유럽 회원만 가능)
- 5만 마일 이상 모닝캄 회원으로 우대
- 잉꼬플랜으로 배우자의 누적거리 합산
- 좌석승급 혜택
- 스카이패스 주니어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 American Express Card 이용 마일리지 인정(미국 거주자)
- Holiday Inn, HYATT Hotel 숙박시 해당 마일리지 인정

-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스카이패스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예약 및 문의 : 1-800-438-5000 • 스카이패스 서비스센터 : 1-800-525-4480 • <http://www.koreanair.com>